

碩士學位論文

韓·日 放送語彙의 比較 考察
- KBS 와 NHK 뉴스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李 昌 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美 京

1999年 8月

韓・日 放送語彙의 比較 考察

- KBS 와 NHK 뉴스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李 昌 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1998年 6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美 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美京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國文抄錄》

韓・日 放送語彙의 比較 考察
- KBS와 NHK뉴스를 中心으로 -

金 美 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李 昌 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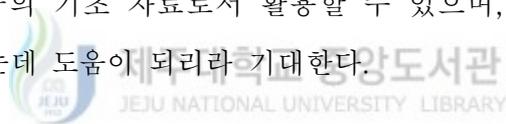
본 연구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情報化 時代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影響을 주고 있는 放送의 語彙 중 뉴스 語彙를 대상으로 韓・日 양국의 放送 語彙 사용의 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放送 語彙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전개하였다. 현대 어휘 연구의 관점에서 무작위 추출에 의해 선정된 KBS뉴스 4편, NHK뉴스 4편을 각각 品詞・語種・語數의 비교에 의한 방법으로 방송 어휘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그 방법으로 II장에서는 放送과 放送言語, 뉴스의 定義 및 性格을 살펴보았으며, III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된 자료의 선정과 sampling을 제시하였다. 조사 항목에 따라 sampling된 자료를 가지고 IV장에서는 日常生活語와의 비교, 雜誌 語彙와의 비교로 뉴스 語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른 영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도출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뉴스 語彙가 韓國과 日本이라는 差異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있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V장의 KBS와 NHK 뉴스 語彙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양국 뉴스에서 다루어진 어휘의 품사 비율, 구성상의 공통점 및 차이점, 기본 어휘의 사용 실태, 한·일 양국 방송의 어휘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뉴스는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가능한 컴팩트한 표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명사·동사’ 위주의 어휘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대부분이 기본 어휘로 사용되고 있으며, 語種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漢字語 중심의 어휘로 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공통점외에 어휘 사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취재하다, ○○○ 기자, 時勢, 混和, 근심” 등의 語의 사용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お伝えする, ○○さん, 相場, 混入, 掛念” 등의 어휘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휘 선택에 있어서의 표현상의 차이의 제시는 현대 비교 어휘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한·일 양국의 방송 어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目 次

國文抄錄	i
I. 序 論	1
II. 放送 語彙의 性格	4
2.1 放送(Broadcasting)과 放送 言語	4
2.2 뉴스의 定義 및 性格	6
III. 資料의 選定과 sampling	8
3.1 資料의 選定	8
3.2 sampling	9
IV. 뉴스 語彙의 特徵	12
4.1 日常 語彙와의 比較	12
4.2 雜誌 語彙와의 比較	14
4.2.1 品詞 分類에 의한 比較	15
4.2.2 上位頻度語에 의한 比較	17
V. KBS와 NHK뉴스 語彙의 比較 考察	21
5.1 品詞 分類에 의한 比較	21
5.1.1 名詞	22
5.1.2 動詞	32

5.1.3 形容詞	42
5.1.4 副詞	49
5.1.5 代名詞	54
5.1.6 數詞	56
5.1.7 接統詞	58
5.1.8 冠形詞 [連體詞]	59
5.1.9 感歎詞 [感動詞]	60
5.1.10 品詞別 分布	61
5.2 語數에 의한 比較	63
5.3 語種에 의한 比較	65
5.3.1 固有語	66
5.3.2 漢字語	66
5.3.3 外來語	67
5.3.4 混種語	68
5.3.5 語種別 分布	70
VI. 結 論	72
參攷文獻	75
Abstract	78
附 錄	80



表 目 次

《표Ⅳ-1》 NHK뉴스의 품사 분류표(1)	13
《표Ⅳ-2》 일상 생활어의 품사 분류표	13
《표Ⅳ-3》 NHK뉴스의 품사 분류표(2)	16
《표Ⅳ-4》 잡지 어휘의 품사 분류표	16
《표Ⅳ-5》 NHK뉴스의 사용율순 어휘표	18
《표Ⅳ-6》 잡지의 사용율순 어휘표	18
《표Ⅴ-1》 KBS뉴스의 명사 분류표	22
《표Ⅴ-2》 NHK뉴스의 명사 분류표	23
《표Ⅴ-3》 KBS 뉴스의 명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24
《표Ⅴ-4》 KBS뉴스의 명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26
《표Ⅴ-5》 NHK 뉴스의 명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27
《표Ⅴ-6》 NHK뉴스의 명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29
《표Ⅴ-7》 KBS와 NHK뉴스의 명사 사용율순 어휘표	30
《표Ⅴ-8》 NHK뉴스의 동사 분류표	32
《표Ⅴ-9》 명사(한자어)+하다·하는의 동사 구분표	33
《표Ⅴ-10》 KBS뉴스의 동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34
《표Ⅴ-11》 KBS뉴스의 동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35
《표Ⅴ-12》 NHK뉴스의 동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37
《표Ⅴ-13》 NHK뉴스의 동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38
《표Ⅴ-14》 NHK뉴스의 동사 사용율순 어휘표	40
《표Ⅴ-15》 KBS뉴스와 NHK뉴스의 형용사 분류표	42
《표Ⅴ-16》 KBS뉴스의 형용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43
《표Ⅴ-17》 KBS뉴스의 형용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44
《표Ⅴ-18》 NHK뉴스의 형용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45
《표Ⅴ-19》 NHK뉴스의 형용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46

《표 V-20》	KBS와 NHK뉴스의 형용사 사용율순 어휘표	47
《표 V-21》	KBS뉴스와 NHK뉴스의 부사 분류표	49
《표 V-22》	KBS뉴스의 부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50
《표 V-23》	KBS뉴스의 부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50
《표 V-24》	NHK뉴스의 부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52
《표 V-25》	NHK뉴스의 부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53
《표 V-26》	KBS뉴스와 NHK뉴스의 대명사 분류표	54
《표 V-27》	KBS뉴스와 NHK뉴스의 대명사 어휘표	54
《표 V-28》	KBS뉴스와 NHK뉴스의 수사 분류표	56
《표 V-29》	KBS뉴스의 수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56
《표 V-30》	NHK뉴스의 수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57
《표 V-31》	KBS뉴스와 NHK뉴스의 접속사 분류표	58
《표 V-32》	KBS뉴스와 NHK뉴스의 관형사 분류표	59
《표 V-33》	KBS뉴스와 NHK뉴스의 감탄사 분류표	60
《표 V-34》	KBS뉴스의 품사별 분류표	61
《표 V-35》	NHK뉴스의 품사별 분류표	61
《표 V-36》	KBS뉴스와 NHK뉴스의 어수표	63
《표 V-37》	KBS와 NHK뉴스의 연어수에 대한 별개어수의 비율(%)	64
《표 V-38》	KBS뉴스의 품사별 별개어수 분류표	65
《표 V-39》	NHK뉴스의 품사별 별개어수 분류표	65
《표 V-40》	KBS뉴스와 NHK뉴스의 고유어 분류표	66
《표 V-41》	KBS뉴스와 NHK뉴스의 한자어 분류표	67
《표 V-42》	KBS뉴스와 NHK뉴스의 외래어 분류표	67
《표 V-43》	KBS뉴스와 NHK뉴스의 혼종어 분류표	68
《표 V-44》	KBS뉴스와 NHK뉴스의 혼종어의 동사 분류표	69
《표 V-45》	KBS뉴스와 NHK뉴스의 어종별 분류표	71

目 次

【그래프 IV-1】 NHK뉴스와 일상 생활어의 품사 분류	14
【그래프 IV-2】 NHK뉴스와 잡지 어휘의 품사 분류	16
【그래프 V-1】 KBS뉴스와 NHK뉴스의 명사 분류	23
【그래프 V-2】 KBS뉴스와 NHK뉴스의 품사 분류	62
【그래프 V-3】 KBS뉴스와 NHK뉴스의 어휘량	63
【그래프 V-4】 KBS 뉴스와 NHK 뉴스의 어종 분류	71



I. 序 論

放送은 20세기의 산물이다. 국가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때로는 이윤 추구의 도구로서, 때로는 일반대중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그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렇게 放送은 20세기의 삶 속에 녹아들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情報化時代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거의 날마다 放送을 접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다양한 情報와 기능을 얻으며 일상의 사고와 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影響을 받고 있는 게 또한 현실이다. 더구나, 텔레비전 放送이 일상화되어 일상의 회화와 같은 어투의 말이 사용되는 放送도 물론 있지만, 放送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放送이라는 특성상 일상 생활어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면서 일본어에 익숙하게 되고 시간이 날때면 시청하게 되는 일본의 放送은, 물론 일본어가 익숙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우리의 放送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일본어를 받아들이는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放送 표현과의 차이 때문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큰 影響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放送의 語彙’를 대상으로 현대 어휘 연구의 관점에서 한·일 放送 어휘 특징에 대한 의구심의 해결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대 어휘 연구²⁾는 日本의 경우 国立国語研究所³⁾의 창설(昭和22年, 1947年)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2) 어휘의 연구에는 意味와 語史, 語彙調査를 통한 연구가 있다.

3) 日本의 현대 어휘 연구의 중심적 존재로서 많은 어휘 연구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ランダムサンプリング에 의한 統計的手法을 이용한 대량 어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컴퓨터를 도입하여 보다 규모가 큰 어휘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国立国語研究所報告8 (1955), 『談話語の実態』

있다. 늦게 시작된 만큼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하여 많이 뒤져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으며, 현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 과제 또한 많은 분야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휘의 先行 研究史를 보면, 고대 어휘의 연구에는 物語 및 対象資料 중심으로 연구되고4), 중세 어휘도 마찬가지로 특정 장르의 연구가5), 근대 어휘의 연구에는 작품 뿐만이 아니라 작가의 특성을 다룬 어휘 연구6)가 이루어졌다. 현대의 어휘 연구는 연구의 다양성 등으로 「放送の語彙」7), 「文学作品の語彙」8) 등 여러 전문분야 별로 행하여지는 경향9)이 있다.

그리고, 방법론상의 어휘 연구는 어휘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전체로서의 어휘 체계의 기술과 어느 한정된 범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의 어휘의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10)이 있다. 어휘를 전체의 대상으로 보든,

-
- 12 (1957), 『総合雑誌の用語』
 23 (1964), 『現代雑誌九十種の用語用字』
 37 (1970), 『電子計算機による新聞の語彙調査』
- 4)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橋本四郎, 「万葉集の語彙」 『古代の語彙』, 明治書院, pp.79~98
 山口仲美, 「源氏物語の語彙」 『古代の語彙』, 明治書院, pp.305~328
 小久保崇明, 「歴史物語の語彙」 『古代の語彙』, 明治書院, pp.329~352
- 5)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西田直敏, 「軍記物語の語彙」 『中世の語彙』, 明治書院, pp.33~66
 水野弥穂子, 「法語の語彙」 『中世の語彙』, 明治書院, pp.89~102
 大友信一, 「中国・朝鮮資料の語彙」 『中世の語彙』, 明治書院, pp.289~310
- 6)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森岡健二, 「開化期翻譯書の研究」 『近代の語彙』, 明治書院, pp.63~104
 中村 明, 「夏目瀨石の語彙」 『近代の語彙』, 明治書院, pp.263~296
 岡本 勲, 「芥川竜之介の語彙」 『近代の語彙』, 明治書院, pp.325~346
- 7) 管野 謙, 「放送の語彙」 『現代の語彙』, 明治書院, pp.329~349
- 8) 樺島忠夫, 「文学作品の語彙」 『現代の語彙』, 明治書院, pp.237~256
- 9)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稲垣吉彦, 「現代の新語・流行語」 『現代の語彙』, 明治書院, pp.153~174
 加藤正信, 「現代の隠語」 『現代の語彙』, 明治書院, pp.175~189
 佐竹秀雄, 「現代の専門用語」 『現代の語彙』, 明治書院, pp.191~211
 中野 洋, 「流行歌の語彙」 『現代の語彙』, 明治書院, pp.257~307
 靄岡昭夫, 「漫画の語彙」 『現代の語彙』, 明治書院, pp.309~327
- 10) 예를 들면, 고유일본어·한자어등 단어의 유래에 입각한 어휘 구성 연구, 각 지방의 방언과 표준어 대비·대조연구 등이 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어휘의 연구를 하든 어휘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어휘 조사는 언어 사용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분야·시대 등의 범위를 일정하게 하여 어떠한 語가 어떻게 사용되는 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전면적 조사와 그 일부를 표본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샘플링 조사(추출조사)가 있다. 조사 어휘량이 많아짐에 따라 샘플링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조사의 결과가 얼마나 실제의 어휘 실태를 반영하는 가가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도 어휘론의 대상으로서의 어휘¹¹⁾를 특정의 언어체계, 특정 사회의 언어체계,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한 단어들의 종합으로 보고, 한·일 양국의 ‘放送의 語彙’중에서 특히 ‘뉴스의 語彙’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일 양국의 뉴스 어휘의 비교에 앞서 일상 생활어와의 비교, 잡지 어휘와의 비교를 통하여 뉴스만이 갖는 어휘의 특징을 찾아내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KBS와 NHK 뉴스 어휘의 어휘량¹²⁾을 가지고, 양국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어휘의 양적인 면에서의 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뉴스 어휘의 특성을 고찰한다. 특히, 양국 뉴스에서 다루어진 어휘의 품사 분포, 구성상의 공통점 및 차이점, 기본어휘¹³⁾의 사용 실태, 語數와 語種의 분포 등을 알아보고 한·일 양국 방송의 어휘 선택에 있어서의 특징을 유추해본다. 이러한 한·일 방송의 비교 분석으로 양국 방송 어휘의 특성과 차이를 알아냄으로써 양국의 방송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1) 語彙：“一定の範圍に用いられる語の總體”

林大, 『国語学辞典』(1972), 日本国語学会編 제21版, p.355

12) 語彙量은 보통 延語數와 別個語數를 말하는데, 연어수는 같은 단어가 두 번 이상 나오더라도 모두 세어 전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별개어수는 두 번 이상 나오는 단어는 중복을 피하고 한 단어로 계산하는 방법에서 나온 수를 말한다.

13) 기본어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빈도가 높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어휘 중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기본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어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본어휘는 약 2,000~3,000語(李庸周외, 1986:106)이며, 일본의 경우는 약 2,000語(国立国語研究所, 1979)로 본다.

II. 放送 語彙의 性格

韓國과 日本의 放送 語彙를 비교 고찰함에 앞서 우선, 放送의 概念과 放送에서 사용되는 言語의 特征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뉴스’의 性格을 알아본다.

2.1 放送(Broadcasting)과 放送 言語

전자기 에너지 곧 전파를 이용해서 이질 익명 다수의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일, 또는 그러한 제도나 비즈니스인 방송은 우리 나라 방송법¹⁴⁾상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이다”(제2조1항)라고 정의한다. 즉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전파로 프로그램 또는 커머셜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이 방송을 전파에 의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 그리고 방송은 단순한 전파의 발사가 아니라 전파의 물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가치관, 사상, 감정, 기타 제반 사회 현상을 음성, 음향,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통신 기기와 방송 기술의 발달로 현대인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방송에서 사용되는 방송 언어(Broadcast Language)는 넓은 의미에서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모든 언어를

14) 1963년 12월 6일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방송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방송법이 제정되었고, 이 방송법에 따라 1967년 일반 방송 세칙과 광고 방송 세칙을 포함하는 방송윤리규정이 제정되었다. 1972년에는 국영으로 운영되던 KBS를 공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에 들어서 이 공영방송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비객관적이고 비공정한 편파방송을 한다는 시비도 있었으며,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독립성, 객관성,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송법으로의 개정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1987년 11월 28일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법으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말하는데,¹⁵⁾ 음성 언어와 화면을 통해 영상으로 송출되는 문자 언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인쇄매체와는 달리 방송언어는 청각에 호소하는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실현되며, 방송의 여러 분야에 따라 방송 언어도 다양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문방송인¹⁶⁾들의 음성 언어와 화면을 통해 영상으로 송출되는 문자 언어¹⁷⁾로 규정한다.

방송은 그 특성상 기록성이 없고 -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도 내용을 빠른 워드로 쳐서 기록하는 방송도 있지만 - 일방적인 전달이며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한다. 문자 방송이 아닌 경우는 문자의 표의성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으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달의 속도 조절도 할 수 없다. 또한, 특별한 사전 준비¹⁸⁾가 없으면 방송 내용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며, 프로그램에 따라 전달자의 인격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¹⁹⁾ 또한, 방송 언어는 보편성을 지녀야 하며, 순화된 말²⁰⁾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은 공영 방송이든 민간 방송이든 시청률에만 급급한 나머지 오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²¹⁾ 뉴스는 아나운서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표준어에 의한 방송은 한 나라의 국어의 통일·순화에 적잖이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NHK의 경우 『日本語発音アクセント辞典』²²⁾을 발행하여 민간에게 보급함으로써 Pitch Accent(고저 액센트)의 정확한 사용을 돕고 있기도 하다.

15) 최기호 (1989), 『방송언어의 어제와 오늘』, 미래문화사
 16) 보도 방송의 경우는 아나운서, 기자, 특파원, 기상캐스터 등 전문 교육을 받은 자를 일컫는다.
 17) 캡션방송과 문자만이 송출되는 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
 18) 필요에 따라서 하는 録音·録画 등을 말한다.
 19) 菅野 謙, 「放送の語彙」 『現代の語彙』, 明治書院, pp.335~338
 20) 朴甲洙 (1985), 「放送言語와 語彙」 KBS 한국표준 방송언어, 한국방송공사, p.152
 21) 예를 들면 드라마인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며, 오락물 등은 출연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어휘사용을 하기 때문에 순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22) 日本放送協會, 『日本語発音アクセント辞典』, 1966 初版- 1982 現在 34判発行

2.2 뉴스의 定義 및 性格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또는 흥미로운 사건에 대한 시의적 보도(時宜的 報道)를 의미하는 뉴스에 대한 정의들은 매우 다양하다. 올트와 에머리(Phillip H. Ault and Edwin Emery)²³⁾는 ‘독자들에게 흥미있거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시의적 보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부시(Chilton R. Bush)²⁴⁾는 ‘평범한 인간들에게 자극과 그에 충족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존슨(Gerald W. Johnson)은 ‘잘 훈련된 편집자들이 자신들의 신문에 게재키로 결정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버(Walter Gieber)는 ‘뉴스란 신문이 만드는 것’이라는 극단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찬리(Mitchell V. Charnley)는 그 구성요소들 즉 뉴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귀납적 방법으로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는 주장하기를 “어떤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성(significance) 또는 흥미성(interest)을 지닐 때, 그 사건은 곧 뉴스가 된다.”면서, ‘뉴스란 곧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중요하든지 혹은 흥미로운 사건이나 그에 대한 의견의 시의적 보도’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의미로 정의되는 뉴스 중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TV뉴스는 인쇄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과는 달리,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요약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보여주는 것이다.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영상 역시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비록 시청 시간이 짧아도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V뉴스는 기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fact)과 실제 현장을 바탕으로 제작된다는 점 때문에 TV뉴스에 대한

23) Edwin Emery (1991),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s』, HarperCollins Publishers

24) Chilton R. Bush (1970), 『Newswriting and reporting public affairs』, Philadelphia, Chilton Book Co.

25) 한국언론연구원 編 (1997), 『매스컴대사전』, 한국언론연구원

신뢰도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높다.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은 TV뉴스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도 영상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또한, 뉴스는 아나운서, 앵커맨, 기자 등 전문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교양방송, 연예·오락방송, 음악방송, 광고방송 등의 방송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에 입각한 정보 전달 보도라는 면에서 교양·연예·오락등의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고른 시청자 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 대상으로는 유·소년·청년층보다는 중·장년·노년층, 여성보다는 남성, 저지식층보다는 고지식층이라고 볼 수 있다.²⁶⁾ 또한, 뉴스의 어휘는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공손체를 기본으로 하여 사용하며, 비회화적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물론, 앵커시대의 개막과 함께 앵커와 초대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뉴스, 2인 이상의 더블 앵커의 대담을 통한 뉴스의 진행도 있어, 기존의 아나운서 단독의 뉴스 진행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뉴스도 있겠지만²⁷⁾,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아나운서 체제의 비회화적 성격의 뉴스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화적 뉴스²⁸⁾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6) 新聞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심각한 현상을 나타낸다. 어린이와 학생층의 脱文字化 현상으로 신문보도의 뉴스기사는 보지않고 스포츠와 연예기사, 만화등만 보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27) 엄밀하게 보면 KBS뉴스나 NHK뉴스의 대담도 틀에 박힌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거의 비회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8) 會話的 뉴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KBS 1 P.M. 7:00 뉴스 네트워크 (部分會話的)

P.M. 11:00 뉴스라인

NHK P.M. 5:00 首都圏いきいき房総半島行楽情報

P.M. 6:00 首都圏ネットワーク

NHK BS 1 P.M. 5:00 列島情報

2 P.M. 12:00 ニュース

テレビ朝日 P.M. 8:00 Mステーション

P.M. 10:00 ニュースステーション

Ⅲ. 資料의 選定과 sampling

3.1 資料의 選定

뉴스의 어휘를 연구함에 있어 양국의 주요 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²⁹⁾와 NHK(일본방송협회)³⁰⁾의 TV뉴스를 선택하였다. 양국을 대표하는 방송으로서 또한 공영 방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방송은 공익을 위한 방송이라는 점과 가장 표준적인 발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 수 있다. 물론, NHK는 오래 전부터 공영성과 교양을 추구하고 있는 방송으로서 자리잡아 왔다. 현재의 KBS도 기존의 정부 홍보 차원의 방송에서 탈피하여 사실 보도, 공익 우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NHK에 비하여 오락편성의 비율이 많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³¹⁾. 가장 많은 시청률을 보이는 저녁시간(오후5시~12시)의 경우 KBS는 뉴스가 245분, 58.3%의 비율로 방송되지만, NHK에서는 310분으로 73.8%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³²⁾.

29) KBS(韓國放送公社)는 국내 유일의 공영방송으로서 1961년 텔레비전 방송을 개시하였으며, 1973년 한국방송공사로 체제를 정비하였다. 2개의 TV채널과 2개의 위성방송 채널, 6개의 라디오 채널, 1개의 장애인 특수 방송 채널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각 부문을 연결 통합하고 있으며, 특히 제1TV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채널로서 보도, 시사정보, 스포츠, 교양등을 방송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없는 채널이다.

30) 사회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교양·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NHK(日本放送協會)는 全國放送에 地域放送을 겸하며, 라디오, TV, FM, 衛星放送, 文字放送등 뉴스 미디어에도 진출하였으며, 全國에 75개의 放送局과 많은 中繼局이 있고, 年間 豫算 약 3,500億円, 職員 約 15,000명의 世界的으로도 巨大한 放送 機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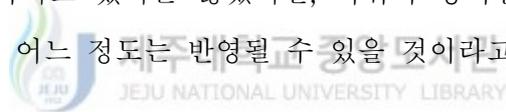
31) KBS 1의 교양프로그램 비중이 많은데 비하여 KBS 2는 오락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NHK인 경우는 1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BS에 비하여 교양 비중이 높다고 보여진다.

32) 양국 방송사(공영·민간)들의 저녁시간대(P.M.5~12)의 뉴스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국》	KBS 1	245분	58.3%	,	KBS 2	60분	14.2%
	MBC	90분	21.4%	,	SBS	55분	13.1%
《일본》	NHK	310분	73.8%	,	日本テレビ	90분	21.4%

이러한 양 방송의 뉴스 중 프로그램의 편성체제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KBS의 저녁 9시뉴스와 NHK의 저녁 7시뉴스를 어휘 조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비록, 시간대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라는 점에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KBS 저녁 9시뉴스와 NHK 저녁 7시뉴스의 일정 분의 뉴스의 선택은 98년 7월 24일, 7월 27일, 8월 3일, 11월 9일의 4일분의 뉴스를 現地에서의 녹화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분류·분석하였다. 일자의 선택³³⁾은 KBS와 NHK뉴스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³⁴⁾을 갖추었다고 여겨지는 7월 27일, 8월 3일, 11월 9일 뉴스와 일본의 自民党 総裁選挙라는 이례적인 행사를 다룬 점에서 다른 뉴스와는 어휘면에서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표본으로 하였다. 4회분이라는 뉴스가 비록 뉴스 어휘 전체를 대변해주는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휘의 양적인 면에서의 샘플로서 분석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2 sampling

어휘조사의 대상을 品詞別·語彙量(延語數³⁵⁾·別個語數³⁶⁾·使用頻度·

フジテレビ 135분 32.1% , TBSテレビ 65분 15.5%

テレビ朝日 135분 32.1%

위와 같은 비율로 뉴스가 보도되는데, 공영 방송이 뉴스에 치중함에 비해 민간 방송은 뉴스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드라마, 쇼 등의 흥미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을 알 수 있다.

- 33) 무작위 추출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된 NHK뉴스 6편(7/24, 7/27, 8/3, 8/7, 11/1, 11/9)과 KBS뉴스 6편(7/24, 7/27, 8/3, 8/9, 11/1, 11/9) 중에서 각 4편씩을 선택하였으며, 일자는 편이상 같게 맞추었다.
- 34)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뉴스로 주제당 시간 배분의 평균화로 보면 그렇다. 대개 이 시간대의 뉴스는 평균 22~29개의 테마를 가지고 보도가 되며, 한 테마 보도에 평균 100~160초 정도를 소요한다.
- 35) 延語數(running words) : 같은 단어가 두 번 이상 나오더라도 모두 세어

頻度順位・使用率(비율%)・語種別구성으로 나누어, KBS뉴스 4회분, NHK 뉴스 4회분 등 8회분의 뉴스의 내용 중 아나운서와 기자(때에 따라 인터뷰)의 대사를 위주로 하여 sampling하였다. 그 외 뉴스 중에 나오는 일반인들의 대화내용은 sampling에서 제외시켰다.

우선, 품사별 분류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문법³⁷⁾의 품사 분류를 따랐는데, 조사·조동사는 전체 語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 본 연구의 취지와도 상이하므로 선행 연구자들의 방법대로 분류항목에서 제외시켰다. 뉴스에서 어떤 語들이 반복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류표 작성은 연어수를 이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분류항목은 다음과 같다.

【 품사 분류 항목 】

명사 [보통·고유(인명, 지명, 인명·지명외(이하 인·지외라 함))]

대명사

수사 [부수적 단위 포함]

동사 [활용형 구분없음]

형용사 [형용동사 포함]

부사

전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나온 수

“自民党の総裁の選挙は今日投票の行われ、～ 自民党総裁に就任す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란 문장의 경우 延語數 11 (조사·조동사 제외)

36) 別個語數(differenc words) : 두 번 이상 나온 단어는 중복을 피하고 한 단어로 계산하는 방법에서 나온 수

“自民党の総裁の選挙は今日投票の行われ、～ 自民党総裁に就任す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란 문장의 경우 別個語數 9 (조사·조동사 제외)

37) 한국어의 학교문법 통일안의 품사 체계는 아홉 품사를 인정하여 명사·대명사·수사·조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관사로 분류하고, 일본어의 경우는 보통 橋本(Hasimoto)의 문법으로, 명사·동사·형용사·형용동사·부사·연체사·접속사·감동사·조사·조동사로 분류한다.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국어문법론』, 塔出版社, p.64

橋本進吉 (1958), 『国語法体系論』, 岩波書店

관형사 [연체사]

접속사

감탄사 [감동사]

이상과 같은 분류항목에 따라 분류된 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빈도수에 따라 어휘표를 작성하였는데,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항목을 변경시킨 경우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 항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연체사·접속사·감동사는 齶가 적어 구분하지 않고 어휘표는 작성하지 않은 대신에 단어만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어휘표 작성에서 표제어는 기본형(사전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語種別 분류는 기본적으로 명사, 동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단어를 고유어·한자어·외래어·혼종어의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 혼종어의 분류에서는 동사를 명사+하다·되다, 외래어+하다, 명사+する, 명사+できる, 외래어+する등으로 세분화하여 語種에서의 동사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語彙量의 분류는 延語數와 別個語數를 각 품사별로 분류하고, 延語數에 대한 別個語數의 비율을 통하여 양국 뉴스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IV. 뉴스 語彙의 特徵

본 장에서는 일상 생활어와 잡지 어휘와의 비교를 통하여 뉴스 어휘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는데, 한국의 KBS뉴스와의 비교 대상으로서의 선행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여기에서는 일본의 NHK뉴스만을 대상으로하여 ‘뉴스 語彙와 日常生活語의 比較’, ‘뉴스 語彙와 雜誌 語彙의 比較’에 의하여 일반적인 뉴스 語彙의 特徵을 알아보려고 한다.

4.1 日常 語彙와의 比較

뉴스 어휘와 일상 생활어는 음성 언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슷하지만, 방송의 특성상 무절제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화된 制限的 用語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NHK뉴스와 日本의 일상 생활어의 품사 구분을 통하여 일상 생활어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선행 연구가 되어 있는 일상 생활어의 품사 분류의 자료는 시대가 50年代라고 하는, 比較上 약점으로 작용되지만 參考資料로는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国立国語研究所」에 있는 1952년과 1953년 東京의 일상담화의 녹음자료, 연어수 83,620語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여기에서는 47.6%를 차지하는 조사·조동사를 제외한 52.4%를 대상으로 하였다.³⁸⁾ 뉴스 어휘의 품사 분류는 sampling한 NHK뉴스의 품사 분류 결과로 연어수 4회 평균 5,858語 중 전체의 36.3%를 차지하는 조사·조동사를 제외한 수치로 평균 3,731語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38) 国立国語研究所報告8 (1955), 전게서
宮島達夫 編 (1982), 『図説日本語』 角川小辞典-9, 角川書店, p.77

어떤 語들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어수를 가지고 비교하였으며, 품사 분류는 선행 연구가 된 일상 생활어의 분류와 맞추기 위하여 명사의 비율안에 수사를 포함시켰다. 분류표는 다음의 《표IV-1》, 《표IV-2》와 같다. 그리고, 분류표의 비교는 NHK뉴스와 일상 생활어의 품사 비율의 차이를 ‘±’로 표기한 것으로 양자간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표IV-1》 NHK뉴스의 품사 분류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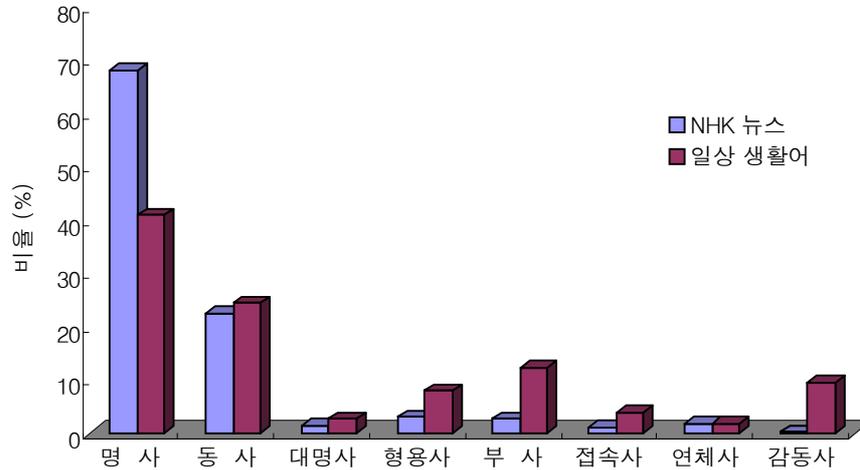
품 사	비 율 %	비 고
명 사	68.0	+ 27.1
동 사	22.4	- 2.0
대 명 사	1.3	- 1.3
형 용 사	2.9	- 4.9
부 사	2.6	- 9.6
접 속 사	1.1	- 2.7
연 체 사	1.6	± 0
감 동 사	0.1	- 9.3

《표IV-2》 일상 생활어의 품사 분류표

품 사	비 율 %	비 고
명 사	40.9	- 27.1
동 사	24.4	+ 2.0
대 명 사	2.6	+ 1.3
형 용 사	7.8	+ 4.9
부 사	12.2	+ 9.6
접 속 사	3.8	+ 2.7
연 체 사	1.6	± 0
감 동 사	9.4	+ 9.3

위와 같이 뉴스에 있어서의 명사 비율이 일상 생활어의 명사 비율보다 약 27% 정도 높다. 이에 반해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의 비율은 일상 생활어보다 약 10% 정도 낮으며, 감동사의 비율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의 성격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뉴스가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컴팩트한 표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사, 감동사의 사용보다는 명사의 사용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상 생활어는 일상적인 생활속의 대화이므로, 좀 더 현장감 있는 표현을 위해 상황의 설명과 감정의 표출을 도와주는 기능의 부사·형용사·감동사의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뉴스와 일상 생활어의 품사별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IV-1】 NHK뉴스와 일상 생활어의 품사 분류

위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사의 차이가 매우 크며, 대명사·연체사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용사·부사·감동사는 일상 생활어가 NHK뉴스 어휘보다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지만, 명사의 경우처럼 큰 차이는 아니다. 이처럼 뉴스와 일상 생활어의 품사상의 차이는 명사에서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역시 뉴스 어휘가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확실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명사의 사용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감정의 배제를 위해 형용사·부사·감동사의 사용은 자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雜誌 語彙와의 比較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와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음성 언어로서의 뉴스 어휘와 문자 언어로서의 잡지 어휘를 비교해 본다.

우선, 잡지 어휘와 뉴스 어휘의 품사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휘의 사용율순 어휘표를 통해 상위 빈도 어휘의 차이와 뉴스와 잡지의 상위 빈도어가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 比較対照表』³⁹⁾에서 어떠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가를 통해, 기본어휘에서의 두 분야의 차이점과 특징을 찾아낸다.

4.2.1 品詞의 分類에 의한 語彙 比較

잡지의 어휘는 国立国語研究所報告25의 『現代雑誌九十種の用語用字』⁴⁰⁾를 근거로 하였다. 일상 생활어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선행연구의 품사분류에 맞추어 명사·동사·형용사류·감동사류로 나누었으며, 명사에는 명사·대명사·수사를, 형용사류에는 형용사(형용동사 포함)·부사·연체사를, 감동사류에는 감동사·접속사를 포함시켰다. 품사 분류표는 다음의

- 39)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 比較対照表』는 国立国語研究所 日本語教育センター第1研究室에서 일본어 교육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国立国語研究所 日本語教育センター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一次集計紫蓼-2,000語』를 기초로 하여 그외 6種の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語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빈도 1~7까지의 숫자를 이용한다. 비교대상에 따라 이용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서 다시 설명한다. 그리고 比較対照된 7種の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国立国語研究所 日本語教育センター(1978),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一次集計紫蓼-2,000語』, 第一研究室内部資料
 - ② 岡本禹一 (1944), 『日本語基本語彙』, 國際文化振興會
 - ③ 加藤彰彦 (1964), 「日本語教育における基礎学習語」, 『日本語教育』第2号及び第3・4合併号, 日本語教育学会
 - ④ 玉村文郎 (1978), *Practical Japanese-English Dictionary*, 海外技術研究修協會
 - ⑤ 樺島忠夫 外 (1971), 「留學生教育のための基礎用語辭典」 『日本語・日本文化』第2号, 大阪外国大学研究留學生別科
 - ⑥ 文化庁国語科 (1975), 『外国人のための基礎用語辭典』
 - ⑦ J.V.Neustupny (1977), 『A Classified List of Basic Japanese Vocabulary』, Monash University Department of Japanese Melbourne
- 40) 国立国語研究所報告25 (1964), 전계서
 宮島達夫 編 (1982), 전계서 p.74
 ※ 『現代雑誌九十種の用語用字』는 일본의 国立国語研究所에서 랜덤샘플링에 의한 手作業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대상이 된 90種の 雑誌는 昭和31년에 発行된 것으로 A: 評論·芸文, B: 庶民, C: 娛樂·趣味, D: 実用·通俗科学, E: 生活·婦人の 5部門으로 나뉘어 진다.

《표IV-3》, 《표IV-4》에 나타내었으며, 분류표의 비교는 일상 생활어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뉴스와 잡지 어휘와의 차를 ‘±’로 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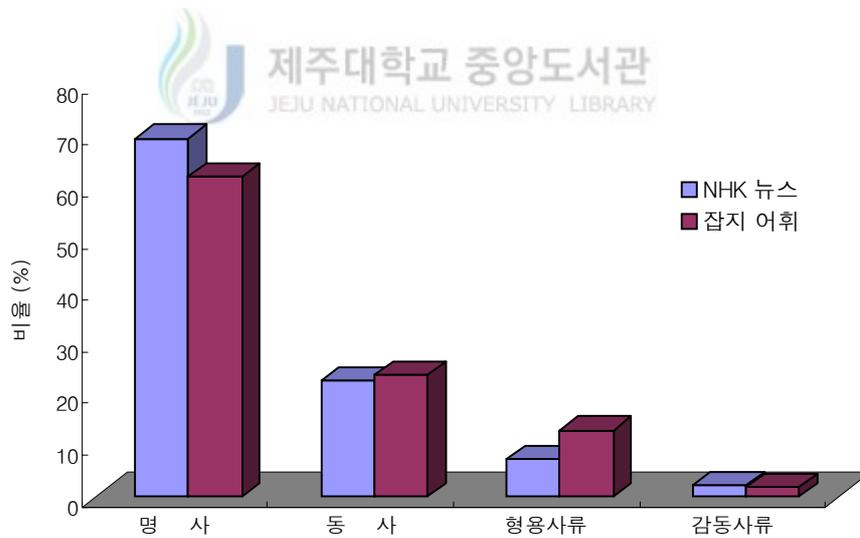
《표IV-3》NHK뉴스의 품사 분류표(2)

품 사	비 율 %	비 고
명 사	69.3	+ 7.5
동 사	22.4	- 1.2
형용사류	7.1	- 5.7
감동사류	2.2	+ 0.4

《표IV-4》잡지 어휘의 품사 분류표

품 사	비 율 %	비 고
명 사	61.8	- 7.5
동 사	23.6	+ 1.2
형용사류	12.8	+ 5.7
감동사류	1.8	- 0.4

위 《표IV-3》, 《표IV-4》와 같이 명사와 형용사류의 비율에서 5~7% 정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통계학에서의 일반적인 오차의 한계 ‘±5’를 생각해보면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동사·감동사류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프 IV-2】 NHK뉴스와 잡지 어휘의 품사 분류

【그래프IV-2】를 보더라도 뉴스 어휘와 잡지 어휘가 품사 비율상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잡지와 뉴스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분야가 물론 잡지의 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잡지 또한 뉴스와 마찬가지로 독자에게 정보의 전달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 차원에서 명사와 동사의 사용이 가장 많고, 형용사류·감동사류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뉴스와 잡지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되는 어휘의 품사상의 차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2.2 上位 頻度語를 통한 語彙 比較

품사 비율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뉴스 어휘와 잡지 어휘에 있어서 상위 빈도를 차지하는 어휘의 차는 어떻게 될까? 상위 25위까지의 사용율순 어휘표를 이용하여 상위 빈도어의 비교로 알아본다. 어휘표는 《표Ⅳ-5》와 《표Ⅳ-6》에 제시하였으며, 어휘표의 비교의 수치는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 比較対照表』에서의 분포로, 7種의 자료에서의 빈출 빈도를 1~7까지의 숫자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1種에서만 출현하는語는 1이며, 7種에서 공통적이면 7이다.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 比較対照表』에서의 수치를 통하여 어느 분야의 어휘가 더 기본어휘⁴¹⁾에 가깝게 분포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Ⅳ-5》와 《표Ⅳ-6》의 뉴스와 잡지 어휘의 상위 빈도어 25위 안의語를 보면, 뉴스 어휘에는 명사 14語·동사 7語·수사 3語·대명사 1語의 분포로 되어 있고, 잡지 어휘는 명사 2語·동사 7語·형용사 2語·수사 6語·대명사 3語·연체사 2語·그 외 접사 3語의 분포를 보인다. 상위 빈도어의

41) 기본어휘는 p.3 각주13) 참조.

품사 분포상의 차이는 뉴스 어휘가 명사·동사 위주임에 반해, 잡지 어휘는 동사·수사·대명사등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앞의 품사 분포상의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상위 빈도어의 품사 분포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표IV-5》NHK뉴스의 사용율순 어휘표

순위	표제어	비율%	비고
1	コト (事)	1.4	7
2	イイ・ウ (言)	1.2	7
3	シ・スル	1.1	6
4	ナリ・ル(成・為)	1.0	7
5	今日	0.7	6
6	日本	0.7	5
7	ノ (事)	0.6	5
8	アリ・ル(有・存)	0.6	6
9	コレ (指)	0.6	6
10	イチ (一)	0.6	4
11	オブチ	0.5	
12	サン (三)	0.5	3
13	自民党	0.5	
14	モノ (物・者)	0.5	7
15	ニ (二)	0.5	2
16	総裁	0.4	
17	オコナウ (行)	0.4	5
18	タメ	0.4	7
19	中	0.3	6
20	市場	0.3	2
21	ミル (見)	0.3	7
22	警察	0.3	5
23	選挙	0.3	6
24	経済	0.3	6
25	ヨル (由)	0.3	4

《표IV-6》잡지의 사용율순 어휘표

순위	표제어	비율%	비고
1	シ・スル	3.0	6
2	イル (居)	1.7	6
3	イイ・ウ (言)	1.4	7
4	イチ (一)	1.1	4
5	コト (事)	1.1	7
6	ナリ・ル(成・為)	0.9	7
7	レル、ラレル (被)	0.8	5
8	ニ (二)	0.7	2
9	アリ・ル(有・存)	0.7	7
10	ソノ (指・感)	0.7	7
11	モノ (物・者)	0.7	7
12	ヨウ (様)	0.6	6
13	ジュウ (十)	0.6	3
14	サン (三)	0.6	3
15	コの (指・感)	0.5	7
16	ゴ (五)	0.5	3
17	ソレ (指)	0.5	7
18	オ(接頭)(御・於)	0.5	5
19	ナイ (無)	0.4	5
20	キ・クル	0.4	7
21	ヨイ(善・良・好・佳)	0.4	7
22	ニジュウ (二十)	0.4	3
23	コレ (指)	0.4	7
24	ワタクシ (私)	0.4	6
25	サン (接尾) (様)	0.4	6

그리고, 기본 어휘표와의 비교에 의한 수치는 뉴스 어휘가 평균 4.8, 잡지 어휘가 평균 5.6으로 상위 빈도어에 포함되는 語는 잡지 어휘가 뉴스 어휘보다 기본어휘의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뉴스의 상위 빈도어 중에 オブチ・自民党・総裁등의 뉴스 내용에 따라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語에 의한 것으로 만약, 이 3語를 제외한 수치라면 평균 5.4로 잡지 어휘와 거의 같은 수치가 나온다.

상위 빈도 25위 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語를 찾아보면, ‘(事), シ・スル, アリ・ル(有・存), ナリ・ル(成・為), イチ(一), ニ(二), サン(三), コレ(指)’이며 뉴스 어휘에서만 보이는 語는, ‘今日, 日本, オブチ, 自民党, 総裁, 市場, 警察, 選挙, 経済, 行う, よる’이다. 잡지 어휘로는, ‘ナイ(無), ヨイ(善・良・好・佳), ソの(指・感), ソレ(指), オ(接頭)(御・於), ワタクシ(私), サン(接尾)(様), イル(居)’ 등이 보인다. 특히, 動詞는 ‘いう・する・なる・ある’ 등의 기본적인 동사는 어느 경우에든 많이 사용되지만, ‘行う・よる’는 뉴스의 경우에만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自民党の総裁の選挙は今日投票の**行われ**, オブチ外務大臣が有効投票の過半数を獲得し、第18代の自民党総裁に就任す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7월24일)
- ② 厚生省などにより**ますと**, このうち青酸カリウムは大学などの研究室で薬品を分析する際の試薬としてごく少ない量しか使われていません。(7월27일)

하루의 사건 등의 보도를 위해 위 예문처럼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NHK뉴스 어휘에는 ‘ない・よい’ 등의 형용사가 상위 빈도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뉴스 어휘는 사건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감정의 표현 등을 나타내는 語는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잡지 어휘에서 상위 빈도어에 속하는 연체사 その・この, 대명사 私, 접미・접두적인 さん(様)・お(御)도 상위 빈도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オブチ・今日・日本・自民党・総裁・

市場·警察·選舉' 등의 語는 뉴스 어휘에만 보이는데, 이들 語는 모두 뉴스에서 중요 테마로 다루는 정치·경제·사건·사고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나온 語이며, 뉴스 내용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는 語이기도 하다.



V. KBS와 NHK뉴스 語彙의 比較 考察

前述에서와 같이 뉴스의 어휘는 일상 생활어, 잡지 어휘와는 품사 분포 및 사용 어휘면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뉴스 語彙이지만 韓國과 日本이라는 차이점을 가진 뉴스 어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본 장에서는 Sampling된 KBS 뉴스와 NHK뉴스의 어휘를 각 品詞別, 語數別, 語種別로 나누어 각 부분별로 비교·분석하여, 양국 뉴스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해 본다.

5.1 品詞 分類에 의한 比較

품사 분류에 의한 비교는 명사·동사·형용사·부사·대명사·수사·접속사·관형사(연체사)·감탄사(감동사)의 9부류로 나누었다. 각 품사별 분류표와 사용율순 어휘표를 작성하여 KBS뉴스 어휘의 특징, NHK뉴스 어휘의 특징, KBS뉴스와 NHK뉴스 어휘의 비교 순으로 분석하였으며⁴²⁾, 品詞에 따라서 KBS뉴스와 NHK뉴스 어휘의 비교로만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⁴³⁾. 그리고, 齟가 적어 어휘표가 작성되지 않은 접속사·관형사·감탄사는 빈도수에 의한 비교만 하였다. 그리고, 양국 상위 빈도어의 기본 어휘⁴⁴⁾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KBS뉴스 어휘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

42) 명사·동사·형용사의 경우는 이러한 순서로 분석하였으나, 분포 비율이 낮은 부사 이후의 품사에 대해서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43) 사용 비율이 낮은 부사·대명사·수사·접속사·관형사(연체사)·감탄사(감동사)의 비교

44) 기본어휘는 각주 13) 참조.

기본어휘를 일상 생활 기본어휘로 볼 때, 교육에 필요한 어휘를 교육용 기본어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 생활 기본어휘를 가르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어휘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인 교육에서는 교육용 기본 어휘가 일상 생활의 기본어휘가 될 것이다(이충우, 1994:34).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일상 생활의 기본어휘와 교육용 기본어휘를 동일

연구』 45), 『중학교 교과서 어휘』 46)를 NHK뉴스는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 比較対照表』를 자료로 하여 비교하였는데, 선행 연구가 된 양국의 기본 어휘표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論者が 정한 기준⁴⁷⁾에 따라 상위 빈도어의 사용율순 어휘표의 비교에 수치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양국 뉴스의 상위 빈도어의 기본어휘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5.1.1 名詞

명사의 전체적인 분포상황은 다음의 《표 V-1》, 《표 V-2》에 제시하였으며, 명사 구분은 보통·고유·형식명사로 나누었고, 고유명사는 다시 인명, 지명, 인·지외로 세분화하였다.

《표 V-1》 KBS뉴스의 명사 분류표

구분 \ 일자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 통	1,900	82.6	1,574	82.9	1,597	81.8	2,031	84.9	1,776	83.1
고 유	318	13.8	262	13.8	313	16.0	297	12.4	298	14.0
인 명	101	4.4	113	6.0	89	4.6	114	4.8	104	4.9
지 명	87	3.8	49	2.6	88	4.5	80	3.3	76	3.6
인·지외	130	5.7	100	5.3	136	7.0	103	4.3	117	5.5
형 식	82	3.6	62	3.3	43	2.2	64	2.7	63	2.9
합 계	2,300		1,898		1,953		2,392		2,136	

하계 보고 ‘기본어휘’의 비교 자료로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용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다.

45) 이충우 (1994), 『한국어 교육용어휘 연구』, 국학자료원

46) 국어연구소 (1988), 『중학교 교과서 어휘』

47) 자료가 된 기본어휘표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의 비교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정한다.

KBS뉴스 : 『한국어 교육용어휘 연구』와 『중학교 교과서 어휘』의 빈출 빈도에 따라

1단계 : 1회~100회, 2단계 : 101회~200회

3단계 : 201회~300회, 4단계 : 301회 이상.

NHK뉴스 :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 比較対照表』의 7종 공통 출현수에 따라

1단계 : 1~2종 공통, 2단계 : 3~4종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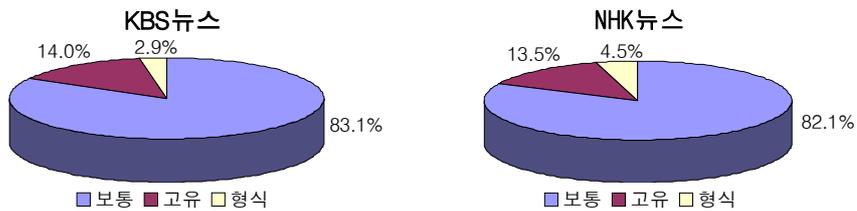
3단계 : 5~6종 공통, 4단계 : 7종 공통.

《표 V-2》 NHK뉴스의 명사 분류표

일자 구분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 통	1,983	80.7	2,164	82.9	1,817	83.5	1,772	81.2	1,934	82.1
고 유	332	13.5	363	13.9	257	11.8	320	14.7	318	13.5
인 명	130	5.3	72	2.8	75	3.4	72	3.3	87	3.7
지 명	112	4.6	173	6.6	103	4.7	130	6.0	130	5.5
인·지외	90	3.7	118	4.5	79	3.6	118	5.4	101	4.3
형 식	143	5.8	84	3.2	101	4.6	90	4.1	105	4.5
합 계	2,458		2,611		2,175		2,182		2,357	

《표 V-1》, 《표 V-2》와 같이, KBS뉴스의 보통명사의 비율이 83.1%, NHK뉴스의 보통명사의 비율 82.1%로 거의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두 뉴스 어휘 명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국 뉴스에서 사용되는 명사의 종류별 비율도, 고유명사의 경우 KBS가 14.0%, NHK가 13.5%로 거의 비슷하며, 형식명사인 경우에는 NHK뉴스에서의 비율이 4.5%로 KBS뉴스의 2.9%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이것 역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분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위의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은데, 수치상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프도 거의 비슷한 모양임을 알 수 있다.



【그래프 V-1】 KBS뉴스와 NHK뉴스의 명사 분류

5.1.1.1 KBS뉴스의 名詞 分布

KBS뉴스 명사의 전체적인 사용율에 의한 분포는 다음의 《표 V-3》⁴⁸⁾과 같은데, 일자별 분포에 의한 전체적인 사용율 순으로 순위 15까지 나타낸 것이다.

《표 V-3》 KBS뉴스의 명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순위	표제어	7/24	7/27	8/3	11/9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것	41	31	29	42	36	1.7
2	오늘	23	28	46	23	30	1.4
3	KBS뉴스	28	26	27	28	27	1.3
4	기자	22	24	25	29	25	1.2
5	등	30	25	20	18	23	1.1
6	수	27	24	18	15	21	1.0
7	때문	11	10	12	21	14	0.7
8	경찰	17	13		11	10	0.5
9	은행	20		11	7	10	0.5
10	보도	12	10	11	5	10	0.5
11	사람	19	3	5	11	10	0.5
12	이번	5	18	4	7	9	0.4
13	경우	13	6	3	10	8	0.4
14	정부	7	11	3	7	7	0.3
15	문제	16	4	3	5	7	0.3
	합계					2,136	

《표 V-3》에서처럼 ‘것·오늘·KBS뉴스·기자·등·수·때문’의 전체 7위까지의 語는 날짜별로 고르게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은 ‘~ 것으로 ~합니다.’라는 식의 文章의 사용이 많은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8) 전체 순위 15위 이하 : 검찰, 국회, 대출, 병원, 실종자, 회사, 택시, 처음, 주민, 사실, 돈, 불법, 고객, 예금, 사고, 결과, 수사, 대통령, 국내, 당, 시신

- ① 여기서 논의된 부채탕감 규모는 4조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24일)
- ② 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의 군 복무 실태를 조사해보니 4명 가운데 1명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월3일)

‘오늘’은 그날의 사건 보도이기 때문에, ‘오늘은~’라는 형식이 많이 사용되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KBS뉴스’와 ‘기자’는 특별한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뉴스 ○○○입니다.’란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등·수·때문’의 형식명사의 사용도 빈번하여 모두 상위 빈도어에 포함되고, ‘경찰·은행·정부·보도·문제’등 정치·경제·사건·사고의 뉴스 내용과 관련이 깊은 단어가 상위 빈도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럼, 위의 전체 상위어를 다음의 일자별 상위 빈도어 《표V-4》49)와 비교해 본다. 전체 상위 빈도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자별 상위어에는 속하는 語가 있는데, 7월 24일 폭주족들과 오토바이 무보험 문제를 다룬 테마로 인한 ‘오토바이’가, 7월 27일에는 순위 8위를 차지한 골프선수 ‘박세리’가, 8월 3일에는 지리산 실종 사건의 보도로 ‘실종자·지리산·승용차’와 인도 위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보행자들의 안전 위협의 현실 보도로 ‘인도’가, 11월 9일에는 택시업계 문제를 다룬 ‘택시’와 병원에서의 방사능 동위원소 도난 사건으로 ‘병원’이 눈에 띈다.

49) 일자별 순위 15위 이하

- 7월24일 : 예약, 일본, 때문, 은행, 예정, 불법, 판결, 방법, 기업, 결과, 단속, 정부, 사실
- 7월27일 : 보험금, 우유, 자녀, 세계, 수사, 영수증, 불, 국내, 돈, 회사, 쓰레기, 정도
- 8월3일 : 시신, 바다, 보도, 금리, 은행, 예금, 헬기, 의원, 작업, 투표, 여야, 돈, 고객
- 11월9일 : 청문회, 물질, 방사선, 대출, 문제, 검찰, 은행, 회담, 사기단, 협상, 아파트

《표 V-4》 KBS뉴스의 명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것	41	1.8
2	등	30	1.3
3	KBS뉴스	28	1.2
4	수	27	1.2
5	오늘	23	1.0
6	기자	22	1.0
7	은행	20	0.9
8	사람	19	0.8
9	경찰	17	0.7
10	문제	16	0.7
11	오토바이	15	0.7
12	대통령	14	0.6
13	경우	13	0.5
14	보도	12	0.5
14	처음	12	0.5
	합계	2,300	

【 7월24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것	31	1.6
2	오늘	28	1.5
3	KBS뉴스	26	1.4
4	등	25	1.3
5	기자	24	1.3
6	수	24	1.3
7	이번	18	1.0
8	박세리	18	1.0
9	경찰	13	0.7
10	가스	12	0.6
10	세계	12	0.6
12	정부	11	0.6
13	때문	10	0.5
13	당	10	0.5
13	보도	10	0.5
	합계	1,898	

【 7월27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오늘	46	2.4
2	것	29	1.5
3	KBS뉴스	27	1.4
4	기자	25	1.3
4	수색	25	1.3
6	실종자	22	1.1
7	등	20	1.0
8	수	18	0.9
9	국회	17	0.9
10	지리산	16	0.8
11	인도	15	0.8
12	승용차	12	0.6
12	대출	12	0.6
12	검찰	12	0.6
12	때문	12	0.6
	합계	1,953	

【 8월3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것	42	1.8
2	기자	29	1.2
3	KBS뉴스	28	1.2
4	오늘	23	1.0
5	때문	21	0.9
5	택시	21	0.9
7	등	18	0.8
8	수	15	0.6
9	채권	14	0.6
9	병원	14	0.6
11	경찰	11	0.5
11	사람	11	0.5
13	경우	10	0.4
13	여야	10	0.4
13	가계대출	10	0.4
	합계	2,392	

【 11월9일 】

이처럼, 명사의 상위 빈도를 보면, ‘것·오늘·등·수’등 일자에 상관없이 고루 쓰이는 語가 있는 반면, 내용에 따라 변동되는 일자별에만 분포하는 語로 구분이 된다. 또한, 이러한 일자별에만 포함되는 語는 모두 해당

뉴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테마들에서 많이 사용된 語로 테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날의 뉴스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5.1.1.2 NHK뉴스의 名詞 分布

NHK뉴스의 명사 분포는 《표V-5》⁵⁰⁾, 《표V-6》과 같다.

《표V-5》NHK뉴스의 명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순위	표제어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こと	70	46	50	46	53	2.2
2	今日	17	28	27	26	25	1.1
2	日本	39	20	14	25	25	1.1
4	の	31	26	21	17	24	1.0
5	オプチ	63		10	7	20	0.8
6	自民党	52	6		7	18	0.8
7	もの	22	16	16	15	17	0.7
8	総裁	61				15	0.6
9	ため	17	11	17	10	14	0.6
10	市場	20	15	10	4	12	0.5
11	中	7	16	18	7	12	0.5
12	選挙	29	12	3	3	12	0.5
13	警察	2	19	10	14	11	0.5
14	経済	17	9	15	1	11	0.5
15	事件		14	25		10	0.4
	합 계					2,357	

KBS뉴스와 마찬가지로 전체 15위 안의 語가 일자별 상위어에 모두 포함된 것은 ‘こと・今日・日本・の・中’이다. 전체 5순위인 ‘オプチ’는 7월

50) 전체 순위 15위 이하 : カレー, 東京, 政府, 今回, 政策, 中心, 役人人事, なべ, 今後, 毒物, 選手, 国民, 問題, 内閣, 対策, 調査, 中国, アメリカ, 野党, 政權

27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자에 포함되었다. 특히 7월 24일 빈도 63을 나타내는 것은 그날이 自民党 総裁 選挙日이며 당선되었기 때문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유로 전체 빈도의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7월 27일에 1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전체 8위인 ‘総裁’는 7월 24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이는 7월 24일의 自民党 総裁 選挙 뉴스로 인해 ‘総裁’가 반복 사용된 것이며, 7월 24일 이후로는 ‘オブチ 総裁’대신 ‘総理’, ‘内閣’이란 단어의 사용으로 ‘総裁’의 사용을 볼 수 없었다.

전체 상위어를 다음의 《표 V-6》 51) 일자별 상위어와 비교해 보면, 전체 순위 1위인 ‘こと’가 일자별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알 수 있다. 모든 날짜에서 일자별 1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뉴스 보도시 ‘～ ことです.’, ‘～ことになります.’라는 문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며, 뉴스에서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 ① オブチ新総裁は党の役人人事などの検討に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7월24일)
- ② ジュンソン宇宙センターで宇宙で行った睡眠実験と同じ実験を続けてデータを取ったり宇宙で行った実験の様子を担当の研究者に伝えたりすることです。(11월9일)

그러나, KBS뉴스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일자별 상위어에만 포함되는語를 찾을 수 있는데, 특히 7월 24일의 自民党 総裁 選挙 보도로 ‘オブチ・総裁’, 7월 27일의 毒物事件으로 ‘カレー・青酸加功物’이, 8월 3일도 마찬가지로 ‘カレー・なべ’가, 11월 9일은 銃을 사용한 犯罪의 予防을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Smart gun’의 보도로 ‘スマートガン・アメリカ・銃’ 등이다. 이 語들은

51) 일자별 순위 15위 이하
 7월24일 : 政策, 対策, 党, 騒音, ロジア, 今回, 今後, 政権, 投票, 景気, 過半数, 結果
 7월27일 : 選挙, なべ, 中心, 地方, 開発, 鶏, 政府, 捜査, 選手, サルモネラ菌, 証券, 拡大
 8월3일 : 市場, 捜査, さんざ踊り, 強盗, ひ素, 毒物, 内閣, 政権, 改革, 基準, 自民党, 販売
 11월9일 : 影響, 違法, 今回, 東京, 野党, 問題, 中, 人, オブチ, 協議, 自民党, 環境ホルモン

모두 당일 뉴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뉴스 내용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 V-6》 NHK뉴스의 명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こと	70	2.8
2	オブチ	63	2.6
3	総裁	61	2.5
4	自民党	52	2.1
5	日本	39	1.6
6	の	31	1.3
7	選挙	29	1.2
8	役人人事	26	0.9
9	もの	22	0.9
10	市場	20	0.8
11	今日	17	0.7
11	ため	17	0.7
11	経済	17	0.7
14	国民	14	0.6
15	人事	13	0.5
	합계	2,458	

【 7월24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こと	46	1.8
2	今日	28	1.1
3	の	26	1.0
4	カレー	24	0.9
5	日本	20	0.8
6	警察	19	0.7
7	介護	17	0.7
8	中	16	0.6
8	もの	16	0.6
10	市場	15	0.6
11	青酸加工物	14	0.5
11	卵	14	0.5
11	事件	14	0.5
14	毒物	12	0.5
14	今回	12	0.5
	합계	2,611	

【 7월27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こと	50	2.3
2	今日	27	1.2
3	事件	25	1.1
4	の	21	1.0
5	中	18	0.8
6	ため	17	0.8
7	東京	16	0.7
7	もの	16	0.7
7	選手	16	0.7
10	経済	15	0.7
11	カレー	14	0.6
11	日本	14	0.6
13	なべ	13	0.6
14	警察	10	0.5
14	オブチ	10	0.5
	합계	2,182	

【 8월3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こと	46	2.1
2	今日	26	1.2
3	日本	25	1.1
4	の	17	0.8
5	もの	15	0.7
6	調査	14	0.6
6	銃	14	0.6
6	警察	14	0.6
9	政府	12	0.5
10	スマートガン	10	0.5
10	アメリカ	10	0.5
10	配当	10	0.5
10	ため	10	0.5
10	見込み	10	0.5
15	政策	9	0.4
	합계	2,182	

【 11월9일 】

5.1.1.3 KBS뉴스와 NHK뉴스의 使用率順 名詞 比較

KBS와 NHK뉴스의 명사 전체 상위 빈도어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V-7》과 같으며, 표의 비교는 기본어휘표에서의 수치로 1~4까지의 숫자를 이용하여 나타냈다⁵²⁾.

《표V-7》 KBS와 NHK뉴스의 명사 사용율순 어휘표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비고
1	것	36	1.7	4
2	오늘	30	1.4	2
3	KBS뉴스	27	1.3	
4	기자	25	1.2	1
5	등	23	1.1	3
6	수	21	1.0	1
7	때문	14	0.7	3
8	경찰	10	0.5	1
9	은행	10	0.5	1
10	보도	10	0.5	1
11	사람	10	0.5	4
12	이번	9	0.4	1
13	경우	8	0.4	2
14	정부	7	0.3	2
15	문제	7	0.3	
	합 계	2,136		26

【 KBS뉴스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비고
1	こと	53	2.2	4
2	今日	25	1.1	3
3	日本	25	1.1	3
4	の	24	1.0	3
5	オプチ	20	0.8	
6	自民党	18	0.8	
7	もの	17	0.7	4
8	総裁	15	0.6	
9	ため	14	0.6	4
10	市場	12	0.5	1
11	中	12	0.5	4
12	選挙	12	0.5	3
13	警察	11	0.5	3
14	経済	11	0.5	3
15	事件	10	0.4	3
	합 계	2,357		38

【 NHK뉴스 】

우선, 상위 빈도어의 기본어휘의 분포를 보면 KBS의 ‘KBS뉴스·국회’와 NHK의 ‘オプチ·自民党·総裁’ 등의 語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어휘에 속하는 語이다. 명사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위의 齷처럼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본어휘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고’의 수치에 의하면 KBS뉴스가 26, NHK뉴스가 38로 NHK뉴스의 명사가 KBS뉴스보다 기본어휘의 사용이 많다고 할 수 있다.

52) 각주 47) 참조.

어휘 분포를 보면, 순위 1·2위인 語가 ‘것·こと’, ‘오늘·今日’로 일치됨을 보인다. 앞의 KBS와 NHK의 명사 분포에서 다루었듯이 양국의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것으로 ~합니다.’, ‘~ことになります。’, ‘~ ことです。’, ‘오늘은 ~’, ‘今日は~’라는 형태의 文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警察’도 양쪽 뉴스에서 모두 상위어에 포함되었는데, 사건·사고의 보도를 할 때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상위 빈도어의 분포에 있어서의 차이는, 물론 위의 齟처럼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KBS뉴스가 ‘때문, 경찰, 사람, 문제, 이번, 국회’등 사건·사고·정치 관련어가 대부분 임에 반해, NHK뉴스는 7월 24일의 総裁 選挙의 보도로 ‘自民党, 総裁, 選挙’ 등의 語가 있지만, ‘市場, 經濟’ 등의 경제 관련어도 포함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名詞를 분류할 때 KBS뉴스에서 2.9%, NHK뉴스에서 4.5%를 차지한 형식명사 ‘등·수·때문’, ‘の·もの·ため’ 등의 語가 상위 빈도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KBS뉴스 어휘의 상위어에 포함된 습관적으로 사건을 보도 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KBS뉴스·기자’라는 語 사용에서의 차를 발견하게 되는데,

① 계속해서 홍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27일)

■⁵³⁾ 続いて気候情報の田口**さん**です。 (7월27일)

위 예문처럼 NHK뉴스에서는 기자를 칭할 때 ‘○○○ 기자’ 보다는 ‘○○ **さん**’이란 형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KBS뉴스처럼 ‘기자’가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 NHK뉴스의 상위어에 속한, ‘オブチ, 総裁, 自民党’도 7월 24일 自民党 総裁 選挙라는 행사가 있어서 반복 사용되어 높은 순위를

53) 양국 뉴스에서의 표현 차이에 따른 齟를 제시할 때는 ①·**■**, ②·**■** 와 같은 형식으로 비교하였다.

차지하였지만, 한국에서는 ‘국민회의 총재 김 대 중’이란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NHK뉴스에서도 7월 24일 이후 부터는 ‘オブチ 総裁’보다는 ‘オブチ 総理’, ‘オブチ 内閣’으로 사용되었다. 대통령을 칭할 때도 한국에서는 ‘○○○ 대통령’이라고 꼭 지위를 명시하지만, 일본에서 총리를 칭할 때는 위의 예처럼 ‘○○○ 総理’라고도 하지만 ‘○○ さん’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5.1.2 動詞

다음의 《표 V-8》과 같이 동사 분포의 빈도는 KBS뉴스가 829語, NHK뉴스가 864語로 양국의 뉴스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別個語數 또한 KBS뉴스가 287語, NHK뉴스가 270語로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동사의 구분은 활용형별로 따로 하지 않고 KBS뉴스는 명사+하다·되다 등의 語를, NHK뉴스는 명사+する·できる 등의 語만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경우의 명사는 거의 한자어로 이루어졌다. 분류표는 《표 V-9》⁵⁴⁾와 같다.

《표 V-8》 KBS뉴스와 NHK뉴스의 동사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합 계	796	970	785	763	829
	별개어수	311	291	273	271	287
NHK	합 계	947	899	788	822	864
	별개어수	227	306	271	275	270

54) 명사+하다·する 동사는 혼종어 분류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빈도만 알아보고 麟의 제시는 생략한다.

《표 V-9》 명사(한자어)+하다·する의 동사 구분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비율%
KBS	명사+하다·되다	272	291	226	257	262	31.6
	합 계	796	970	785	763	829	
NHK	명사+する	127	226	193	201	187	8.6
	명사+できる	4	5	5	8	6	0.3
	합 계	947	899	788	822	863	

《표 V-9》와 같이 KBS뉴스 어휘의 동사 중 명사+하다·되다의 비율이 31.6%로 NHK뉴스의 명사+する·できる의 비율 11.9%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난다.

5.1.2.1 KBS뉴스의 動詞 分布

KBS뉴스의 동사 전체 상위 빈도어 15위까지의 분포와 일자별 상위어의 분포는 다음의 《표 V-10》⁵⁵⁾, 《표 V-11》에 제시하였다. 두 표의 비교를 통해 KBS뉴스 동사의 특징을 알아본다.

우선, 전체 상위 빈도어의 순위 8위까지의 ‘받다, 하다, 오다, 되다, 대하다, 취재하다, 보다, 발견하다’는 거의 모든 일자에서 골고루 상위 빈도어에 포함되지만, 전체 1위인 ‘받다’는 11월 9일에, ‘보다, 발견하다’는 7월 24일에서 빈도가 낮으며, 뉴스에서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판결의 주인공은 제일은행 소액주주 61명으로 오늘 무려 4백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7월24일)

55) 전체 순위 15위 이하 : 찾다, 열다, 보도하다, 드러나다, 적발하다, 들어가다, 관련하다, 내리다, 시작하다, 개발하다, 조사하다, 소환하다, 전하다, 기대하다, 설치하다, 선출하다, 갖추다, 확대하다, 늘다, 요구하다, 알다

- ② 도난방지 장치나 미끄럼방지 브레이크 달면 할인을 받도록 했지만
보험사 할인이 정해지지 않아 가입자들은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3일)

《표 V-10》 KBS뉴스의 동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순위	종 류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받다	28	21	14	3	17	2.1
2	하다	17	15	19	11	16	1.9
3	오다	17	16	9	14	14	1.7
4	되다	8	23	16	7	14	1.7
5	대하다	21	8	8	9	12	1.4
6	취재하다	12	14	9	7	11	1.3
7	보다	3	14	13	9	10	1.2
8	밝히다	5	7	11	12	9	1.1
8	발견하다	3	11	11	10	9	1.1
10	내다	10	2	10	11	8	1.0
11	확인하다	3	10	7	8	7	0.8
12	실시하다	4	5	12	4	6	0.7
13	계속하다	3	4	9	7	6	0.7
13	구속하다	9	7	3	4	6	0.7
15	가다	8	4	6	4	6	0.7
	합 계	796	970	785	763	829	

그리고, 명사에서의 ‘KBS뉴스·기자’처럼 동사에서는 ‘○○○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란 문장이 각 테마별로 자주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
‘취재하다’도 모든 일자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었다.

- ① 정부가 이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자유화 했지만은 업체들의 눈치보기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유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3일)

〈표 V-11〉 KBS뉴스의 동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받다	28	3.5
2	대하다	21	2.6
3	오다	17	2.1
3	하다	17	2.1
5	취재하다	12	1.5
6	내다	10	1.3
7	구속하다	9	1.1
8	가다	8	1.0
8	요구하다	8	1.0
8	되다	8	1.0
8	검토하다	8	1.0
12	들어가다	7	0.9
12	드러나다	7	0.9
12	포함하다	7	0.9
12	제출하다	7	0.9
	합계	796	

【 7월24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되다	23	2.4
2	받다	21	2.2
3	오다	16	1.6
4	하다	15	1.5
5	취재하다	14	1.4
5	보다	14	1.4
7	열다	12	1.2
8	발견하다	11	1.1
9	확인하다	10	1.0
10	주다	8	0.8
10	기대하다	8	0.8
10	대하다	8	0.8
13	밝히다	7	0.7
13	구속하다	7	0.7
13	적발하다	7	0.7
	합계	970	

【 7월27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하다	19	2.4
2	되다	16	2.0
3	받다	14	1.8
4	보다	13	1.7
5	내리다	12	1.5
5	실시하다	12	1.5
7	밝히다	11	1.4
7	발견하다	11	1.4
9	내다	10	1.3
9	찾다	10	1.3
11	취재하다	9	1.1
11	계속하다	9	1.1
11	오다	9	1.1
14	대하다	8	1.0
15	소환하다	7	0.9
	합계	785	

【 8월3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오다	14	1.8
2	밝히다	12	1.6
3	내다	11	1.4
3	하다	11	1.4
5	숨지다	10	1.3
5	발견하다	10	1.3
5	보도하다	10	1.3
8	보다	9	1.2
8	대하다	9	1.2
10	확인하다	8	1.0
10	찾다	8	1.0
12	취재하다	7	0.9
12	제기하다	7	0.9
12	되다	7	0.9
12	계속하다	7	0.9
	합계	763	

【 11월9일 】

그리고, 위의 일자별 상위어⁵⁶⁾와의 비교는, 전체 상위어에 속하는 語가

56) 일자별 순위 15위 이하

7월24일 : 확정하다, 개조하다, 밝히다, 알려지다, 적발하다, 접근하다, 내려가다

대부분 일자별 상위어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11월 9일의 5위인 ‘보도하다’는 전체 상위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다, 오다, 받다, 되다’ 등의 語가 일자별 상위어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 語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전체 상위 빈도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자별 상위어에 포함되는 語로는 ‘검토하다, 요구하다’(7월24일), ‘기대하다, 개발하다’(7월27일), ‘소환하다’(8월 3일), ‘제기하다’(11월9일) 등이다. 이 語들은 모두 그날의 뉴스에서 중점 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의 語이기도 하여 해당 뉴스 테마의 성격을 보여주는 語가 된다. 물론, 이 語는 뉴스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순위의 변동이 일어 날 수 있기도 하다.

5.1.2.2 NHK뉴스의 動詞 分布

NHK뉴스의 動詞는 다음의 《표V-12》⁵⁷⁾, 《표V-13》과 같으며, 뉴스 에서의 동사의 특징을 알아본다.

《표V-12》에서와 같이 전체 순위 6위까지의 ‘いう, する, なる, ある, 行う, 見る’ 등의 語는 모든 일자에 고루 분포된다.

- ① 住民が口にして中毒症状を訴えたのは三つのうちのなべのカレーです。二つの 毒物がいつどのようにして混入されたのか科学警察研究所では、更に詳しい鑑定を

소환하다, 실시하다, 살다, 압수하다, 거부하다, 예상하다, 계속하다, 우려하다
 7월27일 : 개발하다, 시작하다, 넘다, 모시다, 서두르다, 실시하다, 설치하다, 수매하다
 계속하다, 이용하다, 생산하다, 제공하다, 가다, 포함하다, 결정하다, 돕다
 8월3일 : 말하다, 떠내려가다, 가다, 선출하다, 시작하다, 잇따르다, 관련하다, 전하다
 흘러들다, 참가하다, 조사하다, 숨지다, 늘다, 얻다, 열다, 보도하다, 들어가다
 11월9일 : 주장하다, 내다, 드러나다, 달아내다, 도난당하다, 열다, 인정하다, 조사하다
 늘다, 구속하다, 무너지다, 갖추다, 들어가다, 보관하다, 무산되다, 출자하다
 57) 전체 순위 15위 이하 : 入る, 決まる, 支持する, 続く, 開く, 作る, 求める, お伝えする, 含む
 混入する, まとめる, 値下がる, 置く, 伝える, 答える, 逮捕する, 越える

急いでします。(8월3일)

- ② 青酸加工物が今回の事件でどのようなルートを通じて使われたのかという点の解明も
今後の捜査の大きな焦点の一つになります。(7월27일)

《표 V-12》NHK뉴스의 동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순위	종 류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いう	105	26	32	18	45	5.2
2	する	34	46	32	53	41	4.7
3	なる	48	45	23	32	37	4.3
4	ある	23	23	17	29	23	2.7
5	行う	17	15	12	14	15	1.7
6	見る	12	16	8	8	11	1.3
7	よる	3	16	12	12	11	1.3
8	示す	21	10	3	7	9	1.0
9	行く	18	2	7	13	10	1.2
10	対する	14	9	6	6	9	1.0
11	進む	8	12	6	8	8	0.9
12	述べる	10	7	2	11	7	0.8
13	思う	20	9	9		7	0.8
14	受ける	12	7	7	1	7	0.8
15	始まる	4	10	6	6	7	0.8
	합 계	947	899	788	822	864	

그리고, 전체 1위인 ‘いう’는 특히 7월 24일에 다른 일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7월24일의 自民党 総裁 選挙를 보도할 때, 総裁候補와 각 党의 반응 등을 듣는 테마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① 自民党のオブチ新総裁は今日夕方記者会見し、党役員や閣僚人事について適材適所
や党内融和を基本に挙党体制を確立して行き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7월24일)

그 외 ‘よる, 行く, 対する, 示す, 進む, 始まる’ 등도 전체 상위어에 포함

되는 語이다.

그럼, 위의 전체 빈도 상위어를 다음의 《표V-13》일자별 상위어와 비교해 본다.

《표V-13》NHK뉴스의 동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いう	105	11.1
2	なる	48	5.1
3	する	34	3.6
4	ある	23	2.4
5	示す	21	2.2
6	思う	20	2.1
7	行く	18	1.9
8	行う	17	1.8
9	対する	14	1.5
10	受ける	12	1.3
10	見る	12	1.3
12	入る	11	1.2
13	やる	10	1.1
13	述べる	10	1.1
13	決まる	10	1.1
	합계	947	

【 7월24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する	46	5.1
2	なる	45	5.0
3	いう	26	2.9
4	ある	23	2.6
5	見る	16	1.8
5	よる	16	1.8
7	行う	15	1.7
8	進む	12	1.3
9	混入する	10	1.1
9	示す	10	1.1
9	始まる	10	1.1
12	対する	9	1.0
13	受ける	8	0.9
13	置く	8	0.9
13	開く	8	0.9
	합계	899	

【 7월27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いう	32	4.1
1	する	32	4.1
3	なる	23	2.9
4	ある	17	2.2
5	よる	12	1.5
5	行う	12	1.5
7	値下がる	11	1.4
7	支持する	11	1.4
9	開く	10	1.3
10	思う	9	1.1
10	検出する	9	1.1
12	見る	8	1.0
12	お伝えする	8	1.0
14	行く	7	0.9
14	上がる	7	0.9
	합계	788	

【 8월3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する	53	6.4
2	なる	32	3.9
3	ある	29	3.5
4	いう	18	2.2
5	行う	14	1.7
6	行く	13	1.6
7	よる	12	1.5
8	支持する	11	1.3
8	述べる	11	1.3
10	使う	9	1.1
11	進む	8	1.0
11	答える	8	1.0
11	見る	8	1.0
11	逮捕する	8	1.0
15	開く	7	0.9
	합계	822	

【 11월9일 】

일자별 상위어⁵⁸⁾에는 포함되지만 전체 상위어에 포함되지 않는 語도 있는데, 7월 24일의 ‘決まる’, 7월 27일 毒物事件에서의 ‘混入する, 置く’, 8월 3일의 ‘値上がる, 開く, お伝えする, 上がる’는 毒物事件과 強盜傷害事件의 보도에서, 11월 9일에는 銃을 사용한 범죄 방지를 위한 신제품 개발 보도와 NHK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使う, 答える’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語는 당일 뉴스의 내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또한, 뉴스 내용의 특성도 나타내준다.

5.1.2.3 KBS뉴스와 NHK뉴스의 使用率順 動詞 比較

상위 빈도 15위까지의 語를 이용해 양국 뉴스 어휘의 동사의 특징을 알아본다. 어휘표는 다음의 《표 V-14》에 제시하였으며, 앞 항목과 같이 비교는 기본어휘표에서의 수치이다.

우선 KBS와 NHK뉴스 동사의 상위 빈도어를 기본어휘의 분포로 보면, 기준상의 문제로 수치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KBS뉴스가 30, NHK뉴스가 48로 NHK뉴스가 KBS뉴스보다는 기본어휘를 조금 더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NHK뉴스 어휘는 모두 기본어휘이지만 KBS뉴스에는 ‘취재하다·구속하다’등 기본어휘에 포함되지 않는 語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8) 일자별 순위 15위 이하

7월24일 : 注目する, 続く, 越える, できる, 進む, 就任する, 選ぶ, 取組む, 考える, 伝える, まとめる
開く, 作る, 始まる, 値上がる, 含む, 残す, よる, はたす, お伝えする, かわる, 獲得する
7월27일 : 作る, 入る, 述べる, 含む, 調べる, 死亡する, 決まる, お伝えする, 感染する, 使う
販売する, 発表する, 持つ, 訴える, 召集する, 配る, 裁斷する, 撮影する, 確認する
8월3일 : 受ける, 運ぶ, 購入する, 認める, 見つかる, 進む, 求める, 作る, 混入する, 使う, とる
含む, 置く, 続く, 決める, 踊る, 入る, 影響する, 集まる, 下がる, 参加する, 逮捕する
11월9일 : 示す, 降る, 求める, 続く, 始まる, 南下する, 調べる, 対する, 派遣する, 開発する
聞く, 延る, 認める, 持つ, まとめる, 得る, 予想する, 下がる, 研究する, 上がる, かける

《표 V-14》 KBS와 NHK뉴스의 동사 사용율순 어휘표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비고
1	받다	17	2.1	3
2	하다	16	1.9	4
3	오다	14	1.7	1
4	되다	14	1.7	4
5	대하다	12	1.4	4
6	취재하다	11	1.3	
7	보다	10	1.2	4
8	밝히다	9	1.1	1
8	발견하다	9	1.1	1
10	내다	8	1.0	3
11	확인하다	7	0.8	1
12	실시하다	6	0.7	1
13	계속하다	6	0.7	1
13	구속하다	6	0.7	
15	가다	6	0.7	2
	합 계	829		30

【 KBS뉴스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비고
1	いう	45	5.2	4
2	する	41	4.7	3
3	なる	37	4.3	4
4	ある	23	2.7	4
5	行う	15	1.7	3
6	見る	11	1.3	4
7	よる	11	1.3	3
8	示す	9	1.0	3
9	行く	10	1.2	4
10	対する	9	1.0	2
11	進む	8	0.9	3
12	述べる	7	0.8	1
13	思う	7	0.8	4
14	受ける	7	0.8	4
15	始まる	7	0.8	2
	합 계	864		48

【 NHK뉴스 】

그리고, 양국 뉴스 어휘에서 상위 빈도어 안에 ‘하다·する’, ‘되다·なる’, ‘받다·受ける’, ‘대하다·対する’, ‘보다·見る’, ‘밝히다·示す’, ‘실시하다·行う’등 공통적인 語도 많이 있다.

- ①⁵⁹⁾ 법무부는 우리 가족관계의 근간인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상속 조항을 고쳐 앞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50% 더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월27일)
- ①" 住民が口にして中毒症状を訴えたのは三つのうちのなべのカレーです。二つの毒物がいつどのようにして混入されたのか科学警察研究所では、更に詳しい鑑定を急いでします。 (8월3일)
- ② 한나라당에서 뒤늦게 제기한 총풍 사건과 고문 조작 불법 감청, 그리고

59) 양국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경우의 예문은 ①·①", ②·②" 와 같은 식으로 공통적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정치인 사정의 의제 설정도 막판 쟁점이 **됐습니다.** (11월9일)

- ②" 靑酸加工物が今回の事件でどのようなルートを通じて使われたのかという点の解明も今後の捜査の大きな焦点の一つになります。 (7월27일)

위 예문처럼 많은 語가 양국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나, NHK뉴스의 순위 1위인 ‘いう’가 KBS뉴스에서는 자주 보이지 않는데,

- ㉠ 自民党のオブリ新総裁は今日夕方記者会見し、党役員や閣僚人事について、適材適所や党内融和を基本に挙党体制を確立して行き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7월24일)
- ㉡ 환경부 생태계 조사단도 이번 발자국이 반달가슴곰의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11월9일)
- ㉢ 야당 파괴 문제는 반드시 회담 의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1월9일)

그것은 NHK뉴스에서는 ‘いう’가 ㉠과 같이 ‘~という~’라는 표현의 사용이 많은데 반해, KBS에서는 ㉡과 같이 ‘말하다’도 물론 사용하지만 ㉢와 같이 ‘주장하다·전하다·밝히다’등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NHK 뉴스처럼 상위 빈도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취재하다’는 KBS뉴스에서는 모든 일차에서 고루 반복 사용되지만, NHK뉴스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 ㉠ 먼저, 시추 현장을 울산방송 권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월27일)
- ㉡ それでは捜査本部の置かれている和歌山東警察署の前からお伝えます。 (7월27일)
- ㉢ それでは自民党本部から中継でお伝えます。 (7월24일)

이는, KBS뉴스에서는 ㉠과 같이 ‘○○○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반해 NHK뉴스는 ㉡처럼 ‘○○から お伝えます.’라고 하여 ‘お伝えする’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뉴스의 표현상의 차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취재하다’라는 보도자의 입장에서 방송을 하느냐, ‘お伝えます’라는 시청자의 입장을 고려한 방송을 하느냐의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확인하다, 실시하다, 계속하다, 구속하다’는 KBS뉴스에서만, ‘야르’는 NHK뉴스에서만 상위 빈도어에 속하는語이지만, 이는 빈도상의 차이일 뿐 양국 뉴스에서 모두 사용되는語이다.

5.1.3 形容詞

형용사의 분포는 KBS뉴스가 평균 241語, NHK뉴스가 평균 109語로 빈도로는 KBS뉴스 어휘의 수치가 높다. 물론, 別個語數도 많다.

《표 V-15》 KBS뉴스와 NHK뉴스의 형용사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합 계	206	197	339	223	241
	별개어수	67	88	97	97	87
NHK	합 계	136	89	86	125	109
	별개어수	68	38	39	60	51

이러한 빈도상의 차이가 나는 형용사의 분포는 어떠한지 KBS와 NHK의 사용율순 어휘표를 통해 형용사의 쓰임과 특징을 알아본다.

5.1.3.1 KBS뉴스의 形容詞 分布

KBS뉴스의 형용사는 다음의 《표 V-16》⁶⁰⁾, 《표 V-17》과 같다. 우선

60) 전체 순위 15위 이하 : 낮다, 다르다, 쉽다, 강하다, 적다, 새롭다, 늦다, 비슷하다, 심하다, 막막하다

《표 V-16》의 전체 상위 빈도어를 보면, 전체 상위 6위까지의 ‘있다, 없다, 많다, 아니다, 이렇다, 같다’가 모든 일자에 골고루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순위 1, 2위인 ‘있다, 없다’는 다른 語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KBS뉴스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 ① 그러나 아직도 모델하우스에서 건설회사만 믿고 계약금을 직접 내는 분양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7월24일)
- ② 하루종일 썰 틈도 **없이** 물 속에 들어가 실종자의 시신을 찾았지만 드넓은 바다를 뒤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8월3일)

《표 V-16》 KBS뉴스의 형용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순위	표 제 어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있다	47	12	37	15	28	11.6
2	없다	19	10	24	20	18	7.5
3	많다	13	15	16		13	5.4
4	아니다	5	3	11	9	7	2.9
4	이렇다	7	5	8	8	7	2.9
6	같다	5	11	3	5	6	2.5
7	크다	6		5	7	5	2.1
8	어렵다		4	3	7	4	1.7
9	높다		6	7	3	4	1.7
10	새롭다	2	9		1	3	1.2
	합 계	206	197	339	223	241	

그리고, 위의 전체 상위어와 다음의 《표 V-17》 61)일자별 상위어를 비교해보면, 전체 상위어와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체

61) 일자별 순위 15위 이하
 7월24일 : 막막하다, 드러나다, 엄청나다, 심하다, 늦다, 요란하다
 7월27일 : 강력하다, 적다, 강하다, 드물다, 비슷하다, 거대하다
 8월3일 : 값싸다, 싸늘하다, 다르다, 깊다, 거세다, 가능하다
 11월9일 : 비싸다, 철저하다, 새롭다, 뒤늦다, 가파르다

상위 빈도어에 포함되는 ‘크다(7월27일 제외)’, ‘어렵다, 높다(7월24일 제외)’, ‘새롭다(8월3일, 11월9일 제외)’, ‘낮다(7월27일, 11월9일 제외)’, ‘작다(7월24일, 8월3일 제외)’ 등 일자별 순위에서 제외되는 語도 있다.

- ①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의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7월24일)
- ② 이번에 발견된 가스층은 가스 분출 압력이 매우 **높아** 개발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27일)

《표 V-17》 KBS뉴스의 형용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있다	47	22.8
2	없다	19	9.2
3	많다	13	6.3
4	이렇다	7	3.4
5	크다	6	2.9
6	아니다	5	2.4
7	같다	5	2.4
8	낮다	3	1.5
9	새롭다	2	1.0
10	정확하다	2	1.0
	합계	206	

【 7월24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많다	15	7.6
2	있다	12	6.1
3	같다	11	5.6
4	없다	10	5.1
5	새롭다	9	4.6
6	높다	6	3.0
7	다르다	5	2.5
7	이렇다	5	2.5
9	어렵다	4	2.0
10	아니다	3	1.5
	합계	197	

【 7월27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있다	37	10.9
2	없다	24	7.1
3	많다	16	4.7
4	아니다	11	3.2
5	이렇다	8	2.4
6	높다	7	2.1
7	크다	5	1.5
7	낮다	5	1.5
9	어렵다	3	0.9
9	같다	3	0.9
	합계	339	

【 8월3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없다	20	9.0
2	있다	15	6.7
3	아니다	9	4.0
4	이렇다	8	3.6
5	많다	7	3.1
5	크다	7	3.1
5	어렵다	7	3.1
8	같다	5	2.2
9	쉽다	4	1.8
10	작다	4	1.8
	합계	223	

【 11월9일 】

하지만 전체 상위어와 일자별 상위어의 차이가 앞에서 다룬 명사, 동사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 이는 뉴스에서 사용되는 형용사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뉴스에서 사용되는 어휘 자체가 정확함을 필요로 하여 막연한 표현을 자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5.1.3.2 NHK뉴스의 形容詞 分布

NHK뉴스의 형용사 분포는 《표 V-18》⁶²⁾, 《표 V-19》와 같다.

《표 V-18》NHK뉴스의 형용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순위	표제어	7/24	7/27	8/3	11/9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多い	9	10	2	13	9	8.3
2	新しい	16	3	10	5	9	8.3
3	ない	3		7	7	4	3.7
4	早い	8		4	4	4	3.7
4	きびしい	6	5	3	2	4	3.7
6	安い	8	5	5	1	4	3.7
7	強い	6	5	3		4	3.7
8	低い	2	2		9	3	2.8
9	近い	3	5	3	1	3	2.8
10	いい	4		2	4	3	2.8
	합계	136	89	86	125	109	

위 표를 보면, NHK뉴스의 형용사 분포가 ‘多い・新しい’ 두어의 중심임을 알 수 있는데,

- ① サルモネラ菌による食中毒は毎年7月から9月にかけて多くなります。(7월27일)
- ② 自民党の新しい総裁にオバチ外務大臣が選ばれました。(7월24일)

특히, ‘新しい’는 7월 24일, 8월 3일에 다른 어휘에 비하여 수치가 매우 높음을

62) 전체 순위 15위 이하 : 詳しい, 大きい, 少ない, 高い, 早い, 広い, 重要だ

알 수 있다. 이는 7월 24일의 新総裁 選挙의 테마에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 ‘ない, 強い, 近い, 詳しい’ 등도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이다.

그럼, 다음의 《표 V-19》 63)일자별 상위어와 비교해 본다.

《표 V-19》 NHK뉴스의 형용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新しい	16	11.8
2	多い	9	6.6
3	早い	8	5.9
3	やすい	8	5.9
5	きびしい	6	4.4
5	強い	6	4.4
7	いい	4	2.9
8	ない	3	2.2
9	近い	3	2.2
10	難しい	2	1.5
	합계	136	

【 7월24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多い	10	11.2
2	詳しい	5	5.6
2	近い	5	5.6
2	きびしい	5	5.6
2	強い	5	5.6
2	安い	5	5.6
7	高い	4	4.5
7	難しい	4	4.5
7	細かい	4	4.5
10	新しい	3	3.4
	합계	89	

【 7월27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新しい	10	11.6
2	ない	7	8.1
3	早い	4	4.7
4	強い	3	3.5
4	近い	3	3.5
4	きびしい	3	3.5
4	大切だ	3	3.5
8	多い	2	2.3
9	いい	2	2.3
9	必要だ	2	2.3
	합계	86	

【 8월3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多い	13	10.4
2	低い	9	7.2
3	ない	7	5.6
4	新しい	5	4.0
4	冷たい	5	4.0
6	早い	4	3.2
6	いい	4	3.2
8	高い	3	2.4
8	活発だ	3	2.4
8	正式だ	3	2.4
	합계	125	

【 11월9일 】

위와 같이 일자별에는 포함되나 전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語가 있는데,

63) 일자별 순위 15위 이하

7월24일 : 弱い, 低い, 大きい, 広い, 重要だ, はげしい

7월27일 : 新しい, 珍しい, 少ない, 早い, 大きい, 低い

8월3일 : 詳しい, 短かい, 少ない, 重い, 高い

11월9일 : 詳しい, 近い, 大きい, 重要だ, 必要だ

7월 24일의 ‘難しい’, 7월 27일의 ‘詳しい・難しい’, 8월 3일의 ‘大切だ・必要だ’, 11월9일의 ‘冷たい・活潑だ・正式だ’ 등의 語이다. 그러나, NHK뉴스도 KBS와 같이 전체 상위어와 일자별 상위어의 분포상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1.3.3 KBS뉴스와 NHK뉴스의 使用率順 形容詞 比較

KBS와 NHK의 상위 빈도 10위까지의 語로 形容詞 使用率을 알아본다. 어휘표는 《표V-20》과 같고, 비교는 기본어휘표의 수치이다.

《표V-20》KBS와 NHK뉴스의 形容詞 使用率순 어휘표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비고
1	있다	28	11.6	4
2	없다	18	7.5	4
3	많다	13	5.4	3
4	아니다	7	2.9	4
4	이렇다	7	2.9	2
6	같다	6	2.5	4
7	크다	5	2.1	4
8	어렵다	4	1.7	1
9	높다	4	1.7	2
10	새롭다	3	1.2	1
	합계	241		29

【 KBS뉴스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비고
1	多い	9	8.3	4
2	新しい	9	8.3	4
3	ない	4	3.7	3
4	早い	4	3.7	3
4	きびしい	4	3.7	4
6	安い	4	3.7	3
7	強い	4	3.7	4
8	低い	3	2.8	4
9	近い	3	2.8	4
10	いい	3	2.8	4
	합계	109		37

【 NHK뉴스 】

우선, 기본어휘의 비교를 보면, KBS가 29, NHK가 37로 NHK뉴스 어휘가 본 연구의 비교 수치상으로는 보다 더 기본어휘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10위까지의 어휘가 모두 기본어휘에 포함되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리고, 상위 빈도어의 분포는 ‘많다・多い’, ‘없다・ない’, ‘높다・高い’, ‘새롭다・新しい’등 공통적인 語가 많다.

- ① 지금까지 우리 대륙붕에서 뚫었던 시추공 30개 가운데서는 가스 분출 압력이나 하루 가스 산출량이 가장 높고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밀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7월27일)
- ①" サルモネラ菌による食中毒は毎年7月から9月にかけて**多**くなります。 (7월27일)
- ② 복지부는 그 이유를 첫째 0-157균이 확인된 가건물이 사망한 환자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11월9일)
- ②" 支持しない理由は、政策に期待が持てないからが44%、実行力がないからが22%、支持する政党の内閣では**ない**からが10%でした。 (8월3일)

위 예문처럼 양국의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語**에 반해, KBS뉴스에서 1위를 차지한 ‘**있다**’는 NHK뉴스의 상위 빈도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품사 분류상의 문제로서 두 나라의 국어 문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있다’⁶⁴⁾가 한국의 경우는 ‘형용사’이지만, 일본의 ‘ある’는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는 같으나 품사 분류상 ‘동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 이 경우 수능 성적 위주의 입시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되고 입시제도 전반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24일)
- ㉠ 健康への影響などお早急に研究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いますが、学校給食の食器や食品の容器などに含まれる一部の科学物質については健康に**重大な影響がある**という証拠は得られていないとする限界を示めました。 (11월9일)

예문처럼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은 형용사, ㉠은 동사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나오는 것이다.

64) 활용의 방식이 일정하지 않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전통문법에서 존재사로 부르기도 했으나, 종결평서형이 다른 활용정보보다 더 기초적이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최현배, 1971:185-7) 형용사로 본다
남기심·고영근 (1985), 전거서 p.132

5.1.4 副詞

부사의 분류는 다음의 《표 V-21》과 같은데, 빈도상으로는 KBS뉴스가 169語, NHK뉴스가 97語로 KBS뉴스에서 부사의 사용이 조금 더 많지만, 뉴스 전체 안에서의 빈도는 두 뉴스 모두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V-21》 KBS뉴스와 NHK뉴스의 부사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합 계	163	172	201	139	169
	별개어수	78	81	119	81	90
NHK	합 계	151	80	91	66	97
	별개어수	66	35	46	31	45

KBS뉴스의 부사의 분포는 다음의 《표 V-22》⁶⁵⁾, 《표 V-23》과 같으며, 전체 상위어를 보면 ‘또, 모두, 더, 따라’가 중심을 이루어, 일자별로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박세리 선수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뉴모리에 클래식에서 사상 첫 메이저 대회 3연승이라는 **또** 다른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7월27일)
- ② 당초 신탁계정은 **모두** 인수은행에서 떠 안게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인수은행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7월24일)

또한, 이 語는 《표 V-23》일자별 상위어⁶⁶⁾와 비교를 해 보아도 알 수

65) 전체 순위 15위 이하 : 아직도, 오히려, 조금, 함께, 주로, 너무, 곧

66) 일자별 순위 10위 이하

7월24일 : 더, 직접, 때로는, 너무, 즉시, 곧, 물론

7월27일 : 대체로, 너무, 곧, 간략, 아직도, 모두

8월3일 : 아직도, 먼저, 조속히, 무려, 요즘, 오히려

11월9일 : 다음, 역시, 오히려, 당당히, 조금, 대체로

있듯이 거의 모든 일자별 상위어에도 포함된다 (단, ‘더’ : 7월24일 제외, ‘따라’ : 8월3일 제외). 그리고, 전체 상위 빈도어에는 ‘또, 모두, 더, 따라’외에도 ‘특히, 가장, 이미, 다시’ 등도 포함되어 있다.

《표 V-22》 KBS뉴스의 부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순위	표제어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또	8	13	6	14	10	5.9
2	모두	6	4	6	5	5	3.0
3	더	3	4	7	5	5	3.0
4	특히	9	4	3	2	5	3.0
4	따라	7	4	2	5	5	3.0
4	가장	5	5	4	4	5	3.0
7	이미	5	5	1	5	4	2.4
7	다시	3	4	3	6	4	2.4
9	더욱	1	3	8	3	4	2.4
10	제대로	3	3	5	3	4	2.4
	합 계	163	172	201	139	169	

《표 V-23》 KBS뉴스의 부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특히	9	5.5
2	또	8	4.9
3	따라	7	4.3
4	모두	6	3.7
5	가장	5	3.1
5	이미	5	3.1
5	아직도	5	3.1
5	반드시	5	3.1
9	또한	4	2.5
9	함께	4	2.5
	합 계	163	

【 7월24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또	13	7.6
2	함께	6	3.5
3	이미	5	2.9
3	가장	5	2.9
5	모두	4	2.3
5	더	4	2.3
5	특히	4	2.3
5	따라	4	2.3
5	다시	4	2.3
10	더욱	3	1.7
	합 계	197	

【 7월27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더욱	8	4.0
2	더	7	3.5
3	또	6	3.0
3	모두	6	3.0
5	제대로	5	2.5
6	가장	4	2.0
7	특히	3	1.5
7	다시	3	1.5
7	거의	3	1.5
10	주로	2	1.0
	합계	201	

【 8월3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또	14	10.1
2	다시	6	4.3
3	모두	5	3.6
3	더	5	3.6
3	따라	5	3.6
3	이미	5	3.6
7	가장	4	2.9
8	더욱	3	2.2
8	오히려	3	2.2
8	제대로	3	2.2
	합계	139	

【 11월9일 】

NHK뉴스의 부사 사용은 다음의 《표 V-24》 67), 《표 V-25》와 같다.

우선, 《표 V-24》와 같이 NHK뉴스 어휘의 부사는 ‘特に, 新たに, 更に, まず’가 상위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 ① このクラスの小型トラックは今後アジアや中南米地域で販売台数が**特に**伸びるひざしだとしており共同開発によって一車あたりの開発費用を減らしてコストダウンを狙ったとされています。 (7월27일)
- ② **まず**もっとも介護を必要とする要介護5の対象になるのは一日に平均して170分以上の介護が必要とみなされるお年寄りで、要介護4は一日に135分以上、要介護1は一日に30分以上と決めています。 (7월27일)

그러나, 전체 순위 5위인 ‘本当に’는 7월 24일에만 높은 수치를 보여 전체 순위에 포함되었지만, 그 외의 일자에는 나오지 않는다.

- ① 国民の訴えを**本当に**自民党は理解しているのかとこういう疑問をしょうずるところであります。 (7월24일)

67) 전체 순위 15위 이하 : まず,できるだけ,やはり,すでに,もっとも,はっきり,ちょっと

그것은 ‘本当に’가 7월 24일의 総裁選挙 보도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입후보자의 의견 피력 과정에서 나온 語로 다른 상위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게, 화자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語라고 할 수 있다. 7월 24일의 뉴스가 어휘 조사 대상이 된 다른 뉴스와 비슷한 성격이 뉴스였다면 이 순위는 달라질 수도 있다.

《표 V-24》 NHK뉴스의 부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순위	표제어	7/24	7/27	8/3	11/9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特に		8	4	4	4	4.1
2	新たに		4	6	5	4	4.1
2	更に		4	6	5	4	4.1
4	まず	3	7	3	1	4	4.1
5	本当に	11				3	3.1
6	非常に	5	3	1	1	3	3.1
7	まだ	2	2	4	1	2	2.1
7	すでに	1	1	3	4	2	2.1
7	ほとんど	2	3	2	2	2	2.1
10	やはり	8				2	2.1
	합계	151	80	91	66	97	

다음의 《표 V-25》 68) 의 일자별 상위어와 전체 상위어를 함께 보면, 상위 10위까지의 語가 거의 비슷한 비율의 수치를 나타낸다. 즉, 특별히 자주 사용되는 부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것은 앞서도 다루었지만, 뉴스가 정확한 보도를 목표로 하여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어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사의

68) 일자별 순위 15위 이하

7월24일 : きちと, まだ, ちょっと, ただちに, やはり

7월27일 : すでに, かなり, 必ず, できるだけ, もっとも

8월3일 : できるだけ, ちょっと, きちと, すぐ

11월9일 : まず, まもなく, 非常に, できるだけ, はっきり

빈도가 비슷하다는 것은 아니다. 일자별 상위 빈도어 중에도 일자에 따라 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7월 24일의 ‘本當に・やはり’, 7월 27일의 ‘特に・まず’, 8월 3일과 11월 9일의 ‘新たに・更に’ 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語이다. 하지만, 앞에서 다룬 품사들보다는 순위 비율상의 차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V-25〉 NHK뉴스의 부사 사용율순 어휘표 (일자별)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本當に	11	7.3
2	やはり	8	5.3
3	もう	6	4.0
4	非常に	5	3.3
4	大変	5	3.3
6	きわめて	4	2.6
7	まず	3	2.0
7	ぜひ	3	2.0
9	まだ	2	1.3
9	ほとんど	2	1.3
	합계	151	

【 7월24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特に	8	10.0
2	まず	7	8.8
3	新たに	4	5.0
3	更に	4	5.0
3	次々に	4	5.0
6	非常に	3	3.8
6	もっとも	3	3.8
6	ほとんど	3	3.8
6	すべて	3	3.8
6	主に	3	3.8
	합계	80	

【 7월27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新たに	6	6.6
1	更に	6	6.6
3	特に	4	4.4
3	まだ	4	4.4
5	まず	3	3.2
5	すでに	3	3.2
7	もう	2	2.2
7	ほとんど	2	2.2
7	明かに	2	2.2
7	有効に	2	2.2
	합계	91	

【 8월3일 】

순위	표제어	빈도	비율%
1	新たに	5	7.6
1	更に	5	7.6
3	特に	4	6.1
3	すでに	4	6.1
5	ちょうど	3	4.5
6	ほとんど	2	3.0
6	もっとも	2	3.0
6	おおむね	2	3.0
6	逆に	2	3.0
6	早急に	2	3.0
	합계	66	

【 11월9일 】

이와 같이 KBS뉴스와 NHK뉴스의 부사 분포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가 ‘특히・特に’, ‘더욱・更に’, ‘이미・すでに’

정도이지만, 뉴스안에서의 사용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다는 점과 상위 빈도어의 분포가 특별히 아주 많이 사용되는 語가 따로 없이 골고루 사용된다는 점은 비슷하다고 하겠다.

5.1.5 代名詞

대명사의 분류는 다음의 《표 V-26》, 《표 V-27》에 나타냈는데, 빈도에 따른 양국 뉴스의 대명사의 차이는 NHK뉴스의 7월 24일의 합계가 다른 일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평균빈도는 KBS 뉴스가 39語, NHK뉴스가 49語로 비슷하다.

《표 V-26》 KBS뉴스와 NHK뉴스의 대명사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합 계	50	49	27	29	39
	별개어수	9	7	9	6	8
NHK	합 계	92	41	33	30	49
	별개어수	11	8	3	5	7

《표 V-27》 KBS뉴스와 NHK뉴스의 대명사 어휘표

순 위	표제어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이	15	26	12	22	19	48.7
2	우리	10	5	4		5	12.8
3	여기	3	2	3		2	5.1
4	이곳		6	1		2	5.1
4	저	1		6		2	5.1
	합계	50	49	27	29	39	

【 KBS뉴스 】

순 위	표제어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これ	39	15	23	11	22	44.9
2	それ	21	7	3	1	8	16.3
3	私	11				3	6.1
4	彼	1	2			1	2.0
5	誰	3	1			1	2.0
	합계	92	41	33	30	49	

【 NHK뉴스 】

양국 뉴스의 상위 빈도의 대명사를 보면, KBS뉴스 어휘는 ‘이⁶⁹⁾·우리’가, NHK뉴스 어휘는 ‘これ·それ’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이외의 ‘여기·저·이곳’과 ‘私·彼·誰’도 빈도 순위 5위안에 들어가지만, 뉴스 안에서의 대명사의 사용율이 작아 빈도의 수치는 매우 낮다. 그럼, 양국 뉴스 안에서의 대명사의 사용에 의한 특징을 알아본다.

- ① 이제 남은 것은 사용자측 즉 재계의 복귀입니다. 이를 위해 김원기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국 경제인 연합회와 한국 경영자 총합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사정 위원회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7월27일)
- ② 광개토태왕함은 우리 해군에서 가장 큰 함정으로 길이 135미터의 3,885톤급으로 30노트의 고속운항이 가능합니다. (7월24일)
- ①" これを受けてオブチ新総裁は党の役員人事などの検討に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7월24일)
- ② 一方、捜査本部のこれまでの調べで検出されたひ素その量は生産加工物の量と少なくとも同じかそれよりも多いものと見られています。(8월3일)

위와 같이 ①과 ①"의 ‘이·これ’는 KBS와 NHK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KBS뉴스에서 자주 쓰인 ‘우리’는 ‘우리 해군’, ‘우리 대학’, ‘우리 나라’ 등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NHK뉴스에서는 ‘我々の○○’란 표현이 거의 없었다. 즉, KBS에서는 ‘한국’을 ‘우리 나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 반해, NHK에서는 ‘일본’을 ‘我が国’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은 하지만, 그대로 ‘日本’이라는 語의 사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69) ‘이’는 대명사와 관형사 두 가지의 품사로 사용되는데, 대명사의 경우는 ‘인칭(이이)’과 ‘지시(이것, 이러한 형편)’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희승 감수 (1998),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p.2079

5.1.6 数詞

수사의 분류는 다음의 《표 V-28》, 《표 V-29》, 《표 V-30》 과 같다.

《표 V-28》 KBS뉴스와 NHK뉴스의 수사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합 계	174	175	146	65	140
	별개어수	83	69	68	57	69
NHK	합 계	124	189	226	174	178
	별개어수	67	73	68	68	69

빈도로는 NHK뉴스가 KBS뉴스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나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표 V-29》, 《표 V-30》의 사용율에 따른 상위 빈도어의 분포도 비율상의 차이는 있지만, KBS와 NHK뉴스가 거의 비슷한 語로 구성되었다.

《표 V-29》 KBS뉴스의 수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순위	종 류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3	11	18	19	8	14	10.0
2	1	15	12	15	7	12	8.6
3	10	5	10	18	11	11	7.9
4	2	19	6	10	8	11	7.9
5	5	6	13	6	9	9	6.4
6	4	9	9	8	7	8	5.7
7	9	8	4	4	9	6	4.3
8	8	3	4	6	4	4	2.9
9	20	3	4	7		4	2.9
10	30	7		7		4	2.9
11	6	4		5	4	3	2.1
12	25	5	5			3	2.1
13	7	5			4	2	1.4
14	80		4		3	2	1.4
	합 계	174	175	146	65	140	

《표 V-30》 NHK뉴스의 수사 사용율순 어휘표 (전체)

순위	종 류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비율(%)
1	1	14	38	27	7	22	12.4
2	3	13	22	23	20	20	11.2
3	2	6	29	20	13	17	9.6
4	5	6	15	3	12	9	5.1
5	4	2	18	9	5	9	5.1
6	9	1	10	6	11	7	3.9
7	6	6	9	8		6	3.4
8	7	4	6	3	6	5	2.8
9	10		5	8	6	5	2.8
10	20	1	3	3	8	4	2.2
11	30	4	6	1	3	4	2.2
12	8		3	8	2	3	1.7
13	70	6			3	2	1.1
14	80	2	2	1	1	2	1.1
	합 계	124	189	226	174	178	

특히 '1, 2, 3, 4, 5'는 양국 뉴스의 수사 분포에서 KBS뉴스가 38.6%, NHK뉴스가 43.4%로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 ① 그러나 이 같은 구조조정이 1년만 지연되더라도 추가 실업자가 백만명 더 생기고 경제회복도 2년은 늦어진다는 경제보고서까지 나와 시간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27일)
- ①" 3つのカレーライスのなべのうち2つは祭会場の隣の住宅のガレージで作られそこから200メートル離れた住宅でもう1つのなべのカレーが調理されました。 (7월27일)

그 외 '6, 7, 8, 9, 10, 20, 30, 80'도 상위 14위까지의 語로 공통적이며, 비율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다만, 상위어 中 KBS뉴스의 '25', NHK뉴스의 '70'만 서로 다르다. 그리고, 위 표에서처럼 상위어 분포에

10단위 숫자에서 ‘20, 30’과 같은 단위는 존재하나 11~19까지의 수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특이하다. 즉, 양국 뉴스의 수사 사용이 1~10까지의 가장 기본적인 숫자의 사용에 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7 接統詞

접속사의 분포는 《표 V-31》과 같다.

《표 V-31》 KBS뉴스와 NHK뉴스의 접속사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합 계	11	24	16	26	19
	별개어수	5	5	5	5	5
NHK	합 계	56	51	25	33	41
	별개어수	8	6	6	7	7



양국 뉴스에서의 사용 빈도의 차이가 조금 나는데 NHK뉴스에서 KBS 뉴스보다는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용빈도는 둘 다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접속사로는 KBS뉴스가 ‘그러나,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데, 따라서, 그러자’ 등이 있고, NHK 뉴스는 ‘しかし, そして, また, そこで, それでは, 一方, それに, では, どころか’ 등이다. 특히, KBS뉴스는 ‘그러나·그리고·또’가 NHK뉴스는 ‘しかし·そして·また’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것은 양국 뉴스가 공통적이다.

- ① 그러나 3점차로 뒤진 채 시작한 결승 라운드를 대역전으로 뒤집은 힘과 세리의 근성은 모두 박세리 선수의 것입니다. (7월27일)
- ②” しかし声明の原案に盛り込まれていたインドとパキスタン兩國を名指して非難する表現をそのまま採用するかどうかをめぐってこのフォーラムの参加国のインドが激しく

反対するなど参加国の意見が対立していたことから最終的にどのような表現で声明がまとめられたかが焦点になっています。 (7월27일)

- ② 검찰은 서울 을지로와 명동, 그리고 강남일대 채권 브로커가 수만 명에 이를 만큼 아직도 많은 채권사기단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9일)
- ②" そして関東地方でも20度を越える所はなくて明日は15度から20度の間の黄色の区域が広がります。 (11월9일)

위 예문과 같이 양국 뉴스의 접속사의 쓰임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사용 빈도상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다.

5.1.8 冠形詞 [連体詞]

관형사의 분포는 KBS뉴스가 55, NHK뉴스가 59로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내며, 분류표는 다음의 《표 V-32》와 같다.

《표 V-32》 KBS뉴스와 NHK뉴스의 관형사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합 계	78	41	62	37	55
	별개어수	9	8	10	8	9
NHK	합 계	72	73	51	38	59
	별개어수	8	6	8	4	7

거의 비슷한 빈도의 분포를 보이는 관형사의 뉴스에서의 쓰임은, KBS뉴스가 ‘이, 그, 어느, 전, 아무, 한’ 등이, NHK뉴스에서는 ‘この, その, どの, どんな, いわゆる’ 등이 사용되고 있다.

- ① 이 푸르름 사이사이에 결실을 가로막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7월27일)
- ①" この事件でカレーが配られる直前のおとこの午後6時すぎに味見をした地元の人たちが中毒症状を訴えていたことから和歌山県警察本部は、この時間帯を中心に毒物混入の経緯について詳しく調べています。 (7월27일)
- ② 금강산 유람선과 그 출발지가 확정됐습니다. (7월27일)
- ②" その上で野田幹事長は自民党との今後の関係についてはこうした協議で合意ができるかどうかで判断し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11월9일)

위와 같이 ‘이·この, 그·その’의 사용이 공통적이며, 또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5.1.9 感歎詞 [感動詞]

감탄사의 분포는 《표 V-33》과 같이, 양국 뉴스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표 V-33》 KBS뉴스와 NHK뉴스의 감탄사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합 계	2			8	3
	별개어수	2			2	1
NHK	합 계	4	4	3	5	4
	별개어수	4	3	3	4	4

뉴스에서의 사용을 보더라도 KBS뉴스에서는 ‘예, 네’ 뿐인데, 보통 취재기자 혹은 상대 앵커의 코멘트가 끝난 후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 암시적·습관적으로 사용하며, NHK뉴스에서는 ‘こんばんは, 失礼い

たします, 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등 인사말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뉴스에서의 감탄사의 사용은 양국 모두 거의 없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5.1.10 品詞別 分布

지금까지 KBS뉴스와 NHK뉴스의 품사별 빈도와 상위 빈도어의 분포에 따른 어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종합적인 품사별 비율을 통한 특징을 알아본다. KBS와 NHK뉴스의 품사별 분류는 《표 V-34》, 《표 V-35》, 【그래프 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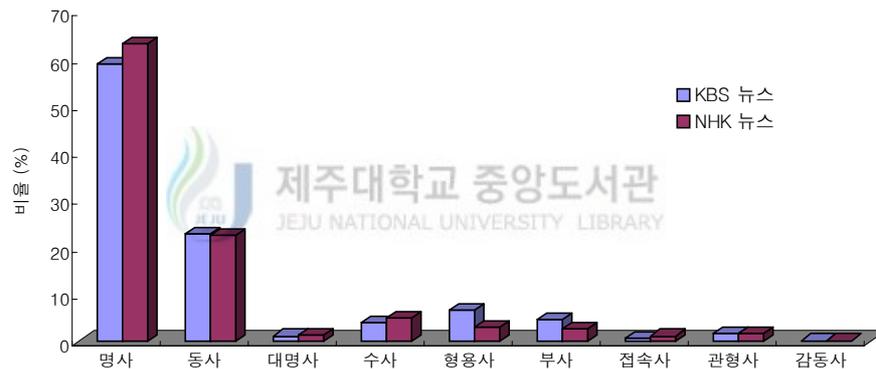
《표 V-34》 KBS뉴스의 품사별 분류표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명 사	2,300	60.8	1,898	53.8	1,953	55.3	2,392	65.0	2,136	58.9
동 사	796	21.1	970	27.5	785	22.2	763	20.7	829	22.8
대명사	50	1.3	49	1.4	27	0.8	29	0.8	39	1.1
수 사	174	4.6	175	5.0	146	4.1	65	1.8	140	3.9
형용사	206	5.4	197	5.6	339	9.6	223	6.1	241	6.6
부 사	163	4.3	172	4.9	201	5.7	139	3.8	169	4.7
접속사	11	0.3	24	0.7	16	0.5	26	0.7	19	0.5
연체사	78	2.1	41	1.2	62	1.8	37	1.0	55	1.5
감동사	2	0.1					8	0.2	3	0.1
합 계	3,780		3,526		3,529		3,682		3,629	

《표 V-35》 NHK뉴스의 품사별 분류표

	7/24		7/27		8/3		11/9		평 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명 사	2,458	62.5	2,611	64.7	2,175	62.5	2,182	62.8	2,357	63.2
동 사	838	21.3	899	22.3	788	22.7	822	23.7	837	22.4
대명사	92	2.3	41	1.0	33	0.9	30	0.9	49	1.3
수 사	124	3.2	189	4.7	226	6.5	174	5.0	178	4.8
형용사	136	3.5	89	2.2	86	2.5	125	3.6	109	2.9
부 사	151	3.8	80	2.0	91	2.6	66	1.9	97	2.6
접속사	56	1.4	51	1.3	25	0.7	33	0.9	41	1.1
연체사	72	1.8	73	1.8	51	1.5	38	1.1	59	1.6
감동사	4	0.1	4	0.1	3	0.1	5	0.1	4	0.1
합 계	3,931		4,037		3,478		3,475		3,668	

두 표에서와 같이 양국 뉴스의 품사별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명사의 경우, NHK가 KBS보다 4.3% 높고, 형용사·부사의 경우는 KBS가 3.7%·2.1% 높다), 오차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양국 뉴스의 ‘명사·동사’의 비율은 KBS뉴스가 81.7%를, NHK뉴스가 85.6%를 차지하여 뉴스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뉴스 어휘가 정확한 사실의 공정한 보도에서 필요로 하는 확실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語를 사용하기 때문에, 형용사·부사·감동사 부류의 語보다는 ‘명사·동사’를 위주로 하여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래프 V-2】 KBS뉴스와 NHK뉴스의 품사 분류

【그래프 V-2】를 보아도, 명사에서 NHK뉴스가, 형용사·부사에서 KBS뉴스의 비율이 조금 높을 뿐 대부분의 품사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래프의 모양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품사별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해서 양국 뉴스 어휘의 품사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품사 분포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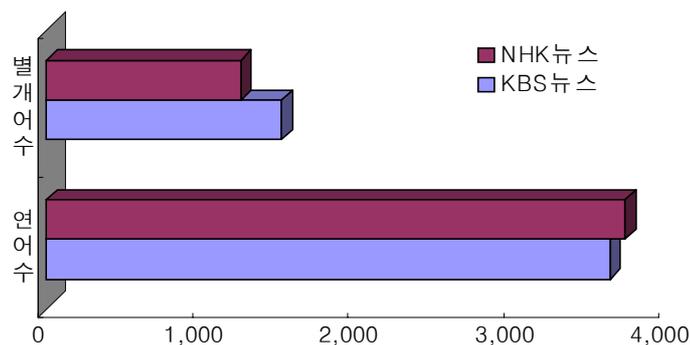
5.2 語數에 의한 比較

여기에서는 KBS뉴스와 NHK뉴스 어휘의 語數에 의한 比較로 특징을 알아본다. Sampling은 연어수와 별개어수로 구분하여, 각 품사별 연어수와 별개어수의 분류표를 만들어 比較하였다. 품사 분류와 마찬가지로 연어수와 별개어수의 수치에 조사·조동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총 어수표는 다음의 《표 V-36》과 같다.

《표 V-36》 KBS뉴스와 NHK뉴스의 어수표

		7/24	7/27	8/3	11/9	평 균
KBS	연 어 수	3,780	3,526	3,529	3,682	3,629
	별개어수	1,488	1,643	1,528	1,401	1,514
NHK	연 어 수	3,931	4,037	3,478	3,475	3,731
	별개어수	1,105	1,340	1,346	1,202	1,250

위와 같이 연어수는 KBS뉴스가 3,629語, NHK뉴스가 3,731語로 차이가 거의 없지만, 별개어수는 KBS뉴스가 1,514語, NHK뉴스가 1,250語로 KBS뉴스 어휘가 많다. 그리고, 연어수와 별개어수로 본 양국 뉴스의 어휘량은 【그래프 V-3】과 같은데,



【그래프 V-3】 KBS뉴스와 NHK뉴스의 어휘량

연어수와 별개어수에서 양국 뉴스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연어수보다는 별개어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양국 뉴스의 차이가 작아 어휘량 그래프의 크기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어수와 별개어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그럼 연어수에 대한 별개어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표 V-37》 KBS와 NHK뉴스의 연어수에 대한 별개어수의 비율(%)

	7/24	7/27	8/3	11/9	평 균
KBS	39.4	46.6	43.4	38.2	41.9
NHK	28.5	34.1	31.9	32.8	31.8

위와 같이 별개어수가 조금 많은 KBS뉴스가 별개어수의 연어수에 대한 비율상에 있어서도 약 10%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즉, NHK 뉴스가 KBS뉴스에 비하여 같은 단어의 반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NHK뉴스의 어휘 분포에 있어서 전체 상위 빈도어에 포함되는 名詞 ‘こと’, 動詞 ‘いう’ 등의 반복 사용처럼 특정 語의 반복 사용이 많은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품사별 연어수·별개어수에서 연어수는 앞에서 다루었던 품사 분류가 연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표 V-34》, 《표 V-35》와 일치함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별개어수의 분포는 다음의 《표 V-38》, 《표 V-39》와 같다. 다음의 표를 보더라도 품사별 별개어수에 있어서도 KBS와 NHK 뉴스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명사·동사의 별개어수 비율이 전체 별개어수의 약 84%(KBS뉴스 : 82.3%, NHK뉴스 :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명사의 별개어수는 전체 어수에서 KBS뉴스는 26.5%를 NHK뉴스는 21.2%의 비율을 보인다. 즉, NHK뉴스에서의 명사의 반복 사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38》 KBS뉴스의 품사별 별개어수 분류표

	7/24		7/27		8/3		11/9		평 균	
	별개어수	비율%	별개어수	비율%	별개어수	비율%	별개어수	비율%	별개어수	비율%
명 사	924	62.1	1,094	66.6	947	62.0	874	62.4	960	63.4
동 사	311	20.9	291	17.7	273	17.9	271	19.3	286	18.9
대명사	9	1.0	7	0.4	9	0.6	6	0.4	8	0.5
수 사	83	6.1	69	4.2	68	4.5	57	4.1	69	4.6
형용사	67	6.2	88	5.4	97	6.3	97	6.9	87	5.7
부 사	78	6.0	81	4.9	119	7.8	81	5.8	90	5.9
접속사	5	0.7	5	0.3	5	0.3	5	0.4	5	0.3
관형사	9	0.5	8	0.5	10	0.7	8	0.6	9	0.6
감탄사	2	0.4					2	0.1		0.1
합 계	1,488		1,643		1,528		1,401		1,514	

《표 V-39》 NHK뉴스의 품사별 별개어수 분류표

	7/24		7/27		8/3		11/9		평 균	
	별개어수	비율%	별개어수	비율%	별개어수	비율%	별개어수	비율%	별개어수	비율%
명 사	648	58.6	867	64.7	904	67.2	750	62.4	792	63.3
동 사	227	20.5	306	22.9	271	20.1	275	22.9	270	21.6
대명사	11	1.0	8	0.6	3	0.2	5	0.4	7	0.6
수 사	67	6.1	73	5.4	68	5.1	68	5.7	69	5.5
형용사	68	6.2	38	2.8	39	2.9	60	5.0	51	4.1
부 사	66	6.0	35	2.6	46	3.4	31	2.6	45	3.6
접속사	8	0.7	6	0.4	6	0.4	7	0.6	7	0.6
연체사	8	0.7	6	0.4	8	0.6	4	0.3	7	0.6
감동사	4	0.4	3	0.2	3	0.2	4	0.3	4	0.3
합 계	1,107		1,342		1,348		1,204		1,252	

5.3 語種에 의한 比較

語種의 분류는 양국 뉴스 어휘에 있어서 품사 비율이 80%가 넘는 명사와 동사만을 이용하였으며, 固有語·漢字語·外来語·混種語의 네 부류로 분류하여 語種의 분포를 알아보았다.

5.3.1 固有語

고유어의 분포는 《표V-40》과 같으며, KBS뉴스의 평균빈도가 889, NHK뉴스의 평균빈도가 944로 빈도상의 수치는 NHK뉴스가 높지만, 명사·동사의 전체 어수(KBS뉴스 2,965語, NHK뉴스 3,194語)에 대한 비율로는 KBS뉴스가 30.0%, NHK뉴스가 29.5%로 거의 같다.

《표V-40》 KBS뉴스와 NHK뉴스의 고유어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명 사	332	359	301	298	323
	동 사	524	679	559	505	567
	합 계	856	1,038	860	803	889
NHK	명 사	366	342	288	269	316
	동 사	689	641	578	602	628
	합 계	1,055	983	866	871	944

5.3.2 漢字語

한자어의 분류는 《표V-41》과 같으며, 빈도로는 KBS뉴스가 평균빈도 1,699이며, NHK뉴스가 평균빈도 1,739로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거의 없다. 전체 어수에 대한 비율은 KBS뉴스가 57.3%, NHK뉴스가 54.4%로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수치는 순수 한자어의 비율만을 다룬 것으로 다음에 다루어질 혼종어의 한자어+한글, 한자어+假名(kana)의 경우의 한자어를 생각해 본다면, 뉴스 어휘에 있어서의 한자어 사용이 압도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양국 뉴스의 공통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표 V-41》 KBS뉴스와 NHK뉴스의 한자어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1,858	1,395	1,549	1,992	1,699
NHK	1,867	1,880	1,570	1,637	1,739

한자어 사용에 이처럼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는 있지만 양국이 공통적인 한자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終始(7월24일)’는 한국에서는 ‘始終’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몇 가지 더 찾아 볼 수 있었다.

- NHK뉴스 → KBS뉴스
- ① 終始 (7월24일) → 始終
- ② 相場 (7월24일) → 時勢
- ③ 混入 (7월27일) → 混合
- ④ 掛念 (7월27일) → 근심
- ⑤ 介護 (7월27일) → 看護



5.3.3 外来語

뉴스 어휘의 외래어 분포는 KBS뉴스가 77, NHK뉴스가 174로 다른 語種에 비하여 차이가 난다. 전체 어수상의 비율은 KBS뉴스가 2.6%, NHK뉴스가 5.4%로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NHK뉴스의 어휘가 외래어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42》 KBS뉴스와 NHK뉴스의 외래어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83	97	71	58	77
NHK	120	243	178	154	174

그리고, 뉴스에 있어서의 외래어의 종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KBS뉴스 : KBS뉴스, 오토바이, 가스, 택시, 하푼미사일, 달러, 아파트, 트럭, 핸드폰, 헬기, 챔피언, 호텔, 모텔하우스, 빅딜, 코치, 레이더, 배럴, 마이너스, 빅딜, 토네이도, 컨소시엄, 프로레슬링, 마운드, 로프, 링, 인센티브, 서비스, 스포츠

NHK뉴스 : 카레라이스, 뉴스, 그룹,ドル, 텔레비, 인터뷰, 서비스, 트랙, 슈퍼,ホルモン, 시스템, 파친코, 편의점, 카메라,サッカー, 팬, 플레이, 멤버, 리더십, 레벨, 스포츠, 팀, 랭크, 메시지, 클래스, 메이커, 디지털, 러너, 데이터, 칩, 벳, 테마, 스텝, 아마추어, 찬스, 마운드, 헬멧

5.3.4 混種語

KBS뉴스와 NHK뉴스의 혼종어의 분류는 《표V-43》과 같다. 평균빈도는 KBS뉴스가 299, NHK뉴스가 336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전체 語數와의 비율도 KBS뉴스가 10.1%, NHK뉴스가 10.5%로 거의 비슷하다.

《표V-43》 KBS뉴스와 NHK뉴스의 혼종어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명사	27	47	32	44	38
	동사	273	291	226	257	262
	합계	300	338	258	301	299
NHK	명사	105	146	139	122	128
	동사	144	258	210	220	208
	합계	249	404	349	342	336

그리고, 양국 뉴스에서 많이 사용된 혼종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KBS뉴스 : 모범택시, 가스층, 대형트럭, 신용카드, 골프채, 압축펌프, 노슈어비율, 프로야구, 상금랭킹, 소꿉놀이세트, 금융피라미드, 컴퓨터통신

NHK뉴스 : 支持グループ, 金融システム, 金融ビックバン, 小形トラック, サルモネラ菌, 流通グループ, 環境ホルモン, プロ野球, 製造メーカー, キャンプ場, 防犯カメラ, 非常ボタン, ハイテク技術, 介護サービス, 宇宙ステーション, 政策テーマ, ロービー活動, 治療チーム, ルール作り, デビュー戦,

또한, 혼종어의 동사는 한자어+하다·되다, 한자어+する·できる, 외래어+する의 형태로 세분화하였다. 다음의 《표 V-44》와 같이 한자어+하다·되다가 262, 한자어+する·できる가 194로 한자어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사 혼종어는 KBS뉴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V-44》 KBS뉴스와 NHK뉴스의 혼종어의 동사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빈도
KBS	漢+하다·되다	272	291	226	257	262
	외래+한글	1				
	합 계	273	291	226	257	262
NHK	漢+する	127	226	193	201	187
	漢+できる	4	5	4	8	6
	외래+する	2	7		4	4
	기타	11	20	13	7	13
	합 계	144	258	210	220	208

외래어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사의 혼종어 분포는 KBS뉴스는 7월 24일의 ‘히트시키다’ 단 1語이지만, NHK뉴스는 평균 4語씩 사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동사는 7월 24일의 ‘リードする・カバーする’, 7월 27일의 ‘リードする・マークする・ブロックする’, 11월 9일의 ‘リードする・スタートする・リサイクルする’ 등과 같이 ‘スタートする・リサイクルする’를 제외하고는 ‘스포츠의 보도’에서 사용된 語이다. 이러한 차이는 KBS뉴스는 ‘스포츠의 보도’를 조사 대상이 된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KBS뉴스의 ‘한자어+하다’로 이루어진 동사와 NHK뉴스의 ‘한자어+する・できる’ 동사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KBS뉴스 : 취재하다, 발견하다, 확인하다, 실시하다, 계속하다, 구속하다,
검토하다, 요구하다, 제출하다, 포함하다, 개발하다, 적발하다,
소환하다, 제기하다, 보도하다

NHK뉴스 : 支持する, 混入する, 調査する, 期待する, 開発する, 実施する, 判断する,
関連する, 協議する, 検討する, 注目する, 分析する, 処理する, 死亡する,
協力する, 予想する, 信頼できる, 解決できる, 配当できる, 使用できる,
克服できる, 発揮でき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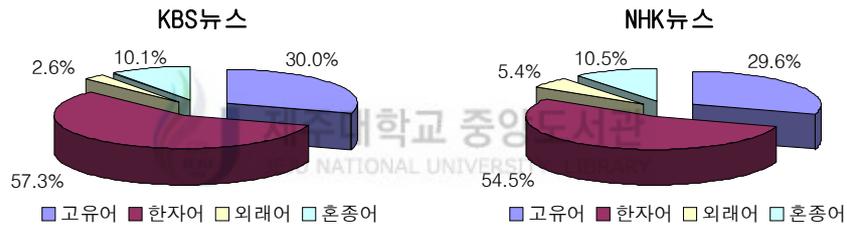
5.3.5 語種別 分布

지금까지 알아본 고유어·한자어·외래어·혼종어의 분포를 《표V-45》에서 전체적인 비율로 알아본다.

다음의 표와 같이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의 분포 비율이 거의 비슷하며, 외래어의 분포 비율에서만 약간의 차이(NHK뉴스가 2.8% 정도 높다)가 있을 뿐이다. 즉, 양국 뉴스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어종 분포가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V-45》 KBS뉴스와 NHK뉴스의 어종별 분류표

		7/24	7/27	8/3	11/9	평균	
						빈도	비율%
KBS	고유어	856	1,038	860	803	889	30.0
	한자어	1,858	1,395	1,549	1,992	1,699	57.3
	외래어	83	97	71	58	77	2.6
	혼종어	299	338	258	301	299	10.1
	합 계	3,096	2,868	2,738	3,154	2,964	
NHK	고유어	1,055	983	866	871	944	29.6
	한자어	1,867	1,880	1,570	1,637	1,739	54.5
	외래어	120	243	178	154	174	5.4
	혼종어	249	404	349	342	336	10.5
	합 계	3,291	3,510	2,963	3,004	3,193	



【 그래프 V-4 】 KBS 뉴스와 NHK 뉴스의 어종 분류

분포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종 분류의 그래프 모양도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한자어의 사용이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VI. 結 論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방송 어휘 사용의 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방송 어휘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개하였다. 그 방법으로 KBS뉴스와 NHK뉴스의 어휘를 분류·분석함으로써 양국 뉴스 어휘의 어휘량적인 면에서의 품사별 분포와 기본어휘의 사용 실태, 語數와 語種 분포 등을 통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방법론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으나 본 연구를 전개해 나가면서 고찰해 낸 한·일 양국 뉴스 어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6.1 뉴스어휘는 일상 생활어가 현장감있는 표현을 위해 형용사·부사·감동사 등의 품사를 이용한 감정 표현 위주의 語를 사용함에 반해,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으로 가능한 한 컴팩트한 표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명사·동사’ 위주의 품사를 사용한다.

6.2 품사의 비교에 의하면, 양국 뉴스의 품사별 분포 비율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국가는 다르더라도 ‘뉴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휘 사용에 있어서 비율의 차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품사별 사용 분포에 있어서 상위 빈도어에는 공통적인 것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표현상의 차로 인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으며, 상위 빈도어의 기본어휘 사용은 양국 뉴스 어휘가 거의 기본어휘로 사용은 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의 비교 기준으로는 NHK뉴스가 좀 더 기본어휘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6.3 연어수, 별개어수의 비교에 있어서는 연어수의 차는 크지 않은데 별개어수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NHK뉴스 어휘가 KBS뉴스

보다 같은 단어의 반복이 많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상위 빈도어의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NHK뉴스 어휘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시킬 수 있었다.

6.4 語種 분류에 있어서는 양국의 뉴스가 한자어의 비율이 50%가 넘어, 한자어 위주의 방송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두 나라 모두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자어의 장점인 단어 안에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점 때문이라고 본다. 외래어의 사용은 NHK뉴스가 더 많으며, 고유어·혼종어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쓰임을 갖는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KBS뉴스와 NHK뉴스 어휘는 우선, 그날의 사건 보도, 정보 전달이라는 특징 아래 어휘 사용에 있어서의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어휘량적 통계 비교에서의 品詞, 語數, 語種의 분포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어휘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간략히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KBS뉴스	NHK뉴스
○○기자, 대통령 (지위명사)	○○さん
취재하다	お伝える (*取材する)
보도하다	伝える (*報道する)
포함하다	含める (*包含する)
혼합하다 (混合)	混入する
시종 (始終)	終始
시세 (時勢)	相場
근심	掛念
간호 (看護)	介護
우리나라	日本 (我が国보다 훨씬 많이 사용)

(*표는 사용되지 않은 齣를 나타냄)

또한, KBS와 NHK뉴스의 어휘를 연구하면서 표현상의 차이가 물론 습관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양국 방송 보도의 입장의 차이로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기자, 대통령, 취재하다, 보도하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는 KBS가 보도자의 입장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면, ‘○○さん, お伝えする, 伝える’ 등의 어휘를 사용하는 NHK가 KBS 보다는 조금 더 시청자를 배려한 보도의 성향이 짙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국의 보도에 두 나라 모두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물론 역사적인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긴 하지만, 21세기 눈앞에 두고 있는 이제는 과거의 회상보다는 미래로의 발전을 위해 경쟁국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나라의 공영 방송으로서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두 뉴스의 세계화의 흐름에 발 맞추어 갈 수 있는 뉴스로의 성장과 본 연구에서 다룬 양국 뉴스 어휘 사용의 공통점 및 표현상의 차이등이 현대 비교 어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마감하고자 한다. 또한 한·일 양국의 뉴스 어휘만이 아니라 시야를 좀 더 넓혀 한·일 양국의 ‘방송 어휘의 폭력성 연구’등 또 다른 분야의 비교 연구를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1. 韓國文獻

【 單行本 】

- 국어연구소(1988), 『중학교 교과서 어휘』
고영근·남기심(1985), 『표준국어문법론』, 塔出版社.
김공칠(1987), 『日本語語彙論』, 學文社.
_____(1994), 『日語學概論』, 時事日本語社.
朴甲洙(1998), 『한국방송언어론』, 집문당.
이충우(1994), 『한국어 교육용어휘 연구』, 국학자료원.
최기호(1989), 『방송언어의 어제와 오늘』, 미래문화사.

【 論文 】

- 김명순(1986), 「한국어 어휘와 품사의 빈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金憲柱(1995), 「報道 放送의 語彙 使用 実態에 관한 研究」,
啓明大学校 教育大学原.
朴甲洙(1985), 「放送言語와 語彙」 KBS 한국표준 방송언어,
韓國放送公社.
安晟惠(1991), 「어휘분석을 위한 의미기술방법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尹幸舜(1987), 「韓·日語의 語彙의 比較」, 東国大学校 大学院.

【 辭典 】

- 이희승 감수(1988),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韓国語辞典編纂委員会編(1976), 『韓国語大辞典』, 玄文社.
한국언론연구원 편 (1997), 『메스컴대사전』

2. 日本文獻

【 單行本 】

岡本禹一(1944), 『日本語基本語彙』, 國際文化振興會.
金田一春彦(1967), 『日本語音韻の研究』, 東京堂出版.
国立国語研究所(1982),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 比較対照表』,
大蔵省印刷局.
佐藤喜代治 編(1982) 『語彙原論』 明治書院.
佐藤喜代治(1982), 『古代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第3巻』, 明治書院.
_____ (1982), 『中世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第4巻』, 明治書院.
_____ (1982), 『近代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第6巻』, 明治書院.
_____ (1982), 『現代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第7巻』, 明治書院.
紫田 式(1988), 語彙論の方法, 三省堂.
橋本進吉(1958), 『国語法体系論』, 岩波書店.
服部四部(1960), 『言語学の方法』, 岩波書店.
_____ (1979), 『日本の言語学, 第5巻 意味・語彙』, 大修館書店.
宮島達夫 編(1982), 『図説日本語』 角川小辞典-9, 角川書店.
_____ (1994), 『語彙論研究』, むぎ書房
NHK 総合放送文化研究所(1981), 『放送用語論』, 日本放送出版協会.

【 論文 】

加藤彰彦(1963), 「日本語教育における基礎学習語」, 『日本語教育』第2号
及び第3・4合併号』, 日本語教育学会.

- 樺島忠夫 外 (1971) 「留学生教育のための基礎用語彙辞典」, 『日本語・日本文化』第2号, 大阪外国大学研究留学生別科.
- 管野 謙, 「放送の語彙」『現代の語彙』, 明治書院.
- _____ (1981), 「新聞広告の形容表現50年の変化」『放送文化年報』26.
- 国立国語研究所(1955), 「談話語の実態」, 秀英出版.
- _____ (1957), 「総合雑誌の用語」, 秀英出版.
- _____ (1964), 「現代雑誌九十種の用語用字」, 秀英出版.
- _____ (1967), 「ことばの研究3」, 秀英出版.
- _____ (1978),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一次集計紫蓼-2,000語」, 第一研究室内部資料.
- 飛田良文(1966), 「明治以後の語彙の変遷」『言語生活』182号.

【 辞典 】

- 小川芳南 外 編(1982), 『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 佐藤喜代治編(1977), 『国語学 研究事田』, 明治書院.
- 日本国語学会編(1972), 『国語学辞典』 제21版 .
- 日本放送協会(1982), 『日本語発音アクセント辞典』 34判.
- 文化庁国語科(1975), 『外国人のための基礎用語彙辞典』 .

3. 西洋文獻

- Bush, Chilton R.(1970), 『*Newswriting and reporting public affairs*』, Philadelphia, Chilton Book Co.
- Emery, Edwin(1991),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s*』, New York, NY : HarperCollins Publishers.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Broadcast Vocabulary

- At KBS and NHK New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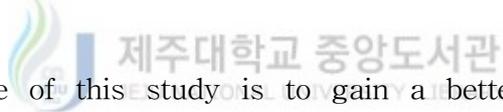
Kim, Mi-Kyung

Japanese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Republic of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Chang-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and Japanese broadcast vocabulary through analyzing both countries' vocabulary use in news broadcasts which have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us who are living in the information age, by extending their province as a form of social communication. To this end, in view of modern vocabulary study, I selected four KBS and four NHK news reports by random sampling and tried to find the main features of the vocabular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word class, word species and number of words.

In the second chapter, I studied the definition and main features of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broadcasting, broadcast language, and news. In the third chapter, I conducted the selection and sampling of the data for this study. With the data sampled according to the survey list, I tried in the fourth chapter to find the specific features of news vocabulary through comparing it with everyday language and magazine vocabulary. In the fifth chapter, I compared the specific differing featur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news vocabulary.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developed around the proportion of word class of the vocabulary used in both countries' news, the common and differing features in the framework, the actual condition of utilization of basic vocabulary, and th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broadcast vocabulary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process of this study, I recognized that the news broadcasts select 'noun and verb' centered vocabulary, and also use very basic vocabulary. Both countries commonly use Chinese word centered vocabulary in the word species.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vocabulary use. For example, Korean news used vocabulary such as “collect (chuijaehada), reporter(○○○gi-ja), exchange rate tendency (si-sea), mixing (hon-hap), and worry (guen-sim)”. On the contrary, Japanese news used words such as “inform (otutaesuru), sir (○○san), exchange rate tendency (souba), mixing(konnyu), and concern(kenen)”. These expressional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vocabulary might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a modern comparative vocabulary study and may be helpful in understanding Korean and Japanese broadcast vocabulary.

附 錄

【부록 1】 어휘목록표 81

【부록 2】 NHK뉴스 4편 87



【 부 록 1 】 어휘목록표

1) KBS 뉴스 어휘

	표 제 어	7/24	7/27	8/3	11/9	평균빈도	비 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1	것	41	31	29	42	36	
2	오늘	23	28	46	23	30	
3	KBS 뉴스	28	26	27	28	27	
4	기자	22	24	25	29	25	
5	등	30	25	20	18	23	
6	수	27	24	18	15	21	
7	받다	28	21	14	3	17	
8	하다	17	15	19	11	16	
9	오다	17	16	9	14	14	
10	때문	11	10	12	21	14	
11	되다	8	23	16	7	14	
12	대하다	21	8	8	9	12	
13	취제하다	12	14	9	7	11	
14	경찰	17	13		11	10	
15	보다	3	14	13	9	10	
16	보도	12	10	11	5	10	
17	은행	20		11	7	10	
18	사람	19	3	5	11	10	
19	발견하다	3	11	11	10	9	
20	밝히다	5	11	11	12	9	
21	이번	5	18	4	7	9	
22	내다	10	2	10	11	8	
23	경우	13	6	3	10	8	
24	정부	7	11	3	7	7	
25	확인하다	3	10	7	8	7	
26	문제	16	4	3	5	7	
27	검찰		5	12	9	7	
28	국회	3		17	6	7	
29	대출	3		12	10	6	
30	실시하다	4	5	12	4	6	
31	병원	4	4	2	14	6	
32	구속하다	9	7	3	4	6	
33	계속하다	3	4	9	7	6	
34	가다	8	4	6	4	6	
35	실종자			22		5	
36	찾다	3		10	8	5	
37	처음	12	3	3	3	5	
38	택시				21	5	
39	열다		12	4	5	5	
40	회사	3	7	4	7	5	
41	주민	6	5	7	3	5	
42	사실	7	5		8	5	

	표 제 어	7/24	7/27	8/3	11/9	평균빈도	비 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43	불법	8		7	4	5	
44	돈		7	8	4	5	
45	보도하다	2	3	4	10	5	
46	고객	5		8	5	5	
47	박세리		18			5	
48	드러나다	7	2	2	6	4	
49	적발하다	5	7		4	4	
50	사고	3	4	2	7	4	
51	결과	7		6	3	4	
52	예금			10	6	4	
53	들어가다	7		4	4	4	
54	수사		8	4	3	4	
55	국내	6	8			4	
56	대통령	14				4	
57	당		10	3		3	
58	시작하다		5	5	2	3	
59	내리다			12		3	
60	관련하다	2	2	5	3	3	
61	가스		12			3	
62	이자	5		4	3	3	
63	시신			12		3	
64	개혁		5	4	3	3	
65	바다			12		3	
66	경제		5		7	3	
67	일본	11				3	
68	기업	8			3	3	
69	금리			11		3	
70	예약	11				3	
71	아파트	3			8	3	
72	조사하다	2		4	5	3	
73	소환하다	4		7		3	
74	개발하다	2	9			3	
75	기대하다	2	8			3	
76	전하다	3	2	5		3	
77	우리나라	4	3		3	3	
78	작업			10		3	
79	의원			10		3	
80	헬기			10		3	
81	가능성	3		2	5	3	
82	소식			4	6	3	
83	방사선				10	3	
84	규모	6	4			3	
85	물질				10	3	
86	가계대출				10	3	
87	설치하다	2	5		2	2	
88	선출하다	3		6		2	
89	적자	6			3	2	
90	보험금		9			3	

	표 제 어	7/24	7/27	8/3	11/9	평균빈도	비 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91	예정	9				2	
92	우유		9			2	
93	투표			9		2	
94	사기단				9	2	
95	협상				9	2	
96	회담				9	2	
97	영수증		8			2	
98	비리			8		2	
99	방법	8				2	
100	세계			8		2	
101	불		8			2	
102	지급	5	3			2	
103	판결	8				2	
104	이유				8	2	
105	확정하다	6	2			2	
106	늘다			4	4	2	
107	요구하다	8				2	
108	주다		8			2	
109	검토하다	8				2	
110	갖추다	2	2		4	2	
111	잇따르다		3	5		2	
112	알다	2	2		4	2	
113	확대하다	3	3	2		2	
114	단속	7				2	
115	경기				7	2	
116	구조			7		2	
117	폭주족	7				2	
118	우려하다	3	2		2	2	
119	넘다		5		2	2	
120	야당			4	3	2	
121	유람선				7	2	
122	부도	5		2		2	
123	환자	7				2	
124	떨어지다	2	2	3		2	
125	주장하다				7	2	
126	제출하다	7				2	
127	대출하다	3		4		2	
128	제지하다				7	2	
129	계약금	6				2	
130	국산			6		2	
131	시장		3	3		2	
132	나서다			3	3	2	
133	이용하다	2	4			2	
134	발표하다	3	3			2	
135	개조하다	6				2	
136	협의하다	3	3			2	
137	말하다			6		2	
138	떠내려가다			6		2	

2) NHK 뉴스 어휘

	표제어	7/24	7/27	8/3	11/9	평균빈도	비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1	こと	70	46	50	46	53	
2	いう	105	26	32	18	45	
3	する	34	46	32	53	41	
4	なる	48	45	23	32	37	
5	日本	39	20	14	25	25	
6	今日	17	28	27	26	25	
7	の	31	26	21	17	24	
8	ある	23	23	17	29	23	
9	オブチ	63		10	7	20	
10	自民党	52	6	7	7	18	
11	もの	22	16	16	15	17	
12	總裁	61				15	
13	行う	17	15	12	14	15	
14	ため	17	11	17	10	14	
15	市場	20	15	10	4	12	
16	中	7	16	18	7	12	
17	選挙	29	12	3	3	12	
18	警察	2	19	10	14	11	
19	見る	12	16	8	8	11	
20	よる	3	16	12	12	11	
21	経済	17	9	15	1	11	
22	行く	18	2	7	13	10	
23	事件		14	25		10	
24	カレー		24	14		10	
25	示す	21	10	3	7	9	
26	東京	6	5	16	8	9	
27	對する	14	9	6	6	9	
28	政府	8	8	6	12	9	
29	進む	8	12	6	8	8	
30	今回	11	12		8	8	
31	政策	13	6	3	9	8	
32	述べる	10	7	2	11	7	
33	思う	20		9		7	
34	中心	5	11	5	6	7	
35	受ける	12	7	7	1	7	
36	役人人事	26				7	
37	入る	11	8	4	3	7	
38	始まる	4	10	6	6	7	
39	なべ		12	13		6	
40	選手		8	16		6	
41	毒物		12	9	3	6	
42	今後	11	4	6	3	6	
43	支持する	1		11	11	6	
44	決まる	10	7	4	2	6	

	표제어	7/24	7/27	8/3	11/9	평균빈도	비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45	國民	14	3	4	2	6	
46	問題	7	3	5	7	6	
47	續く	8	3	4	7	6	
48	作る	4	8	6	3	5	
49	内閣	7		8	6	5	
50	開く	4		10	7	5	
51	調査		2	4	14	5	
52	對策	13	2		5	5	
53	中國	9	6	2	2	5	
54	野黨	7	5		7	5	
55	政權	11		8		5	
56	アメリカ	6	3		10	5	
57	求める	2	3	6	7	5	
58	お傳へする	3	7	8		5	
59	株式	6	6	4	2	5	
60	以上	5	6	4	2	4	
61	結果	9	5		3	4	
62	考え	6	4	5	2	4	
63	景氣	10	3		4	4	
64	搜查		8	9		4	
65	關係	9		3	5	4	
66	影響	3	3	2	9	4	
67	含む	3	7	5	2	4	
68	混入する		10	6		4	
69	人		4	5	7	4	
70	動き	6	5	3	2	4	
71	國會	7	4	4		4	
72	まとめる	5	4	2	4	4	
73	人事	13	2			4	
74	置く	2	8	5		4	
75	値下がる		4	11		4	
76	爲替	6	3	3	2	4	
77	卵		14			4	
78	基準	4	3	7		4	
79	法案		4	7	3	4	
80	投票	10	4			4	
81	販賣		7	7		4	
82	靑酸加工物		14			4	
83	國際	6	3		4	3	
84	答える		2	3	8	3	
85	傳へる	5	3	2	3	3	
86	必要		5	3	5	3	
87	調べる		7		5	3	
88	注目する	10	2			3	
89	逮捕する			4	8	3	
90	越える	8	2	2		3	
91	狀況	3	4		5	3	

	표제어	7/24	7/27	8/3	11/9	평균빈도	비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92	證券		8	4		3	
93	改革	5		7		3	
94	株價		3	6	3	3	
95	党	12				3	
96	使う		6	5		3	
97	協力	5	3		3	3	
98	政黨	4		3	4	3	
99	上がる			7	4	3	
100	持つ	2	5		4	3	
101	地方		11			3	
102	寫眞		6		3	2	
103	現在		4		5	2	
104	ひ素			9		2	
105	金融	9				2	
106	強盜			9		2	
107	開發		9			2	
108	海外		4		4	2	
109	會社			5	3	2	
110	見込み				10	3	
111	スマートガン				10	3	
112	配當				10	3	
113	相場	2	2	4	2	3	
114	疑い			4	6	3	
115	混入		6	3	1	3	
116	外國	3	3	3		2	
117	水準		3	6		2	
118	調べ		4	3	2	2	
119	關心	6	3			2	
120	夏祭り		5	3		2	
121	現地	4			4	2	
122	サルモネラ菌		8			2	
123	體制	8				2	
124	環境ホルモン				7	2	
125	與黨	7				2	
126	技術			4	3	2	
127	協議				7	2	
128	稅制	3		2	2	2	
129	世界		4	2		2	
130	回復	4		2		2	
131	株		3	3		2	
132	掛念	3	3			2	
133	經營		3		3	2	

【 부 록 2 】 NHK 뉴스

【7月24日】

こんばんは。 7月24日金曜日夜7時です。

自民党の新しい総裁に小淵外務大臣が選ばれました。

自民党の総裁の選挙は今日行われ、小淵外務大臣が有効投票の過半数を獲得し、第18代の自民党総裁に就任す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

これを受けて小淵新総裁は党の役員人事などの検討に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 自民党の総裁選挙は今日午後開かれた両院議員総会で党所属の衆参両院の国家議員と都道府県での代表者によって投票が行われました。 今回の総裁選挙は前官房長官のかじやませいろう氏、厚生大臣の小泉じゅんいちろう氏、外務大臣の小淵けいぞう氏の3人の争いとなりました。

<かじやませいろう君102票、 小泉じゅんいちろう君84票、 小淵けいぞう君225票であります。 >

小淵氏が一回目の投票で有効投票の過半数を獲得し、第18代の自民党総裁に就任す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 小淵氏は自らなにかいちょうをつとめる旧小淵派に比べ、旧官房派や旧渡辺派などにも支持をひろげ総裁選挙戦を有利に進めました。

「私自身能力でこえますけれども、 党のため国家のため力をつくしてこの難局を乗り越え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

この後自民党は役員会と総務会を開き、党の役員人事を小淵新総裁に一任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 これを受けて小淵新総裁は党の役員人事などの検討に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それでは、自民党本部から中継でお伝えします。

(自民党本部です。 小淵新総裁は総裁に選出された後、 なかそ元総理大臣や宮沢総理大臣など党の総裁経験者へのあいさつまわりを行いました。 また、 旧小淵派のかじやま山崎政務調査会長のグループの会合に出席し、 支持を受けたことに対する感謝の気持ちを述べました。 小淵総裁は今後役員人事などの検討に入ることにして、 各方針記者団に対して今日中に決めるかかは別にして人事にはなだちを看したと述べました。 一方、 党内には旧派閥の統合など総裁選挙の影響を見極めた上で人事を行へさという意見も出ており、 小淵総裁はこうした意見も踏まえて人事を慎重に判断するものと見られます。 今後景気対策や金融問題への取組みなど課題は山積して、 小淵総裁が今後総裁選挙後の党内融和を図りたい課題にも新執行部をどのようにつけて行かなくてはならないか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自民党の小淵新総裁は今日夕方記者会見し、 党役員や閣僚人事について、 選材適所や党内融和を基本に選挙体制を確立して行き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経済問題を含めればわが国にたいして大変厳しい環境の中です。 責任の重さを深く痛感しております。 責任の重さを深く痛感しております。 て、 人事につきましては選材適所として党内融和と同時に、 これは党の人事もどうかが、 その他のものはいりません。 党内外の人事もそうした方々の協力をとめながら、 党のためそして日本のためにも、 とどかさしいかつ強力な布陣を引い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

また小淵氏は総裁選挙を戦いかじやま前官房長官と、 小泉厚生大臣の省務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ました。

<極めて大変な戦いであり、 かつその後遺症として、 残ることはありえ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おそらくお二人ともです。 異なる立場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別として、 少なくとも協力していただければい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

また、 税制改正について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ます。

<基本的に13万兆円ほどの所得者に対するいわゆるやはり負担というのが国際的にも非常に高いものになっていると国民の皆様の中に高額所得者の税率を下げるということになる金持たる優遇に自民党は手を貸すかという厳しいご批判も一方にはあったのであってその辺はですね、 手をふれないというあたりの中で税制構造ができてきたと、 しかし今や時代が変わってきてあるという認識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というものの中で税制の眺みその他についてこれら考えなければならぬ人じゃないかと。 >

小淵氏はこのように述べて所得税の最高税率の引き下げや税率構造見直し、 それに方針税率の引き下げなどであわせて6兆円を超える規模の恒久減税を実施する考えを示しました。 また、 国会での野党との連携については次のように述べました。

<政府ですとね、 法律案を作ってほしいというその国会対策的な面でも協力をお願いするということよりもむしろ政策の図りを通じてですね、 野党のみならずと話し合っていく中で、 政府の提案になる以前にもですね、 どの協力を求められるような政策になるか、 その政策としてその内容について話し合え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ようにとですね、 これが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

総裁選挙に敗れたかじやま前官房長官は総裁選挙の後支持者を前にあいさつし、 かじやま氏を中心に新しい政策集団を構築させる考えを示しました。

<率直に言って50票の応対はつくればこれからの政治活動の同志の輪が広がる。 それを今は願ひながら語ってまいりました。 本心に党を心配する最前線の方々やそれだけ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なんと一回目でも過半数を獲得すればそれが本心に努力しました。 候補者自身も頑張ったという結果でありました。 総裁候補としてはきり私を支持してはくれた国民のみならず方々がなにかはんとした事情状況に満足できない意思で奉任している怒りも似たこの思いをなんとして政治の社会が果してはなれば私たちの責任は果せない訳であります。 私は今日出陣の原動力としてこれから全力を尽くすことをお誓い申し上げます。 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ればおおいに日本を愛し我々の将来をちゃんとするためにスクラムを組んで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し、 私もその先頭に立つことをお誓い申し上げて礼のごあいさ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かじやま氏はこのように述べ新しい政策集団を構築させる考えを示しました。 かじやま氏を中心とするグループは会合を開いて今後のグループの運営について協議しています。

一方、 小泉厚生大臣は記者会見で次のように述べました。

<私が有権者の自民党の議員として一番いやなことを言ったわけだからその反撥がでたんじゃないか 国会議員の定数を300、 150にすると議員幅に減らすとか、 地方各場の役人を十年に半分とか、 本心にいやがることだから、 最終的に結果的に見ると私を受け入れるような自民党じゃないというのが現実じゃないかな。 敗れたとはいい、 総裁候補としてはきり私を支持してはくれた国民のみならず方々がなにかはんとした事情状況に満足できない意思で奉任している怒りも似たこの思いをなんとして政治の社会が果してはなれば私たちの責任は果せない訳であります。 私は今日出陣の原動力としてこれから全力を尽くすことをお誓い申し上げます。 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ればおおいに日本を愛し我々の将来をちゃんとするためにスクラムを組んで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し、 私もその先頭に立つことをお誓い申し上げて礼のごあいさ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小淵氏、 かじやま氏、 小泉氏を支持したそれぞれの陣営の議員は次のように話しています。

<今度の総裁選挙が3人で争われたということはとてもよかったです。 そして3人が三様の政策を語って、 そして自分ならこうするということも国民のみならずかならずに生きていくには必要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なんと一回目でも過半数を獲得すればそれが本心に努力しました。 候補者自身も頑張ったという結果でありました。 本心に大変ありがたそ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大変厳しい選挙であったが非常にさわやかな結果が出た。 私は思っています。 そしてこの結果については極めて厳しく受けとめてみます。 新総裁が決まった以上ね、 選挙いちでやると、 やり今度はね、 みんなでね、 かじやまさん小泉さんそれぞれ重要なポストに入ってもらって、 しっかりと責任と力を含めてはさきりってだれかやっても難しいんですよ。 かじやまさんがやっても難しいんですよ。 そいいう面での自民党の留置という人材をですね、 選材適所ですとやはり吸い上げてほし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私どものあるいは力動というか、 ちょっと不平等な結果には終りたけどもね、 正々堂々と戦った訳ですから、 選挙体制で自民党を守り、 そして日本のための政治をやりたいかなきゃ。 小泉さんに対する国民のやはり大望論。 大望というふうには大変広まったと思っておりますから相当さす必ずしもさすと思っておりますから、 ぜひ小泉さんにはさす激励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

自民党の新しい総裁に小淵氏が選ばれたことについて野党各党の反応です。

<結局のところは従来の派閥主導によるつじ総裁のものか注目している中途半端な政権をつくって改革を先置するよりも思いつく国民のみならずに政権の選択を任せるとさういふ機会をできるだけ早い時期に作るかこれは自民党にとってもあるいは私たちが民主党や野党にとってもですね、 そのことが国民のみならずに義務である。 予想通り小淵新総裁が選出された訳であります。 で、 これは橋本内閣の過剰な経済政策を推進した責任者の皆さんが自らの権力保持のために橋本さんという頭をとりかえただけの純然たる橋本派の総裁である。 自民党の小淵新総裁が即ちに国民の真意を得た新総理に足りうる正当性には破局だと、 従来の派閥の論理がつかぬかといふことかしたものでありまして、 参議院選挙によって示された国民の審判、 国民の訴えに自民党は理解しているのかとさういふ疑問を生ずるところであります。 また小淵氏につきましてもさういふ点で、 現在の日本がおかれている大変深刻な経済危機を本心に克服できるのかさういふ疑問のあるところでもあります。 自民党の総裁の中でもこれほど内外の失望をもたせられた方というの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国会冒頭でも、 首班指名選挙で国会の解散総選挙という一戦の仕事をこなすという点で合意が成立するならば、 これは同一の首班指名選挙に用いる用意があるということでは彼らが言ったとおりで道理です。 >

選挙現場で今後の国会に対して行きたいと、 世間でのいろいろなことは関係なく長田町ですと、 よみがあつたそのおりの結果になったようです。 だから自民党はひとつも変わらないと、 自民党がたの運び方をすればさういふことだったんじゃないですが、 今度ですとね お3人全部内閣の重要閣僚だったわけですから、 こでかわりわらうというがですね望まれない。 >

改革クラウの石田幹事長は今回の自民党の総裁選挙では与論とかけ離れたなごたごたの論議で総裁が選ばれるという旧態依然の自民党の姿が改めて明らかになった。 小淵氏は総裁選挙の公約として6兆円の恒久減税や財政構造改革法の凍結などを打ち出したが、 我々の政策のとおりにすぎない上、 減税の規模も我々の主張より小さい景気対策として十分なものになるか疑問だといふ談話を発表しました。

<日本のさすまい危機がこれまで政権を担う自民党に認識されているのか今回の総裁選挙を見るかぎりではなかなか疑問い感じかいたします。 参議員に示された国民と論議の議席とですね、 矛盾が大きい時にはですね、 ひとさわやばり新総裁は早く国民に真意をとうべさ。 橋本内閣を支えてきた執行部が選出された新総裁がどれだけの民意を反映させたのかはなはた疑問であります。 また橋本内閣の経済失政への反省もまったく見られません。 国民の民意をきかされた新総裁は当然のことながらの混迷の日本をきり開く力強い将来展望も示せず、 また国民に希望もあてることができた訳ではないけど工夫しております。 30日に召集される臨時国会の首班指名選挙では自民党と団結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

自民党の新しい総裁に小淵氏が選ばれたことについて野党各党の反応です。

それではスタジオ政治部の井上記者に聞きます。

「井上さん、 三人の候補をめぐって選挙戦が駆け回らる中で自民党の中でもさまざまな動きがあったわけですが、 就任の記者会見の中であつたように、 小淵新総裁のもとで自民党は選挙体制で臨む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そうですね。 今回の選挙は7年ぶりというですね。 選挙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各陣営旧派閥のわくを越えただでさすなにかいになったわけですね。 結局小淵さんが過半数一回でつて新総裁に選出されて決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かじやまさんは100票あまりそれから小泉さんも80票あまりの票をとりました。 小淵さんは記者会見ですとね、 党役員

人事や組織についてはですね適材適所党内融和を基本にしたいと述べており、今回選挙で争った小山さんや小泉さんの支持グループも含めて党体制を組み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ただ今回の選挙戦の過程ではですね、都市府の若手議員だから小淵さんでは次の衆議院総選挙はたたかえないと反発する動きがでましたし、後、先ほどもありましたように今回の選挙結果を受けまして、小山さんがですね、新しい政策集団を醸成させたいという考えなどを示していますね。」

「その意味では本当に党体制で行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意味ではこの人事というのが注目されるわけですが、この人事につきましてはその先の参議員選挙で「NO」と言われたその自民党が本当に変わるのかというそれをみる上でもやはり注目されますね。」

「そうですね、小淵新総裁はまだ当選役をはじめた役人人事ですね、それから30日の総理大臣の指名選挙を受けた後の選出された後の組織これにむけてですね、体制作りを進めることになるんですけどもこうした今回の選挙戦でですね、生じた党内たい文あるいは規律といったのをどう承服していくのか、具体的にはですね、人事文治にどういう態度をとるのかこれが注目されます。自民党をとりま状況はですね、参議員選挙の敗北それから支持率の低迷とかってないほど厳しいと言われておりまして最大の政策課題である景気対策を促進するためには、もう党体制を組むということが欠かせないですね。したがって小淵新総裁に託された役員人事それから組織ですね、小淵さんは選挙期間中からですね、民間の方からも積極的に投票したいあるいは派閥陣を組む人事はしないと言っておりますのでこの組織の顔ぶれがどういふふうになるのかこれが注目されます。」

「その意味ではほんとに党体制で行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意味ではこの人事というのが注目されるわけですが人事につきましてはその先参議員選挙で「NO」と言われた自民党がほんとに変わって行くのかというそれを見る上でやはり注目されますね。」

井上記者にまた後でお願いいたします。

小淵新総裁のこれまでの経歴をまとめました。

(小淵けいぞう氏は昭和12年に群馬県中野上町に生まれました。父親も衆議院議員を二基つとめた政治家でした。26歳で衆議院きゅうんまんさんから立候補し当時最年少の初当選を果たしました。

「青年小淵に対する全局の方々の出来立てを思いつ時にこれからそのご期待に答えて行くことの責任をひしと感じておる訳でありまして、小淵氏と同じ衆議院旧郡馬3区には故福田元総理大臣やなかね元総理大臣がいました。」

自らビルの谷間にいたというように比較的地味な存在でした。

竹下元総理大臣が総政界を旗上げ小淵氏は中心メンバーとして参加し橋本総理大臣や山前官房長官自由党の小沢こしゆ等と共に旧竹下派のななぶよと呼ばれました。昭和62年に足立した竹下内閣では官房長官に起用されました。

自民党では幹事場、すく総裁をつとめ平成7年の総裁選挙では橋本総裁の実現に力をつきました。去年外務大臣に就任してからは日本とロシアの関係改善などに取組みかくな橋本総理大臣を支えてきました。

では、小淵氏の地元表情です。

群馬県の中野上町では300人を超える支持者が集まって新総裁の誕生を祝いました。

小淵氏の地元、群馬県中野上町、いせ町事務所には支持者およそ300人が集まり、総裁選挙の行方を見守りました。そして、小淵新総裁の誕生が決まると、支持者の間から大きな拍手と万歳がわきあがり出た。その後かみわりが行われ、支持者全員で乾杯して新総裁の誕生を祝いました。

<難しい仕事ではあられとも小淵代議士にしてみれば必ずやりとげられるという自信を持っ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んで私も全面的な支援協力を惜ま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外国為替市場と株式市場の反応です。今日の東京市場は自民党の総裁選挙をうけて小淵氏が日本経済の立て直しに本格的に取り組むという期待感が広がって、円相場と株価が共に値上りしました。

(景気対策や金融システムの立て直しに今度こそ大胆に取り組んでほしい。東京市場の円と株の値上りは小淵新総裁への強い期待感を示すものです。今日の東京外国為替市場は自民党の総裁選挙を受けて円を買う動きが広がり午後5時時点では昨日より1円14銭円高ドル安のドル140円53銭から55銭でした。又、東京株式市場の平均株価は昨日の終り値より173円88銭高い1万6千361円89銭でした。市場関係者は自民党が参議院選挙で大敗した直後に新総裁は金融機関の不良債券の抜本的な処理を進め恒久減税などの景気回復のための思いきった政策をうたうと期待しています。しかし海外の投資家を中心に新しい世界もこれまでと同じように強いリーダーシップはほしいのではないかといい見方も根強く残っています。新総裁が具体的な政策を速やかに実行に移す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事情はこの一点に注目しています。)

為替の動きですが、その後どう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ロンドンから中継です。

(ヨーロッパの外国為替市場では一時円が売られて1ドル141円代後半で取引されたものの、現在は1ドル140円代での小刻みな取引が続いています。これについてヨーロッパの市場関係者は小淵新総裁の決定は大方の予想通りだったと市場は受けとめている、市場は来週に行われる閣内閣で大蔵省大臣などの重要閣僚に誰が就任するのかを見極め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話しています。EU(ヨーロッパ連合)の通貨統合まで後半月にせまったヨーロッパではアジア経済の混迷がヨーロッパ経済に及ぼす影響に対する懸念が広がっています。それだけにヨーロッパ各国とも今回の日本の政権交替には極めて高い関心を示しています。ヨーロッパでは新しい日本の政権が有効な経済政策を実行しアジア経済の混迷に歯止めをかけ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非常にこの一点に関心が高まっています。)

一方、アジア各地の株式市場は日本の景気対策への期待感もあってやや値上りしました。ホンコンの株式市場では午後になって総裁選挙の結果が伝えられた後は、じわじわと値上りし、昨日の終り値に比べて0.9%あまり値上りして取引を終えました。またシンガポールやマレーシアなどの株式市場でも小幅ながら値上りしています。市場関係者は小淵新総裁が景気対策や不良債券の本格処理策など、実行できればアジア経済の安定にも効果が期待できるという見方もあって、市場はとりえず安定した動きを見せているこうした流れが続くかどうかは今後の日本の政局や閣内閣人事に次第があります。

経済会の反応です。経団連の今井会長と日経連の根本会長は次のように話しています。

「こういうふういですが、やはり景気の回復にですね、取組んでいただきたい、特にですね、今問題になるのは昨日私ともがですね、提言いたしました金融の再生問題これが非常に重要です。これは、しかし臨時国会の閣内閣法律案を通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この点につきまして一刻も早く案をまとめて野党の各派と話し合いをして臨時国会で通してもらいたい。それからその次の抜本的な税制改革ということが以前からまとめてもらいたいと思えますね。まず、第1次補正でもうすでに5月の半ば決められた16兆6千億の総合景気対策の執行に全力をあげるとして小淵さん選挙の中間で言われたようなだいたい補正としての10兆円これを十分に検討しながら今度は99年度の子算の基準設定これに入るわけですね。で、そういったものを総合的にやらなきゃならない。それで後恒久減税の問題についてはですね、すでに税調及び与党の税調も動き出しているわけで、まずこれも早く進められて私にはできることでありましたら来年から恒久減税に入るといような体制を持って行くということぜひともお願いしたい。」

続いて海外の反応です。ワシントンとモスクワそれぞれにベキンからです。

(アメリカ市場は小淵外務大臣が自民党の新しい総裁に決ってまだ時間がたっていないこともあって公式の声明などは出していません。有力ワシントンポストは総裁直後の社説で市場が期待するから山、国民の期待を似合う小泉と両者を評価する一方で党内のボス達か望む小淵と論評しました。このようにアメリカでは小淵氏がみずおる混迷を日本経済をた直すことができるのか、総理としての資質を問う見方がきています。とりわけ国際金融市場には小淵氏が重要な経済政策の策定になんらかが変わってこなかった。そしてその政治的なり器量に不安を示す意見もあることから小淵氏の総裁就任で市場が果たしてどんな反応を示すのかが関心を集めています。自民党の総裁選がかってないアメリカの関心を集めたのも日本の新しい総理が金融システムの改革に果敢に取組まない限り好調のアメリカ経済までが金融不安の火の粉をかぶり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あるからに外ありません。クリントン政権は小淵新総裁は日本経済の再建に取り組む決意と能力を持っているのかという国際社会の懸念を払拭の改革と恒久減税を含めた景気対策に大胆に取り組むよう強く望んでいます。

自民党の新しい総裁に小淵氏が選ばれたことについてロシア政府は小淵氏が橋本政権の本で外務大臣として日・(ロシア)関係を積極的に進めてきたことからこれまでの日本の対ロシア外交が今後も基本的に維持されるものとみて歓迎しています。また、テレビも総裁選挙のニュースを大きく取りあげ、小淵新総裁の選出はロシアにとって今度も日・(ロシア)の平和友好関係が縮くことを意味する好意的に伝えました。しかしロシアの専門家の間にはこれまで橋本・エルチン両首脳間の個人的信頼関係を軸に進められてきた日・(ロシア)関係の発展のテンポが一時的に落ち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という見方も出ています。小淵新総裁は橋本総理大臣と共に日・(ロシア)関係を積極的に進めてきた人物としてロシアでもよく知られています。ロシア側は橋本・エルチン両首脳間のイニシアティブで始まった日・(ロシア)関係のイニシアティブな動きが今後も維持され定着して行くことを強く期待し日本側の今後の出方を見守っています。

自民党の新しい総裁に小淵外務大臣が選ばれたのを受けて中国は新しい内閣が戦後最悪の不況を打開するためのような経済政策を打出すかに注目しています。中国のしんか通信は今日行われた自民党の総裁選挙の結果を東京発の至急電でいち早く伝え、中国の強い関心をうかがわせました。中国のメディアは今回の総裁選挙について3人の候補者の経済政策を中心に異稿の詳しさを報道し、小淵氏については性格が大輪で調整能力が高いが経済分野での経験が少ないなど人物評を伝えています。中国のメディアは中国のこのころの不安が中国の輸出を圧迫していることと日本を非難してきており、小淵氏が総額6兆円を越える消費税減税などの景気対策をどこまで実行に移し安んずるかを懸念する見方を示しています。また小淵氏は外務大臣をつとめている上、これまでたびたび中国を訪問していることから中国は日本の対中政策が大きくかわること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中国としては今年9月に予定されているコウ・タクシン国家主席の訪日に向けて近く見守る新しい内閣の間で首脳会談の準備を急ぐことにしています。)

自民党の総裁選挙に立候補した3人の今日1日の動きをまとめて ごらんいただきました。

再び、井上記者に聞きます。

「井上さん、今後の日程なんですけれども今日自民党の新総裁に小淵氏が決まりました今度は総理大臣を決める総理大臣指名選挙があるわけですね。」

「そうですね、自民党は来日野党側にも今月30日に臨時国会を召集してですね、ここで総理大臣の指名選挙を行うことを提案しました。それからこの日程に対してはですね、ごらんのように来月の7日ごろに総理大臣の所信表明演説を行って次の週の10日以後に所信表明演説に対する各党の代表質問を行うという提案をしています。これは野党は一持ち帰って返事を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して、このまの日程で決まると来月からですね、いわゆる論戦が始まることとなります。政府自民党としてはですね、この臨時国会の快挙ですね。2か月というちょっと長めの快挙として不良債券処理のためのほねわそれから恒久減税実施のための法案の早期条文を目標して行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ところがですね、参議院選挙の結果を受けて参議院は現在過半数に足りていない状況なんです。これまで自民党は社民党と協力をし、その数を補って来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今はゼロからのスタートで野党と協力をせざるべか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れは非常に厳しい国会運営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一方野党側はこの臨時国会では体系姿勢を固めて民主党政権が解散総選挙に追い込むという構えを見せております。またその一方で先ほどのリポートでもありましたようにアメリカを始め海外の日本の景気対策の早期実施を求めきびしい目が注げられ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わけになります。」

井上記者でした。以上自民党の新しい総裁に小淵外務大臣が決ったニュースをお伝えしました。

では次です。東京の小田急線の沿線の住民が電車の騒音被害を訴っていた問題で国の公害等調整委員の裁定が示されました。公害等調整委員会は電車の高級性を考えても70デシベルを超える騒音は違法だとして、総額950万円あまりの損害賠償を支払うよう小田急電鉄に命じました。この問題は東京の私鉄小田急線の沿線の住民224人が電車の騒音で深刻な被害を受けていると主張し、公害をめぐる紛争の解決のために設けられている国の公害等調整委員会に申立てしていたものです。今日示された裁定で公害等調整委員会は小田急線では早朝5時ごろから深夜1時ごろまで、800本近い電車が休みなく運行されており、住民は騒音によって睡眠妨害などの被害を受けていると述べました。その上で平均で70デシベルを超えていたり、最大で85デシベルを超える騒音は電車の高級性を考えても、沿線の住民が耐えるべき限度を超えているという判断を示し、沿線の住民34人に一月平均3千円、総額で950万円あまりの損害賠償を支払うよう小田急電鉄に命じました。今日の裁定は都市の鉄道の騒音について初めて公的な基準を示したもので、今後他の鉄道の騒音対策にも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ります。(この家の一日の騒音の平均は73デシベル公害等調整委員会は示した70デシベルの基準を上まわっています。こうした騒音は小田急線だけの問題だけではなくあります。東京都が去年行った騒音調査でJR東海道線と山手線でも裁定で示された70デシベルを上まわる騒音が測定されています。都市を走る鉄道は混雑を緩和するためにこれまで電車を本数を増し、速度をあげてきました。一方で電車を遅くするなどの騒音対策も進められてきましたが十分な成果は上がっていません。これまで公的な基準のなかった鉄道の騒音について今日の体系が70デシベルという基準を示したということで鉄道各社は一層の騒音対策を迫られています。)

次にあさって投票が行われるカンボジアの総選挙は今日が選挙運動最終日です。選挙戦はフンセン第二首相の自民党ラナリット前第一首相のフンシンベック党 サムランジ前財政経済相のサムランシン党の床上三つ争いの争いとなっています。(選挙戦の嵐風の目となったサムランシン党の集会場です。1万に近い市民が集まりサムランシン党の都市部での人気を申しあげています。選挙戦は当初フンセン第二首相の人民党が一歩リードした形で始まりました。しかしサムランシン党が徹底した政府非難で急速に意地を広げたのに対し人民党は伸び悩んでいると伝えられています。また前首相となったラナリット氏のフンシンベック党もばらばらになっていた党組織をなんとか立て直そうと精力的な活動をつづけて選挙戦は三つ争いの争いとなっています。最終盤の情勢は混沌としておりいずれの政党が立っても一つの政党が単独政権樹立に必要な全体の三分の二の議席を確保するのは極めて難しい情勢です。このため選挙戦は第一党となつた政党が主動して連立政権作りが行われるものとみられます。カンボジアの権力そのものといえる軍暴力と警察力を基盤に人民党が再び第一党になれなかった場合連立政権作りで困難も予想されます。去年7月の武力衝突で失った国際社会の信頼を回復し安定した政権を樹立できるかどうかカンボジアの総選挙はあさって投票が行われ今月末にも体制が判明する見通しです。)

次はスポーツです。(はい、ワールドカップフランス大会のため中断していたサッカーのJリーグが明日再会します。ワールドカップで中断する前のJリーグの順位です。優勝争いは上位5位まで候補がはばられました。4年前のJリーグ連敗以来タイトルから遠ざかっているベルデイコワサキが単独首位にたっています。2位のジェロロ田村から5位の清水エスパルスまでは勝点で並んでいて優勝争いは油断許しません。ではワールドカップが終了後のJリーグの課題について川淵三郎に聞きました。「ワールドカップの後のJリーグがどうなるかというのは今年サッカー会のひとつの注目点だと思っておりますが、日本の多くの人がテレビを通じてワールドカップ、そしてサッカーのすごさを感じたわけですね。そういった目の肥えたファンは今年日本のJリーグを見に来られるわけです。始めてサッカーを見る人もいっぱいいると思うんですね。そういった人たちに世界レベルと同じようなサッカーを見せろってのも無理ですね。一石二鳥、一石にそんなレベルがあがるわけありませんから。しかし、選手さんが本当に一生懸命最後まで諦めないでボールを失敗してもそれを取り返すために一生懸命ボールをそれをカバーするために頑張る。そして、誤ってファウルをして激しくぶつかった後には選手同士がきちんと握手をする。Jリーグが一番かけているのはそこです。そういったものを皆さんにもう一度思い返してもらってJリーグの初年度のように明日でもできるようなこのスポーツマンの基本姿勢をぜひぜひ目の肥えたファンも許してくれるとか興奮と感動を少しは下す手だけれどもそれはそれなりに面白いじゃないか。結局一生懸命やっている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サッカーに詳しいファンは定着していくところですね。」2002年をみせたJリーグ。この4年間のようにこうなっていられない。「4年間後にもう一度再演す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よ。その間Jリーグの人氣が落ちてなんかこういってJリーグになってこれまたあがるんじゃないか、その先に同じような経過をたどると思うんですね。少なくともこのフランスワールドカップから2002年に向けてJリーグはこのようなカーブでね。2002年に行きよければJリーグ観客通りのようなアップアップというものなければ日本サッカー、発展していかないと思っていますね。我々もしっかりそのことに対して万全の努力ということをしていかないとだめ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2002年のワールドカップに向けて多くのファンを引き付けるプレーをどれだけ見せることができかね明日からの試合に注目しましょう。スポーツは以上です。)

為替と株です。東京外国為替市場円相場午後5時時点では昨日より1円14銭円高ドル安の140円53銭から55銭でした。ロンドン市場では現在140円45銭から50銭で取引されています。一方、東京株式市場しよめいがらの平均株価の終り値は昨日より173円88銭高い1万6,361円89銭でした。

総いて気象情報の高田さんです。(こんばんは、日本列島になかなか本格的な夏がやってきません。天候不順が続いているというところ。それかといえますと例年ですと太平洋高気圧が日本の南東の海上にあって勢力を強め日本列島に広げ出してきてるんですね。このたびこのふきょうもある混った空気が日本に届きません。日ざしが照りつけて明日が厳しいというような状況になってるわけです。ところが今年はどうかといえますとご覧のように高気圧の中心が例年より北の方に偏っているんですね。まことに混った空気が入りやすくなっています。それから西の方では大きな大気の流れが蛇行して西の風が入りやすくなっていますので、日本の南の方で雲が発生しやすい型を築いてきています。日本列島の周辺はまだまあ悪夢がたぐん残っ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雨の様子です。広い地域で雨になっています。紀伊半島や青森で20mm前後とやや強いです。そして朝、予想気圧配置です。大きな気圧配置の変化はありません。西の方の低気圧、ゆっくと九州に近付いて、前線が九州にかかっています。それから別の前線は北海道の方に北上して行きます。南東海上の弱い熱帯低気圧、これより少し北の方に上がって行きます。全体的に言いますと、混った空気が入って日本列島は相変らず配置の状態は不安定なままでも局地的な強い雨というのは明日もまだまだ心配があります。情報を見てみましょう。九州、四国、雨で雷を伴って強く降るでしょう。関東から中関東地方でも次第に雨が降りやすくなる見込みです。新潟から北の日本海側では古れ間のところがあるでしょう。予想最低気温です。今朝と同じくらい雨が多いところが多いです。その後は高気圧に覆われて上空が広がって行きそうです。この頃になりますと連日のように30°Cを超える真夏日が各地で続きそうです。関東甲信地方は明日差が弱く、天気の方もすっきりしない状態が続きます。特に関東地方で日照不足が気がかりなところなんです。これが7月の中旬に入りましてから昨日までの日照時間の半年と日を見てもです。ご覧の関東おしよでは半年の33%、水戸でも53%など大体5割から7割くらい日照時間がないという状況です。どうしてかと言いますと天候が「暗く」なんです。ご覧のように例年より高気圧の中心が北の方に偏って混った空気がどんと入りやすいう形になっています。そして、南の方には弱い熱帯低気圧もあって、全体的に言いますとまだ関東附近では雲の発生が続くということで、これからしばらく日照不足が心配されるそうです。今日「気象庁」の方では日照不足と低温に關して情報をだして注意を呼びかけます。各地の情報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明日の予報です。新潟県は日中は時間が出ますが、夕方からくずれそうです。長野県も日中は晴れて、雨は小康状態、午後6時以後、雨になりそうです。これは上げつです。新潟は日中いっぱい晴れ、長野も日中は時間が出ますが、多くはご覧のように曇り空の一日です。予想最低気温です。今朝と同じくらいでしょう。半年並のところが多いですが、新潟は25°C、熱帯夜の様相になっています。予想最高気温です。関東の南部と伊豆諸島では今日より2-3°C低くなりますが、ほかは1-3°C高くなりそうです。新潟は30°C越えて翌朝、外の地域もむしろ暑くなりそうです。)

お伝えしてまいりましたように、自民党の新しい総裁に小淵外務大臣が選ばれました。自民党の総裁選挙は今日投票が行われ小淵外務大臣が有効投票の過半数を獲得し第18代自民党総裁に就任す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これを受けて小淵新総裁は党の役員人事などの検討に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自民党の総裁選挙は今日午後開かれた内閣議員総会で党所属の衆参両院の国会議員と都道府県での代表者による投票が行われました。今回の総裁選挙は前官房長官のよし山藤六氏、厚生大臣の小泉しんいちろう氏、外務大臣小淵けいしろう氏の3人の争いとなりました。小淵氏が1回目の投票で有効投票の過半数を獲得し第18代自民党総裁に就任す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その後自民党は役員会と総務会を開き党の役員人事を小淵新総裁に一任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これを受けて小淵新総裁は党の役員人事などの検討に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では今晩はこれで失礼いたします。

【7月27日】

こんばんは、7月27日月曜日夜7時です。まず、今夜のお伝えする主なニュースです。和歌山市内の自治会の夏祭りカーレースに青酸加工物が混入され4人が死亡した事件でカレーが配られる直前のおとこの午後6時すぎに味見をした人たちが中毒症状を訴えていたことから警察ではこの時間帯を中心に毒物混入の経緯について詳しく調べています。最後の将軍徳川氏のぶ・幕末に撮影されたものと見られる貴重な写真がいばらぎ町立れきん館で新たに確認されました。中には軍服や洋服姿など珍しい写真も含まれています。卵の賞味期限を表示する試みが今月から始まりました。サルモネラ菌による食中毒の防止が目的です。サッカーのイタリアの一部リーグセリエAのペルージャに移植した中田ひでと選手は9月の開幕戦に向けてチームとともにキャンプに入っています。世界最高峰と言われるセリエAで中田選手が力を発揮できるかどうかはこれから1ヶ月半近いキャンプの成果が分かっています。

まず、最初は和歌山市内の自治会の夏祭りカーレースに青酸加工物が混入され、4人が死亡した事件についてです。この事件でカレーが配られる直前のおとこの午後6時すぎに味見をした地元の人たちが、中毒症状を訴えていたことから和歌山県警察本部は、この時間帯を中心に毒物混入の経緯について詳しく調べています。(この事件はおとこの夜和歌山市内の自治会の夏祭りカーレースを食べた60人余りが吐き気や嘔吐などの症状を訴えたもので、自治会長の谷中かたとさんと高校生のいづみゆきさん、小学校4年生の林のひたか君、それに自治会副会長のたなかたかあきさんの4人が死亡しました。このうち2人は青酸加工物の中毒が

原因で死亡したことが新たに確認されました。現在も41人が入院して手あてを受けていますが症状は落ち着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これまでの調べでカレーのなべ3つの中の1つに毒物が混入されたことと見られていますがカレーを配る直前の午後6時すぎに地元の人数人がこのなべのカレーの味見をした際、吐き気や嘔吐などの中毒症状が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した。このなべは附近の住宅のガレージで作られたから会場まで配られるまでの間交替で地元の人たちがあつており簡単には毒物を混入させられない状況にあったということと警察では関係者が味見をした時間帯を中心に毒物混入の経緯について調べを進めています。）

カレーライスにはいつ毒物が入れられ、参加者に出されたのでしょうか。その経過をまとめました。（青酸加工物が混入されたことと見られるカレーライスは夏祭りの会場で出された3つのなべのカレーのうちの1つでした。3つのカレーライスのなべのうちの2つは祭会場のとなりの住宅のガレージで作られそこから200メートル離れた住宅でも引つこのなべのカレーが調理されました。ガレージでは地元自治会の人達十数人がおとこの朝から居にかけて2つの円筒形大きななべを使ってカレーライスを作りました。完成直後の正午すぎに味見をした時には異常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の後2つのなべはふたをしてガレージに保管された。祭りの始まる前の夕方4時、5時ごろに会場に運びこまれました。別の住宅で作られたカレーも運びこまれば3つのなべは会場のテントの中のコンロの上などに並べられました。なべの近にはつねに関係者がた立ちあっていたため簡単に毒物を混入できる状況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ところが午後6時すぎ一番右側におかれたなべのカレーを祭り関係者に配ったところ次々に中毒症状を訴えその場になおこむ人もいました。このカレーはガレージで作られた2つのなべのうちの1つでした。自治会の人達が最初に味見してから6時間の間にこの段階でこのカレーに青酸加工物が混入されたのか警察では詳しい経緯について捜査を進めています。）

それでは捜査本部の置かれている和歌山東警察署の前からお伝えします。（和歌山東警察署で。警察の捜査は主に2つの点を中心に進められています。1つは青酸加工物がカレーライスに混入された状況です。問題のカレーのなべは終始大勢の人が見守りに置かれていたことと警察ではいつどのようして毒物が混入されたのか詳しい経緯を調べています。2つ目はカレーに混入されていたと思われる青酸加工物を特定することです。警察ではカレーの食べ残しや死亡した被害者の胃の内容物から検出した青酸加工物の詳しい成分の分析を急いでいます。警察上は極めて毒性の強い物質で不特定多数の人を無差別にねらった悪質な事件と見て現場周辺での聞き込み捜査を続けるなど毒物混入事件の分析を進めています。以上中継でお伝えします。）

今回の毒物混入事件を重く見た厚生省は保健医療局長、幹部職員4人を急遽現地に派遣しました。4人は現地で到着次第入院している人たちの症状など現在の状況を把握し、適切な医療が行われるよう地元の関係機関を指導して行きます。また、事件発生直後の医療現場の対応や連絡体制などについて地元の関係機関と連携をとりながら捜査を進めていきます。一方、警察にもこうした得意な事件を担当する捜査一過の特殊事件捜査室長ら2人を現地に派遣しました。ところで青酸加工物は猛毒のため製造や販売などが法律で厳しく規制されています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盗まれたり犯罪に使われたりするケースがこれまでも起きています。青酸加工物が今回の事件でどのようにルートを通じて使われたのかという点の解明も今後の捜査の大きな焦点の一つになります。（青酸加工物は塩酸などの酸と反応すると猛毒となる外、大人の場合、口に入れてわずか0.15gほどで死亡すると言われています。厚生省などによりますと、このうち青酸カリウムは大学の研究室で薬品を分析する際の試薬としてごく少量しか使われていません。現在、製造販売されている青酸加工物の大半は青酸ナトリウムだということで主に食糧のナッキや合成樹脂などを製造する際の原料として年間およそ2万5千kgが生産されていて産業用に使われる場合には青酸ソーダと言われています。これらの青酸加工物は毒物及び危険物取扱い法で毒物として製造や販売、管理などが厳しく規制されていて販売する場合購入者の住所、氏名などの所定の用紙に記入させるよう義務づけられている外18才未満の少年への販売が禁止されています。しかし、平成5年の12月には埼玉県所か市のメッキ工場の倉庫から青酸ソーダ15kgが盗まれた外翌年の4月には（いばらき）茨城の町で電気器具のメーカーの工場から青酸ソーダ30kgが盗まれる事件も起るなど青酸加工物の管理体制は万全とは言えない面がありました。青酸加工物が今回の事件でどのようなルートを通じて使われたのかという点の解明も今後の捜査の大きな焦点の一つになります。）

自民党の新しい三役が決つた森幹事長、深谷総務会長、池田政務調査会長はそれぞれNHKのインタビューに答えました。このうち森幹事長は重要法案の成立にむけた野党側への協力の呼びかけは、まず野党第一の民主党を優先させ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この中で森幹事長は自民党が三人で過半数に達していない中で国会運営について決めたように述べました。森幹事長はこうして述べた重要法案の成立にむけた野党側への協力の呼びかけは、野党第一の民主党を優先させ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また、深谷総務会長は野党側がそうして衆議院の解散総選挙を行おうと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今の経済情勢の中で一時の空白期間も優先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また、深谷総務会長は、経済が悪くなることも大きな影響を受けるのは中少企業だ。政府金融機関からの融資枠の拡大や所得増の見直しなど都市の中上層に配慮した政策に傾いていくと述べました。池田政務調査会長は所得増の課税最低限の問題について海外から見ても非常に高い水準であり、長期的な税制のあり方を直す際には検討課題になっている。しかし、とめは景気を回復させることが大切で来年の税制の改正でそこを見直すことは難しいと述べました。また、法人税について国際水準からみて高すぎるとの認識は一致していると思ふ。橋本総理大臣も3年以上に見直すという方針を1年以上前に打ち出していることと述べました。政府は今日開かれた衆議院議員運営委員会の理事会で臨時国会を今月30日に召集する方針を伝えた。臨時閣議で正式に決定しました。今日開かれた衆議院議員運営委員会の理事会でつらから百官長官は臨時国会を今月30日に召集したいと述べ、各党もこれを承認し、召集日に総理大臣の指名選挙を行うことになりました。これを受けて、政府は臨時閣議を開き、臨時国会を今月30日に召集することを正式に決定しました。また、衆議院の議員の選挙権を行使する際には、来月7日に新しい総理大臣の所信表明演説を行うことを決めました。しかし、臨時国会の会期については自民党が10月7日までの70日間と希望し、合意にはいたらず、改めて協議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政府は臨時国会に金融機関の抱える不良債券を処理するための閣議法案を提出し、継続審議となっている旧国鉄や国有林野事業の債務を処理するための閣議法案などとも、できるだけ早い時期の成立を目指したいとしています。一方、参議院の閣外派は今月19日に自派とだけ事務局に提出した。それによりますと、会派別の議員数は自民党が106人、民主党、新緑風会が55人、公明が24人、共産党が23人、社民党14人、自由党12人、二院クラブ、自由連合が4人、さきがけが3人、改革クラブ3人、無所属が8人となっています。

週明けの今日の東京市場は日本経済の先行きに対するけんなどから先週末の海外市場で円安が進んだ流れを受け、株、円相場とも大きく値下がりしました。（東京株式市場は午前中平均株価が280円余り値下がりし午後になって円安が進むにつれて下げ幅が拡大しました。主要銘柄からの平均株価は先週末より417円53銭安い1万5,944円36銭とおよそ1カ月ぶり1万64円を割りました。市場関係者はこの先行きの行政権が思いきった経済政策を打ち出すのはむずかしいという見方から日本経済の先行きに対するけんなどが改められ平均株価は大幅に値下がりしたと話しています。一方、東京外国為替市場は先週末の海外市場で円安が進んだ流れを受けて先週末より1円以上円安水準を取り引きが始まり午後になって平均株価が1万64円を割込んだこととあって更に円安が進みまし。午後5時時点の円相場は先週末より1円80銭円安ドル高のドル142円33銭から36銭と2週間ぶり142円代まで値下がりしました。

次に、平成12年度から実施される介護保険制度ではおとしりが必要とする介護の度合いに応じて介護サービスが提供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厚生省はこの要介護認定の具体的な基準を今日示しました。これは今日開かれた医療保険福祉審議会のふかいで厚生省が初めて明らかにしたものです。介護保険制度ではお年寄が必要とする介護の度合いを6段階に分けてそれぞれのランクに応じて介護サービスが提供されます。今日、厚生省が示した認定基準では、ますます介護を必要とする要介護の対象になるのは一日に平均して170分以上の介護が必要とみなされるおとしりです。要介護1は一日に135分以上、要介護2は一日に30分以上と決めています。身のまわりの世話や料理など一日当分の1以上の手助けを必要とするお年寄は要支援の対象にしています。この要介護1に対して、たとえおとしりも介護を必要とする要介護2と認定されたお年寄は、在宅の場合には最高で週に13時間ホームヘルパーの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外看護婦やリハビリの専門家の訪問サービスも受けられるとしています。また、要支援と認定されたお年寄は特別養護老人ホームなどの施設には入れないものの、自宅で週に3時間程度ホームヘルパーの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としています。厚生省はこの基準に基づいて年内にすべての市町村で試験的に認定を行ってみたい、その結果を参考にして来年最終的な認定基準を決めることとしています。

フィリピンのマニラで開かれていたアセアン地域フォーラムは先ほど閉幕し、しかも発表される議長声明で今年5月に核実験を強行したインドとパキスタンに対して両国を名指して非難するおとしりも加えられることと見られています。アセアン9か国に加えて日本、アメリカ、中国などの20か国と、EU、ヨーロッパ連合が参加して、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問題を協議していたアセアン地域フォーラムは先ほど日本時間の午後6時すぎに終了し、まもなく議長声明が発表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この議長声明では、今年5月に核実験を強行したインドとパキスタンに対して核実験をやめるよう改めて、呼びかけると共にCTBT包括的核実験禁止条約などの早期証明を求める見通しです。しかし、声明の原案に盛り込まれていたインドとパキスタン両国を名指して非難する表現をそのまま採用するかどうかをめぐってこのフォーラムの参加国のインドが激しく反対するなど参加国の意見が対立していたことから最終的にどのような表現で声明がまとめられたかが焦点になっています。昨日投票が行われたカンボジアの総選挙は投票率が90%を超える見通しで今朝から始まった開票作業もこれまでのところ順調に進んでいます。フンセン第二回目の自民党と二つの野党による三つの野党の争いとなった総選挙は、早ければ今夜にも体制が判明する見通しです。フンベンから中継でお伝えします。（全国およそ1,500か所の開票場で開票が始まりおとしり10時開始が立ちました。開票は順調に行われています。各市からフンベンの国家選挙管理委員会には開票結果が順次報告されています。選挙管理委員会では日本時間の今夜9時から開票結果の中間発表を行う予定です。市民の関心が高まっています。今回の総選挙の投票率について国家選挙管理委員会はフンベンで90%、最大の選挙区コンボンチアムで95%、全体の投票率は90%を超える見通しとしています。これは前回の総選挙より投票率が高まった後カンボジアの国民が初めて自らの手で選んだ選挙への関心の高さを示しています。一方、投票と開票の段階で不正や混乱は報告されていません。これを受けて総選挙が自由で構成されたかどうか監視するために現地入りした国際監視団は日本時間の今夜10時前に声明を発表し総選挙はおおむね肯定的と評価する見通しです。以上フンベンからお伝えしました。

金融ビッグバンを向けて競争が激化する中で証券業界では大手ばかりでなく、中堅、中小の間でも生き残りかけた再編の動きが出てきました。東海地方基盤に営業している中堅の証券会社東海まじん証券と次週開業を決めた山一証券系列のなかの証券会社が来年4月をめどに合併することで今日合意しました。発表によりますと、両社は存続会社を東海丸万証券として来年4月1日をめどに合併し、合併比率は東海丸万証券が1に対して、内外証券が0.75、本店は名古屋市にある東海丸万証券の本店に置き、資本金や会社名は今後決めます。東海丸万証券は東海地方を営業基盤の中心にして従業員が1000人あまりで39の店舗を持つ中堅の証券会社です。今年に入ってから経営が破綻した山一証券やさん一証券の店舗を積極的に買出し、東海地方や首都圏で店舗網の拡大を進めています。一方、内外証券は首都圏と東海地方を中心17の店舗を持っていますが、山一証券とそのグループ会社が株式を保有している、経営の安定化をはかるため、新たな株式の引受け先を探していました。今回の合併は金融ビッグバンで競争が激化する中で中堅中小の証券会社の生き残り策の一つのありかたを示しました。東海丸万証券はともども東海地方を中心に個人向けの営業力を入れたことと、さらに今回同じ東海地方に営業基盤を持つ内外証券と合併することで東海地方と地域に密着したきめこまかい販売も大きな強みです。金融ビッグバンで激化している競争に営業基盤という地域的な強みを生かしていくのが狙いです。一方、山一証券の破綻は通手をおとしり内外証券としては規模が小さいだけに新たに経営のめんどろをみてくれる証券会社をみつければ単独で生き残るは難しいという判断がありました。証券業界では大手内外証券を中心に銀行や海外の金融機関と提携する再編が進んでいます。今後はこれまでもその影にかかれていた中堅中小の証券会社の間でも再編の流れが加速してきます。

徳川幕府最後の将軍を勤めた、おとしりの幕末のものに見られる軍服姿や洋服姿を撮影した5枚の写真が新に確認されました。激動の時代を生きたおとしりの人なりや当時の徳川幕府の資料として注目されています。これら5枚の写真は、東京城立総合書庫で保管されていたもので、一つは徳川家から城に寄贈されたおとしりのものに収められていました。これはフランスのナポレオン3世から贈られたと言われている軍服を身にまとい、馬にまたがった写真です。白黒の写真の上に画の具で色をつけた大変

省はこの新たな基準に基づいて今月末までに来年度予算の概算要求を行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自民党の森幹事長は今日の記者会見で今後の税制改革の進め方に際して中堅所得層の税負担が重くなっているとして、まずこの層に対する減税策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ここで森幹事長は今後の税制改革について減税の実施にあたっては所得税や住民の税率を国際的な基準にして行くことが大切だとした上で次のように述べた。

NHKが小淵内閣発足後初めて行った世論調査によりますと、小淵内閣を支持すると答えた人は37%、支持しないと答えた人は47%でした。NHKは先月31日から3日間全国の20歳以上の男女1,800人を対象に電話による世論調査を行い59.4%にある1,069人から回答を得ました。それによりますと充足したばかりの小淵内閣の支持率は支持するが37%、支持しないが47%で、支持しないが支持するを上まわりました。支持する理由は、他の内閣より良きからだから32%、人柄が信頼できるから41%、支持する政党の内閣だから16%などの順となっています。支持しない理由は、政策に期待が持てないから44%、実行力がないから22%、支持する政党の内閣ではないから10%でした。また小淵内閣の顔ぶれについてたまたところ派閥にとらわれているが54%、派閥にとらわれていないが4%でした。一方望ましい政権のあり方については野党による非自民連立政権が28%、自民党に社民党とさきがけが協力する政権が20%、自民党の単独政権が13%、自民党に自由党が協力する政権が10%、自民党に旧公明党グループが協力する政権が4%でした。さらに衆議院選挙の時期についてはできるだけ早く32%、今年の末まで16%、来春の統一地方選挙のころ22%、再来年の任期満了の選挙が14%でした。各政党の支持率を先月の調査と比べて見ますと自民党は24.3%で2.1ポイント上がりました。民主党は30.4ポイント上がった15.7%、自由党は30.3ポイント上がった3%、新党平和は前回と同じ0.1%、共産党は30.9ポイント下がった3.3%、社民党は1.5ポイント下がった2.6%、改革クラブは前回と同じ0.1%、さきがけは30.1ポイント上がった3.3%、公明は30.5ポイント下がった3.4%、特に支持する政党はないが0.7ポイント下がった42.2%でした。

山一証券経営破綻に伴ってこれまでに販売された抵当証券の元りそくが十分にかえてこない恐れがあることから、抵当証券を購入したおよそ200人が山一証券に払いもどしに応じよと求める訴えを今日東京地方裁判所におこした。

(山一証券の破綻に伴って山一証券や系列のノンバンク山一ファイナンスが発行した抵当証券は元本とりそくの払いもどしを十分受けられない恐れが出ています。このための抵当証券を購入した193人が山一証券は購入した人元本とりそくを払いもどす責任があると主張して購入した額の一部として一人あたり10万円を合わせて1,930万円の支払いを求め訴えを今日東京地方裁判所におこした。発行された抵当証券の総額は320億円にのぼ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原告側はこんでも抵当証券を購入した人に呼びかけて同じような裁判をおこして行くことにしています。)

今日の訴えについて山一証券は、抵当証券に関しては証券業界などで作る財団法人に業務がうつっているまだ訴状もといていないのでコメントを言い控えたいという談話を出した。

イランで改革派のハタミ大統領が赴任してから三日で1年が経ちました。ハタミ大統領は改革路線を進める一方で悪化する経済の再建という難題をかかえています。テヘランからの報告です。ハタミ大統領は先月末立憲社を誹り報道の自由を重視する考えを強調しました。ハタミ政権発足から一年、保守派の抵抗にもかかわらず報道や言論の自由は少しずつ広がっています。新聞や雑誌も相次いで出版が許可され、この一年間でおおよそ20%増えました。新たに創刊されたのはほとんどが改革派のものです。しかし経済状況は悪化する一方で。早朝テヘランの市内大通りには日雇いの仕事を持つ若者達の姿がこれまでより自立つよになりました。失業率は全体では10%を越えると言われています。失業は学歴のある中流層にも及んでいます。モステファさんは大学での専攻を生かしてコンピューターソフト会社に努め、月給は700ドル以上を稼いでいました。しかし二年前に会社が倒産し失業して以来これまでの生活水準を維持できる定職はみつかりません。職業案内所はなく、就職活動は新聞の求人欄ばかりです。経済悪化の直接の原因は、去年からの石油化の急落です。たい収入が大幅に減少した結果、財政が苦しくなり国内各業の経営難が民間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ます。経済の立て直しについてハタミ大統領は二日、就任一週年を記念するテレビ演説を行い外国資本の導入と共に石油への依存からの脱去を訴えました。しかしこうした政策が具体的にみえますかどじかかハタミ大統領の見通しはありません。保守派の抵抗を受けるハタミ大統領にとって改革路線への国民の支持を再び固めるために経済を立て直しは政権二年目の大きな課題となります。

今日はです。先月国内で販売された新車の台数はトラックの販売不振が影響して去年の同じ時期より8%減り、16か月続けて前年の実績を下まわりました。(日本自動車販売協会聯合会のまとめによりますと先月一か月間国内で販売された軽自動車を除く新車の台数は43万台で去年の同じ時期より8.4%減り16か月続けて前年の実績を下まわりました。この中乗用車の販売台数はメーカー各社が相次いで新しいモデルを発売したこともありおおよそ32万44台と去年並みまで回復して見られました。不況と公共投資の抑制でトラック販売台数が10万74台余り11年前の水準にまで落ち込んだことが大きく影響しました。今日都内で会ったトヨタ自動車の田嶋社長は新車販売の見通しについて秋以降は明るい見通しを市場に投入することや販売促進にさらに力を入れることが予想され夏休み明けからは新車の販売に明るい兆しがはじまると述べています。)

今日ひるまえ山梨県大月市のキャンプ場で親子3人が川で水遊びをして流され子供2人は救助されて無事でしたが父親は屍体で見つかりました。(今日午前11時すぎ大月市柳川町のかつ川キャンプ場で東京警視庁の会社員がしまひろさん41才が次女のゆきさん10才と長男のゆきさん8才と一緒にすぐ前の川で水遊びをしていたところ3人も川に流されました。2人の子供はまもなく救助され無事でしたがゆきさんはおおよそ3時間後の午後2時頃に3キロほど下流で見つかりました。大月警視庁の調べによりますと、かじさんは家族5人で遊びに来ているキャンプ場に着くとすぐに2人の子供をわきかえて川に入って水遊びを始めたところ流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現場のかつ川は幅がおおよそ10メートルで事故当時水深はおおよそ3メートルと先週の雨でふたんよや増水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警察ではかじさんは急流に足をと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みています。)

インドネシアのスハルト政権家で反体制派の活動家等が相次いで行方不明になった事件でインドネシアのスハルト前大統領の娘息子が前の陸軍陸略予備軍司令官の関与を追求して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

(これはインドネシアのワラント国防相兼軍司令官が今日記者会見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す。この事件は今年3月の大統領選挙の際にスハルト政権を公然と非難していた活動家や学生などが相次いで行方不明になったものです。会見の中でワラント国防相はこの一連の事件について陸軍の幹部のうち当時陸略予備軍司令官でスハルト大統領の娘息子のプロボウ中尉など3人が誘拐や拷問に係わった疑い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そして軍内部に設けた特別調査委員会に3人を召喚して事件への関与を追求して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事件ですすでに身柄を拘束されている陸軍特殊部隊の捷報ら10人が軍事法廷で裁かれる予定でアラブコ中尉は事件の中心人物と見られてきました。)

年内の合流を予定している旧公明党系の新党平和と公明は今日両党の幹部による定期協議の初会合を開きました。そして政府が今の臨時国会に提出する不良債券の処理のための閣議法案は内容が不十分だとして合流をまとめて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

(合流は新党平和と新輪代表や公明の四律代表と両党の幹部が出席し政府が提出を予定している金融機関が破綻した場合に借り手を保護するいわゆるフリーズバンク法案などへの対応を協議しました。その結果伝えられている政府案では情報の会社経営責任の明確化が十分保障されていないなどして両党合同のプロジェクトチームを設け法案をまとめて行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同じ旧公明党の新党平和と公明は先に先に先内閣をめぐって合流することを確認しています。今の臨時国会の最大の焦点となっている不良債券の処理のため閣議法案への対応で足並みをそろえることで合流の新たな党の基本政策作りなどにも前みをつけたい考えです。

次は中継です。梅雨明けが遅れている東北地方ですが各地で夏祭りの季節を迎えています。このうち森岡市内で行われているさんさ踊りの様子をご覧いただきます。(森岡さんさ踊りは全国一の盛り上がりです。三日間で延べ1万2千個太鼓がわりまきます。今日が二日目です。東北ではまた梅雨が明けませんが日中高空も見えて気温は30度を越えました。太鼓は男性の物で重さ6キログラム、踊りながら打ちならすのが特徴です。前も踊り手も加わって、森岡中心部のおおよそ1キロをわりまきます。さんさ踊りは江戸時代にはすでに踊られていたと言います。悪い鬼を鬼払った時に喜んでさんさんと言って踊り始めたのが始まりと言われています。森岡とその周辺の各地で踊りがけられました。大きな太鼓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20年前から、参加者は年々増えて今年では延べ3万6千人です。職場や学校、町内会などのグループごとに揃いの浴衣で参加していっしょに踊ります。みじかひまわりの夏を色どる森岡さんさ祭りは明日まで行われます。)

ベルギーではたごりたがフェスティバルが開かれ、色とりどりの花火が夜空を華麗に舞いました。フェスティバルには世界中から100人余りのたごり自慢が参加しました。みごとにあがったんだと長3,000メートル、重さが13キログラムもありました。制作に2年かかったそうです。イギリスからきたグループの妙技をご覧下さい。7つたごりにつながついたような華麗な舞を披露しました。観客たちはヨーロッパの短い夏の一時を満喫していました。

反政府ゲリラのテロ活動で傷ついた市民をなごませたいとバスの中で詩の朗読を始めました。歌うのは自分で作った詩ですが好まれるのは愛を歌った作品だそうです。コロンビアでは12年ぶりの政権交替をやり、政府とゲリラとの対話が始まっています。

次はスポーツです。

(お伝えします。セリアのペルージャに移籍した中田英治選手が2日地元クラブチームとの練習試合に初出場しました。ペルージャのキャンプ地イタリア中部の町ノルチャで行われたこの試合、試合前から会場は中田ゴールにつつまれました。中田にとってこれが移籍で始めての失敬でしたが、問題はまったくありません。まず積極的にゴールを連続アシスト。バスターエール監督も思っていた以上に秀れた選手と中田の活躍に満足していました。中田はさらに自らペナルティキックを決めます。練習試合とはいえやむを得ぬ中心選手として存在感を示したデビュー戦でした。次にアメリカの女子プロゴルフツアーの今シーズンのXジャー最後戦ティムクランシーの最終ラウンド、小林ひろみ選手は9位に終わりました。12アンダー6位でスタートの小林。2つスコアを延して迎えた9番 ロングホールの第3打。ピンそばにつけます。小林は前半3スコアを延して首位に1打にまでくじりました。優勝のチャンスだと思ったという小林ですが後半はショット、パットともに精度を落とします。結局ひとつスコアを落し通算117アンダーで9位に終わりました。優勝したのはフアンデパート。女子のXジャー大会最小スコアの通算187アンダーでこの大会5年ぶりで2回目の優勝を果たしました。2位はアナ・ルンズマン選手。平瀬真由美選手は34位。Xジャー3連覇をわらった韓国のパクセリは41位に終わりました。アメリカのプロゴルフツアーのアンクラインフェスト選手権最終ラウンド古木功選手は通算127アンダーで2位に入りました。プロ野球の阪神と巨人は昨今甲子園球場でテニスをめぐって選手がグラウンドでもめあい巨人のたけがみコーチと阪神のたくまコーチが退場となった昨日ファンへの謝罪文を発表しました。この中で両球団は今回の事態を野球ファンへの期待をうらざり失望させられたことについて、深い反省を今後には真摯な態度でファンへの期待にこたえるようチーム内の指導を徹底していきたいと謝罪しています。一方、Jリーグは退場となった2人のコーチを明日から試合出場停止にしました。昨日までの阪神・巨人の3連戦では3日間の試合でも巨人のガルベス選手が審判員にむかってボールを投げつけ今シーズン無期限出場停止になっていました。四国4県で開かれる全国高校総体は今日が三日目です。徳島県では相撲の個人決勝トーナメントが行われました。高知の明德技術高校2年のドルゴスレン選手が優勝。モンゴル相撲の個人戦に出場、予戦を勝ち抜き32人の選手で争う決勝トーナメントに進みました。ダシバル選手はモンゴル相撲で身につけたまわしをのけて投げた武器にベストで勝ち進みます。モンゴル出身力士のきよちゅうさんに憧れて去年の9月に来日し持前の足腰のばねの強さを生かして力をつけてきました。準決勝では惜みやぶられましたが大谷選手はただ一人3位に入賞を果たしました。今週の木曜日に開幕する夏の全国高校野球は80回の記念大会を迎えます。そこで懐かしい名場面をおりまぜながら最近の高校野球の事情を今日と明日の2日間ピッチャーとバッターに分けてお伝えします。今日はぶんぎょかのすむピッチャーです。夏の甲子園の主役はピッチャーです。背番号1をつけたエースの連投は大会の感動を与えてきました。三沢高校の太田投手は1回戦からマウンドを守りつづけてきました。決勝戦でも延長18

回を投げぬき翌日の再試合でやぶれましたが太田投手の連投には全国から大きな声援が送られました。甲子園のマウンドを一人で守るエースは勝ち進め進むほど連投を余儀なくされ、その肩やひじには大きな負担がかかります。故障してん天下で投げ続けることは投手としての寿命を縮めることにもなりかねません。7年前の大会。沖繩のいさんのエースおの投手の力投に注目が集まりました。チームは準決勝がおの投手は連投の影響で前からいためていた右ひじがさらに悪化。このあと度々マウンドに上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日本高野高校野球連盟もピッチャーの故障に目を配り始めました。4年前から肩とひじの検査や医師の診察を義務づけています。今年の沖繩のいさんはあらかじめ投手とみやぎ投手の2人の完投能力のあるピッチャーを揃えて沖繩大会を勝ちぬきました。和歌山大会では球場に医学治療奉仕が常駐し選手の故障に即座に対応できる体制作りが始まりました。かつて園天下の中で歯を喰いしばって連投に耐えた高校野球のイメージ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この夏も数多くの高校チームが複数のピッチャーを用意して地方大会を勝ち進み代表になりました。昨年の甲子園をかかせるピッチャーの姿は少しずつ変わり始めています。以上スポーツをお伝えします。)

東京の田町区で続いている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をわらった強盗事件で別の事件で逮捕された28才の男が一連の事件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る行状を始め警視庁で裏付けて捜査を進めています。この事件は今年6月からちよふしやふちゆう市など東京の田町区で深夜から未明にかけて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をわらった強盗事件が未だもめてこれまでに8件起きているものです。警視庁では先月31日12別の事件で逮捕したちよふ市内の28才の無職の男の採用車の中から一連の事件で防犯カメラに映っていたのと同じ特徴のヘルメットや上着が見つかったことから関連について調べていました。その結果この男が一連の強盗事件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る行状を始めため警視庁では裏付けて捜査を進められて容疑が同次強盗の疑いで逮捕する方針です。一方古森県では先月27日に八戸市のバチンコ店の景品交換所で女性従業員を奪っていかをさせ現金970万円余りを奪って逃げていた男が強盗傷害の疑いで逮捕されました。逮捕されたのは八戸市の会社員藤田容疑者です。警察では女性従業員が写っていた犯人の車のナンバーの一部などから捜査を進め藤田容疑者に任意で事情を聞いたところ犯行を認めたため強盗傷害の疑いで逮捕しました。お伝えしたように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やバチンコの景品交換所を狙った強盗事件が今年に入って違法最悪のペースで増え続けています。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などの側でも最新の技術を生かした防犯設備を取り入れることで犯罪の被害を防ごうという動きがひろまっています。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の防犯カメラがとらえた強盗事件の映像です。この防犯カメラ最新の技術を取り入れたものにきりかえる店が増えています。新型の防犯カメラにはテレビの地震報道などに使われているのと同じ技術が使われています。強盗犯人が店から逃げた時から非常ボタンを押してもカメラには強盗が逃げ出す前の映像が記録される仕組みです。映像もこれでの防犯カメラより鮮明で犯人の特徴や服装などが詳しく分かります。さらに映像は自動的に警備会社にオンラインで送られます。これまでのカメラが現場でテープを巻きとして再生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に比べて犯人の情報がいち早く警察に伝えられ捜査に役立つと期待されています。先月東京ははら市にあるバチンコの景品交換所が拳銃をらましたが、この交換所には防弾ガラスが使われていたため店員に傷はな被害もありませんでした。ehdehd東にある交換所の中ですでに半分近い交換所でこれでの普通のガラスから防弾ガラスに取り換えられています。宝石店やデパートでもショーウィンドーを防犯ガラスに取り換えるところが増えています。ふ厚い鉄におおわれた装甲車のような現金輸送車も登場しました。台800万円と普通の現金輸送車の2倍しますが警備会社などが相次いで購入し、金融機関からの問合せも増えているとことです。凶悪な犯罪が増え続ける中で新しい防犯設備を取り入れる動きはますます広がっています。)

- 次は小淵政権新閣僚へのインタビューです。今日は中州農林水産大臣です。
- A:内閣が開けて経済再生に取り組む中州農林水産省の役割はなんだとお考えでしょうか。
 - B:小淵総理から経済再生が最重点ということで農林水産省も経済の官庁として特に日本の国土で占める約8割、9割の面積を担当している役所ですからこの地域の経済の活性化、これが日本全体にですね、非常に大きく貢献でき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 A:昭和36年以來の新しい農業基本法に基づき内閣総理大臣の諮問機関の議論が大づかにな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先達内閣の中で最低の29%という食料自給率につきまして具体的な数字の目標を設定して高めて行くのはいいのではないかと議論もあ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 B:まあ、29%という目標を自給率としてすべてのカロリーベースについても40%ちょっといずれも世界の主な国最低でありますから日本人の日本人の食生活をですね、大半を海外に依存して行くというのはちょっと心配な部分がありますんで、まあそういう意味で基本法の中で、あるべき1つの目標数値みたいなものをですね国民的なコンセンサスの中で大きな基本をですね作っていくことは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 A:3兆8千億円の固有林野事業の累積債務これを処理するための法案を今の国会で通すことを目指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 B:3兆8千億円の固有林野事業をですねこれから特に1兆円分しっかりと自らの努力で自前削減も含めてですね、あるいは業務委託も徹底的にやっけてこれらからストラをして行くわけですからこれはやはり固有林野事業はですねやっぱり国にとって必要な事業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国民のみなさんのご理解がいただけるように努力をこれからまさに始めますよとすることそのスタートが臨時国会での法律の審議成立だと思っております。
 - A:新しい日韓の漁業協定の締結交渉ですけれども週末の金大中大統領の訪日までに実行に釘付けした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この問題にどのような立場で望めますか。
 - B:お互いの間にさきだった漁業のルール。特に資源管理を含めてですね。それで大事なことば韓国も認識していると思っております。そういう中で今年の1月にですね。協定の終了間際まで集まっており得るだけ早く日本経済を回復軌道に乗せて幅広い視野に立って対応してほしいと述べ、省庁の範囲を越えて経済の再生に取り組むよう求めました。また会議では高額な給与をもらっている特殊法人の役人の給与を引き下げることを申しあげました。長野野の産婦人科の医師が学会のガイドラインに反して夫婦以外の精子、卵子を使って体外受精を行っていた問題に関して日本医師会が医師の倫理が問われる問題が相次いでいるとして医師の倫理に関する検討委員会を充足させました。検討委員会は新しい医療技術が登場している背景原動力も踏まえて医師が守るべき義務や責任について議論を進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 A:4月電力が青森県が市町村に建設を計している東通原子力発電所1号基について原子力安全委員会は安全性に問題はないとする意見をまとめた通産大臣に答申しました。これを受け通産省は今月中にも原子力施設の設置強化を見通しています。原発の新たな立地が全国的に難行する中で増設ではなく新たな場所に原発の建設が認められるのは10年ぶりのことです。中国共産党の機関紙人民日報はインドネシアで今年5月に起きた報道の際に多数の中国係住民が暴行を受けたことについてインドネシア政府に対し、再発防止を求める異議の論を掲載しました。この中で事件を否定したり軽視したりする人がいるため今もお同様の事態が起きているとして再発防止ができれば国際的な信用や外国からの投資に影響すると警告しました。

為替と株の動きです。先ほどお伝えしたように週明けの今日の東京外国の為替市場は日本経済の先行きに対する厳しい見方を背景に新たに円を売る動きが強まり午後5時時点の相場は先週末より1円86銭円安ドル高のドル145円63銭でした。円相場が1ドル145円代まで値下がりましたのはおよそ1か月半ぶりのことです。一方東京株式市場は外国為替市場で円が一段と値下がりしたことなどから銀行株を中心に売り注文が増え平均株価は値下がりしました。正路からの平均株価の終りは先週末より213円18銭安い1万6千165円18銭でした。

今夜お伝えした主なニュースです。

4人が死亡した和歌山市の毒物混入事件でカーが調理されたなべから毒物が新たに検出されました。カーは別々の場所で作られた後、空地のテントの中に運ばれていて警察では毒物はテントに運ばれてから混入された疑いが強いて検査しています。

小淵総理大臣が景気の回復を最優先させるよう支持したことを受けて大蔵省は来年度予算の概算要求では財政構造改革法の上限を上回る予算項目を認める方向で遅くとも来週を決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

自民党の森幹事長は今日の記者会見で今後の税制改革の進め方に連関して税負担が重くなっている中堅所得層に対する減税策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今日の東京市場は円・株ともに値下がりました。日本経済の先行きに対する厳しい見方から円相場は今年6月日米協調懸案が行われる直前の水準に近いドル145円代後半まで値下がりました。日本自動車販売協会連合会によりますと、先月国内で販売された新車の台数はトラックの販売不振が影響して去年の同じ時期より98%減り16か月連続して前年の実績を下回りました。最後に1度森岡のさん踊りの様子をご覧いただきましょ。東北を代表する祭りの一つさん踊り。3万6千人の住民がグループごとに揃って浴衣で参加しています。このさん踊りもあすも行われます。それでは今晩はこれで失礼いたします。

【11月9日】

こんばんは。11月9日月曜日夜7時です。まず、今日の主なニュースです。9日間の飛行を終えた向井さんら7人の飛行士たちは出迎えた市民たちの歓迎を受けました。銃を使った犯罪を無くすためにパテック技術を使った新しい銃がアメリカで開発されています。スマートガンと呼ばれるこの銃、犯罪防止の切りふたとなるのか銃社会アメリカで熱い議論を巻き起こっています。大相九州場所二日目。三場所連続の優勝を狙うよこすな貴花に早くも土がつきました。

会社厚生活てきたきつけた静岡県ぬま市に本社がある中堅スーパーやおはんジャパンの商法違反事件で静岡県警察本部は今日元の社長等3人を違法配当の疑いで逮捕しました。警察ではおよそ9億円の容疑者田の外にも5億円の違法の配当を行っていたのを見て詳しく調べています。(逮捕されたのはやおはんジャパンの元社長と田田景昌容疑者67歳と元取し役財務部長のつかもとあきひこ容疑者55歳、それにすでに倒産している小会社の元社長のおかたきりゅう容疑者49歳のあわせ3人です。静岡県警察本部の調べによりますと、和田元社長は15年前からやおはんジャパンの決算を粉飾し、おととし3月の期決算で配当できる状況ではなかったのにおよそ9億円の違法の配当を行っていた疑いがもたれています。また、つかもと元財務部長ら2人は和田元社長のもとで決算の粉飾に關与した疑いで警察では今日3人を商法の違法配当の容疑で逮捕しました。調べに対して3人は容疑をおもね認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粉飾された額はおよそ130億円のほとと見られ

